

2010. 12
독도연구 2010-04

# 근대 일본의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2010. 12

유미림 · 최은석

◆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유미림 (1장, 2장 1절, 4장, 5장)

● 연구진

- 최은석 (2장 2절, 3장)

1. 이 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해양·독도연구실에서 시행한 연구결과입니다.
2. 이 책에 게재된 내용은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

## 머 리 말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역사학자는 문헌을 통해 자국의 고유영토임을 입증하려 애써왔다. 역사학 연구에 기초가 되는 사료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에 대한 관심을 지리지로 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구가 부진했었다. 지리지란 기본적으로 국가의 행정정보와 역사, 지리, 경제, 정치, 산업, 풍속 등을 망라하고 있으므로 그 안에는 통치에 대한 이념과 기본방향이 담겨 있다. 이에 일본은 조선의 개국 이전부터 지리적 정보를 수집해왔고 이를 식민지화 정책에 연계시켜갔다. 따라서 일본의 지리지 편찬은 식민지화과정과 연관이 깊다.

일본은 지리지를 편찬에 있어 조선의 전통적 지리지를 참고하거나 역관의 저술을 참고한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관리의 현지 파견에 의한 실지 정보에 근거하려 했다. 그런데도 지리적 정보 가운데 특히 울릉도와 독도 관련 내용은 시기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고 또한 수로지와도 다르다.

이 연구는 지리지에서 특히 울릉도·독도 관련한 서술내용을 분석하여 일본의 영토인식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1905년 이전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호칭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로 대표되지만, 1880년대에 서양 호칭인 ‘리앙코루도 열암(양코 도)’이 유입되면서 독도 호칭으로 마쓰시마와 다케시마, 리앙코루도 열암이 혼재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 그 과정을 추적하면서 지리지와 수로지에 드러난 독도 호칭 문제를 일본의 ‘고유 영토’론과 연계시켜 논하고자 했다. 그 결과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한 뒤에 ‘다케시마’라고 명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지에 여전히 ‘리앙코루도 열암’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1905년 이전 대부분의 지리지에는 ‘리앙코루도 열암’ 즉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서 한 셋트로 기술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일본에 의

해 불법으로 편입되기 전에는 분명히 ‘리양코루도 열암’이 조선 영토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제를 위해 유미림 부연구위원과 최은석 책임연구원이 일본어 사료를 일일이 해독하여 분석에 이용했으며 또한 조선 사료 및 수로지도 함께 검토하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노고에 감사드린다.

본 연구가 근대기 지리지에 나타난 일본의 울릉도·독도 관련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로서 향후 일본 고유 영토론의 허구성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0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김 학 소

# 차례

Executive Summary ..... i

제 1 장 서론 : 연구의 목적과 방법, 범위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방법 및 범위 ..... 3

제 2 장 독도 영유권 관련 지리적 쟁점과 지리지 ..... 10

- 1. 독도 영유권 관련 지리적 쟁점 ..... 0 1
  - 1) 근대 이전 조선 지리지의 울릉도·독도 기술 ..... 0· 1
  - 2) 호칭을 둘러싼 쟁점 ..... 61
- 2. 지리지와 영토 확장 ..... 91
  - 1) 근대 이전의 지리지 ..... 91
  - 2) 일본의 지리지 편찬과 식민지 개척 ..... 6· 2

제 3 장 일본의 ‘조선’인식 : 지리지 개관(1875-1910) ..... 30

- 1. 조선의 자연 지리 ..... 08
- 2. 조선의 인문 지리 ..... 44
- 3. 지리지의 특성 ..... 05
  - 1) 서술 형식의 문제 ..... 05
  - 2) 일본인의 조선 인식 추이 - 문제의식 및 서술 주체의 변화 ..... 3· 5

제 4 장 지리지 안의 울릉도·독도 인식의 추이	58
1. 조선 지리지의 울릉도·독도 인식	85
1) 1876~1905년: 울릉도·독도 호칭의 혼란과 ‘량코 도’의 등장	85
2) 을사늑약 이후 지리지 서술의 변화	88
3) 1911~1945년: 울릉도 지명의 세분화와 ‘양코 도’ 호칭의 정착	301
2. 일본 지리지의 울릉도·독도 인식	31
1)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 분리	31
2) 편입 후 독도, 일본 지방지에 수록	71
3. 수로지의 울릉도·독도 기술	6
1) ‘울릉도 일명 마쓰시마, 독도 리양코루도 열암’으로 기술	631
2) 독도 호칭이 ‘竹島(Liancourt rocks)’로 변화	4
3) 동도·서도 호칭의 등장과 이칭	4
4. 호칭으로 본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 종합	261
제 5 장 결론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65
1. 요약	165
2. 정책적 시사점	18
참고문헌	172

<일러두기>

- \* 일본문헌에 나온 호칭은 다케시마(竹島), 마쓰시마(松島)로 표기하고 조선 문헌을 직접 인용한 경우에는 죽도, 송도로 표기함, 다만 ‘죽도’는 독도가 아닌 현재의 죽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죽도로 적고 한자는 병기하지 않음
- \* 죽서(竹嶼)의 경우에는 죽도 혹은 죽서(竹嶼)로 표기함
- \* 랑코 도, 양코 도, 리양코루토 락스 등의 경우, 원문 발음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원문을 병기함
- \* 처음 나오는 서명은 원어를 표기하되 두 번째부터는 한글로 표기할 수 있으며, 서명안의 지명은 그대로 쓰기로 함  
예) 『은주시청합기』, 『죽도고』

표 차 례

표 3-1. 조선 지리지에 기술된 조선의 경위도 ..... 1· 3

표 3-2. 조선 지리지의 이용 자료 ..... 43

표 3-3. 『최신 한국실업지침』(1904)에 기재된 일본인 거류지 일람 ..... 6· 4

표 3-4. 『최근 조선요람』(1909)에 기재된 일본 거류민 수 ..... 9· 4

표 4-1.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부·경찰서 관할구역』에서 울릉도의 소속 및 지명 변화 ..... 1

표 4-2. 울릉도 독도 호칭 ..... 2

표 4-3. 일본지리지 안의 울릉도·독도 호칭 표기 ..... 531

표 4-4. 수로지의 발간 연혁 ..... 5

표 4-5. 수로지에 보인 울릉도·독도 호칭 ..... 21

표 4-6. 수로지의 독도 및 동·서도 호칭 ..... 41

표 4-7. 수로지의 죽도[竹嶼] 및 주변 지명 ..... 51

표 4-8. 수로지의 조선 및 울릉도·독도 경위도 ..... 71

표 4-9. 지리지와 수로지에서의 강치 호칭 ..... 91

표 4-10. 문헌상의 각 지역간 거리관계 ..... 91



## Executive Summary

### Perception of Ulleungdo and Dokdo in Modern Japanese Topographies on Korea

Modern Japan's compilation of topographies on foreign states is closely related to her colonization of Asian states. Colonization, by its nature, needed geographical knowledge on the areas to be colonized. Before that, topographers in Tokugawa Japan used secondary sources like Joseon Dynasty's traditional topographies and writings of interpreters in Tsushima. This method became obsolete and inept in Meiji Japan which needed vivid foreign informations for establishing modern, formal relationship with other Asian countries. In result, as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Asia progressed, modern geography took the place of the traditional topographies.

This study analyzes Japanese topographical descriptions on Ulleungdo and Dokdo, focusing on changes in the names of the islands. Traditional Japanese name of Dokdo, Matsushima, was sometimes disregarded and was called as Liancourt Rocks according to the Westerners' naming, and in later Tokugawa and early Meiji period, three names of Dokdo coexisted - Matsushima, Takeshima, and Liancourt Rocks. The same can be said in the case of Ulleungdo which had multiple Japanese names of Matsushima, Takeshima, and Dagelet.

Usually, Matsushima is recorded as Ulleungdo in the maps containing both of Matsushima and Takeshima, but Takeshima is designated as either Dokdo or Jukdo depending on the authors of the maps in question. This results in discre

pancies between maps and topographies in terms of the names of the islands. The same can be said as to the description of Suirōshi, which explains that Ulleungdo's 'another name is Matsushima', and that Dokdo is also called 'Liancourt Rocks'. It was not until 1933 that Suirōshi stopped the use of 'Liancourt Rocks' and began to solely use 'Takeshima'.

Topographies before 1905, the year when Japan incorporated Dokdo into her territory, always described Ulleungdo with Dokdo in the same section and 'Liancourt Rocks' was usually described as belonging to Ulleungdo. This suggests that 'Liancourt Rocks' was supposed to belong to Korea like its main island Ulleungdo. Although Japan incorporated Takeshima into her territory, topographies in 1912 still described Dokdo as 'Liancourt Rocks'.

Both of Ulleungdo and Dokdo also appears in Japanese topographies. At first, the islands were described in a section on Oki, but after the forced annexation of Korea in 1910, the two islands appeared in topographies on Japan, alongside of mainland Joseon. And in some occasions, the two islands were not explained as belonging to Japanese territory, even though they were described in the section on Oki. After the forced annexation of Korea, however, Dokdo began to be described as 'belonging to Oki' apart from its main island Ulleungdo. Some of the contemporary topographies in Japan deals with Dokdo, but the number of them is extremely limited.

The most notable in the descriptions of Ulleungdo and Dokdo in Japanese topographies is that they lack consistencies and continuities as to the two islands' longitude and latitude, names, geographical expressions, etc. From these facts, a conclusion can be derived that Japan did not recognize Dokdo as her native territory even after entering the modern period.

# 제 1 장 서론 : 연구의 목적과 방법, 범위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이전에 먼저 조선에 대한 지식과 정보 수집에 착수하였고, 그 작업은 일련의 지리지 편찬으로 나타났다. 지리지란 기본적으로 국가의 행정구역에 대한 정보와 지리, 경제, 산업, 풍습, 종교, 제도 등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그 안에 국가의 통치이념이 담겨 있다. 일본이 조선 지리지를 편찬하기 시작한 시기는 일본에 의한 조선 개국과 이어진 식민지화 과정과 맞물려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는 당시 발간된 조선 지리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은 왜국 조선을 개국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하고 이어 개발의 미명하에 조선에 대한 침탈 계획을 세워갔다.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일본은 지리지에서 조선에 대하여 어떻게 기술하고 있으며, 어떤 추이를 보이는가? 그리고 지리지 안에서 울릉도와 독도 관련 내용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전통시대의 지리지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근대 지리지에 관한 연구, 더구나 일본인의 시각에서 펴낸 조선 지리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근대기의 지리지 연구라 하더라도 일제 강점기의 조선 지리지에서 울릉도 지명의 생성과 변화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sup>1)</sup> 따라서 메이지 유신 이후 강점기 전까지 일본이 편찬한 조선 지리지 및 일본 지리지 가운데 근대기와 강점기를 포함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지리지는 통상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로 구분되는데 자연지리에는 지형과

---

1) 김기혁·윤용출, “일제 강점기 울릉도 지명의 생성과 변화”(2006); 강순돌, “일제강점기 조선지리지의 성격에 관한 고찰”(2008)

지세, 기후 및 조류(潮流), 산물 등이 포함되고, 인문지리에는 주민과 종교, 교육, 정치, 경제, 산업, 외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리지에는 자연·인문 지리정보 외에 각도에 관한 지지를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각도에 관한 내용도 지리지마다 다르다. 더구나 개국 이후의 지리지는 전통적인 조선 지리지 체재와는 구성이나 편목 면에서 많이 달라 형식 면에서는 근대적 지리지 형식이 도입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도 1905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변천한다.

본 연구는 지리지의 일반적 특성과 내용 전반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울릉도·독도와 관련된 내용상의 추이를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지리지 중에서도 발행지와는 관계없이 일본인이 편찬한 지리서를 대상으로 분석하되,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된 1905년과 강점기의 출발인 1910년을 주요 분기점으로 하여 그 추이를 고찰한다. 영토 인식의 추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리지에 나타난 지명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리지에 기술된 울릉도 관련 지명이 시대를 내려오면서 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도 관련 호칭 역시 지리지마다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1900년을 전후한 시기는 조선이 일본에 의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시기이므로 일본은 지리지를 편찬하여 식산과 개발, 침탈정책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개국 초기 한국은 근대적인 지리지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찬작업이 미미했으나 일본은 한국 침탈을 위한 효율적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지리지 편찬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의 개국을 전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한국의 지리와 문화, 역사, 전통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시작하여 지리지 간행에 착수하였다. 조선 개발이 진행되면서는 점차 산업 현황과 자원, 수산업 등의 파악에 관심 영역이 옮겨가 특수한 목적의 지지를 간행하게 된다. 더구나 일본의 통치력이 확산되면서는 지리지 편찬과정에 일본 정부와 조선 총독부 관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일이 늘고 있다. 지리지 서문 작성자의 상당 부분이 조선 총독부 및 일본 정부의 관리들이라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지리지에서 특히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내용은 시기적인 편차와 서술 방식의 차이가 심한 편이다. 관할구역의 변동은 차치하더라도 도서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경위도에 관한 기술이 지리지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지리지와 수로지, 그리고 조선 지리지와 일본 지리지가 같은 대상을 두고 기술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 물론 서술 주체가 다르고 문제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질적인 기술은 제공된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지명 변화는 영토의 귀속권 판단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울릉도와 독도 인식과 관련하여 지리지에서 이들 도서 지역에 대한 기술상의 추이와 호칭의 변화를 고찰해보면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 영토론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고는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호칭상의 추이 및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구명해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일차 사료에 의한 분석으로 수행된다. 일본인 편찬의 조선 지리지가 주요 분석 대상이므로 일본어로 된 일차 사료가 문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을 고찰하는 것인만큼 조선 지리지는 물론 일본 지리지, 수로지, 그리고 한국인이 저술한 지리지도 연구 대상에 포함된다. 1869-1945년 사이에 발행된 일본인 편찬 조선 지리지와 일본 지리지 종류는 수산지와 수로지를 포함하여

약 80여 종이 넘는다. 이 가운데 연구의 중심은 일본인 편찬의 조선 지리지 분석에 놓이되, 비교를 위해 일본 지리지와 수로지도 함께 검토한다. 그 과정에서 1905년과 1910년을 기점으로 하여 전후의 추이를 분석한다. 이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의한 독도 편입 시기 및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을 전후한 시기에 지리지 기술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이다. 또한 지리지의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인 편찬의 조선 지리지와 일본인 편찬의 일본 지리지를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의 『대한 지지』(1899년), 장지연의 『대한 신지지』(1907년), 박은식의 『한국통사』를 고찰한다. 이들의 지리지 기술은 비슷한 시기에 나온 일본인 편찬의 지리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어느 정도 일본인 지리지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전해오던 조선 지리지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조선 지리지뿐만 아니라 일본 지리지도 포함되는데, 일본이 펴낸 지리지에는 개인의 저작은 물론이고 정부 주관의 지리지도 포함된다. 그리하여 일본 내무성 지지과 주관의 『日本地誌提要』(1874-1879?), 『日本地誌略摘解』(1879), 『改正日本地誌要略』(1889), 『日本地理』(1889) 등의 전국 지리지와 지방 지리지도 분석 대상에 속한다. 이들 일본 지리지도도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실린 독도 관련 내용이 조선 지리지의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수로지의 경우에도 조사대상이 조선인가 일본인가에 따라 독도 관련 내용에 양적·질적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측량의 실시 여부에 따라 경위도 관련 정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또한 똑같이 일본에 의해 편찬된 지리지도 할지라도 조선 지리지인가, 일본 지리지인가, 수로지인가에 따라 기술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교차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지지목록은 아래와 같다.

편·저자	서명	발행지	연도
<b>일본 편찬 조선 지리지</b>			
染崎延房 편	朝鮮事情(1집 2책)	東京:三書房	1874
東條 保 편	朝鮮誌略	東京: 須原屋茂兵衛	1875
邏列留駄牟 지, 本部 역	朝鮮事情 (원제는 高麗洋教史略)	東京:集成館	1876 (원저는 1874)
近藤保祿	朝鮮國地誌摘要	大阪: 時習舎	1876
坂根達郎 편술	朝鮮地誌		1881
關根錄三郎	朝鮮國誌(2冊)	丸善書店	1883
小松運 편술	朝鮮八道誌	東京: 文旋社	1887
關澤明清 竹中邦香 同編	朝鮮通漁事情	東京:團團社書店	1893
足立栗園 편저	朝鮮志	東京:益友社	1894
鈴木信仁 편술	朝鮮紀聞	東京:愛善社	1894
松本謙堂 지	新編 朝鮮地誌要略	大阪: 鍾美堂	1894
大田才次郎 편	新撰 朝鮮地理誌	東京:博文館	1894
恒屋盛服 지	朝鮮開化史	東京: 東亞同文會	1901
葛生修亮 지	韓海通漁指針	東京: 黑龍會	1903
岩永重華 편	最新韓國實業指針	東京: 寶文館	1904
矢津昌永 지	韓國地理	東京:丸善	1904
田淵友彦 지	韓國新地理	東京: 博文館	1905
荒川五郎 지	最近朝鮮事情	東京: 清水書店	1906
田淵友彦	滿韓旅行記		1907
農商務省山林局	韓國誌	東京:東京書院	1905
農商工部水産局	韓國水産誌(1-4집)	경성:조선총독부	1908-10
朝鮮雜誌社 편	最近 朝鮮要覽	경성: 日韓書房	1909, 1910
足立栗園 지	朝鮮新地誌	東京: 積善館	1910
地理研究會 편	朝鮮新地理	大阪: 田中宋榮堂	1910

편·저자	서명	발행지	연도
韓國 農商工部 편	韓國通覽	경성:통감부	1910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朝鮮要覽	경성:조선총독부	1910-32
吉田英三郎	朝鮮誌 (上,下)	경성:일한인쇄	1911
山道襄一 저	朝鮮半島	경성:日韓書房	1911
조선총독부	最近朝鮮事情要覽 1-7, 8	경성	1911-20, 22
日韓書房	最新朝鮮地誌	경성:日韓書房	1912
조선총독부 편	地方行政區域 名稱一覽 (3책)	조선총독부	1912
原田彦態 小松徹三	朝鮮開拓誌	경성:朝鮮文友會	1913
越智唯七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 名稱一覽	경성	1917
朝鮮及滿洲社編	最新朝鮮地誌(상·중·하)	조선금만주사	1918
조선총독부	朝鮮地誌資料 4책	경성	연도 미상(1914?)
藤戶計太	最新朝鮮地理 108-109	경성일보사	1918
日高友四郎	新編朝鮮地誌	경성:弘文社	1924
조선총독부	新興の朝鮮	경성:조선총독부	1929
조선총독부 내무국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경성:조선총독부	1912-32
柳川勉 편저	朝鮮十三道誌	경성:内外事情社	1934
조선총독부	朝鮮現勢便覽 1-5	경성	1935-39
小野清 편	朝鮮風土記	東京:民論時代社	1935
北條亮英	朝鮮大觀	東京:朝鮮文化普及會	1938
조선총독부	朝鮮事情 1-4	경성:조선은행조사부	1944(?)
<b>한국 편찬 조선 지리지</b>			
학부 편집국	朝鮮地誌		1895
현재	大韓地誌		1899



편·저자	서명	발행지	연도
장지연	大韓新地誌		1907
박은식	韓國痛史	上海: 大同編譯局	1915
<b>일본 지리지</b>			
元正院地誌課	日本地誌提要 1-8	東京	1874-79
大橋操吉 輯錄	日本地誌提要	東京	1872
安倍爲任, 富士越金之助編	日本地誌略	東京	1875
河野通雄	日本地誌略摘解	神戸: 鳩居堂	1879
大槻修二 편	改正日本地誌要略	大阪: 柳原喜兵衛	1889
前橋孝義 지	日本地理	東京: 富山堂	1889
村岡良弼 지	日本地理志料 1-15	東京: 東陽堂	1902-3
山崎直方, 佐藤傳藏 공편	大日本地誌	東京: 博文館	1903-15
井原儀 지	最新 日本地理資料	東京: 大同館	1911
島根懸教育會編	島根懸誌	松江	1923
高橋勝	最新 日本地理資料	明治圖書株式會社	1926
	日本地理大系	東京: 改造社	1928-31
	帝國行政區畫便覽	東京: 警眼社	1929
仲摩照久 편	日本地理風俗大系 10	東京	1930
山本熊太郎 지	概觀 日本地誌 (상권)	東京	1930-1
島根縣 편	島根縣史 9	松江	1930
島根縣 隱岐支廳 편	隱岐島誌	島根	1933
濱田町	濱田町史	東京: 一誠社	1935
日本地誌研究所	日本地誌 16권	東京: 二宮書店	1977
安部 勝 편	五箇村誌	島根縣 隱岐郡	1989
<b>수로지</b>			
해군 수로국	水路雜誌 6호	東京	1883
해군 수로국	水路雜誌 41호	東京	1883

이 연구는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인식’이란 어떤 사물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자각하거나 이해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식이란 이미 알고 있는 ‘인지’적 의미의 ‘recognition’보다는 ‘과정’적 의미의 ‘perception’에 가깝다. 일본인들이 조선에 대한 일련의 정보와 지식을 획득해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조선이라고 할 때도 여기에는 조선이라는 나라와 민족, 영토 등 다양한 차원의 개념을 포함한다. 근대기 일본인이 펴낸 지리지와 수로지에는 조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같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편자에 따라 시각 차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동일한 전거를 그대로 기술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그런 인식상의 차이나 추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시기 지리지와 수로지를 모두 포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2장에서는 독도 영유권 관련하여 지리지에서 쟁점이 되어 온 것이 무엇인지 조선 지리지를 통해 개관하였다. 그리고 일본 지리지 분석에 앞서 근대 이전의 지리지 체재와 근대 이후의 체재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일본이 편찬한 조선 지리지의 내용을 고찰하되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자연지리는 조선국에 대한 정의, 지형과 지세, 기후, 경위도, 동식물에 관한 정보 등 기본적인 육상 정보를 담고 있는데, 1900년 이전 내용에는 실측에 기반한 정보라기보다는 문헌에 근거한 정보가 많다. 인문지리의 내용은 역사와 산업, 행정 분야를 담고 있다.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지리지에서 울릉도와 독도 관련 내용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의 범위는 1870년대부터 1945년 사이에 발간된 지리지를 포함한다. 이 시기에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나온 지리지를 체재에 따라 구분해보면, 근대기 전후의 지리지는 주로 지지(地志), 풍토기 등과 같이 조선의 일반 현황을 다룬 지리지류가 있고 『한해통

어지침』, 『최신 한국실업지침』, 『한국 수산지』, 『조선 개척지』, 『조선사정요람』 등과 같이 특정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구분된다. 지리지에서 울릉도·독도 관련 내용은 대부분 각도의 지지 혹은 처지(處地) 항목에 기술되어 있는데 울릉도에 관한 내용만 있고 독도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할지라도 시기별로 다르다. 이에 1876년부터 1945년 사이에 중요한 전환기가 된 시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그 추이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일본 지리지 및 수로지에도 울릉도 및 독도 관련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찰했는데, 이들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호칭이었다. 지리지와 수로지에는 독도 호칭의 경우 우산도, 다케시마(竹島), 마쓰시마, 리양코루 도, 랑코 도 등의 명칭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들 명칭간의 상관성과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수로지는 조선 수로지와 일본 수로지를 아울러 분석하였고, 수산지에서의 울릉도 내용도 함께 분석하여 울릉도·독도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총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했다.

## 제 2 장 독도 영유권 관련 지리적 쟁점과 지리지

### 1. 독도 영유권 관련 지리적 쟁점

#### 1) 근대 이전 조선 지리지의 울릉도·독도 기술

지리지를 독도 영유권과 관련시켜 볼 때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문제는 조선 지리지에 기술된 울릉도와 우산도가 같은 섬인가 다른 섬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조선 지리지와 일본 지리지에 함께 등장하는 호칭을 둘러싼 문제이다. 물론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서로 연관성이 매우 깊다.

근대 이전 울릉도와 독도의 연혁을 다룬 한국문헌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신증 동국여지승람』, 『지봉유설』, 『동국지리지』, 『성호사설』, 『춘관지』, 『강계고』, 『잡동산이』, 『동국문헌비고』, 『연려실기술』, 『증정 교린지』, 『만기요람』, 『오주연문장전산고』, 『증보 문헌비고』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지리지로서 울릉도·독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세종실록』(권 153 지리지/울진현), 『고려사』(권58 지 12/지리 3 울진현), 『신증 동국여지승람』(권45 울진현), 『여지도서』(강원도/삼척/고적), 『동국지리지』(우산도), 『동국문헌비고』(권13 여지고/해방), 『대동지지』(강원도/울진), 『증보 문헌비고』(권31 관방/해방) 등이다. 지리지란 기본적으로 국가의 행정구역에 대한 정보 및 지리, 경제, 산업, 풍습, 종교, 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서이다. 조선 지리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전통적인 지리지는 특히 지역지리학의 개념을 담고 있으므로 특정 장소에서의 고유한 특성을 밝히는 데 역점이 놓여 있다. 전통적인 조선 지리지의 범위는 전국을 포함하는 지리지와 도, 군현, 촌·동·면을 다룬 읍지

적 성격을 띤 지리지 두 가지 형태가 주를 이룬다. 지리지 체제는 보통 지형과 기후, 기행과 생물, 연혁, 역사지리, 산업 등의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로 구성되지만, 근대 이전의 지리지는 대체로 자연지리적 기술형태가 양적으로 우세하였다. 형식에 있어서도 시기적으로 차이를 보여, 조선 전기에는 유교적 통치이념 하에 중앙집권화를 꾀할 목적에서 펴낸 관찬 지리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유교문화를 창달할 목적에서 중국의 『대명 일통지』를 모방하여 예속과 시문 등을 싣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오면 지리지 편목이 증가하고 내용도 자세해져 자연환경, 자원 분포, 인구 분포, 교통, 관방, 조세, 풍속과 생활 등 국가 경영과 관련되는 내용을 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지리지가 국토 재건과 방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sup>3)</sup> 조선 후기 지리지는 지명 및 풍속의 소개에 역점을 두던 초기의 양태에서 변화한다. 그리하여 전기의 주요 항목이던 명신, 인물, 제영(題詠) 등의 편목이 빠지고 대신에 방리, 호구, 전결, 제언, 시장, 나루터, 목장, 조세, 창고 등의 항목이 추가되어 있어 국가재정과 경제 관련 항목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편찬자의 측면에서 보면, 전기 지리지는 관리들이 주도했으나 후기 지리지는 권력에서 소외된 사대부층과 실학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sup>4)</sup> 이 때문에 조선 전기의 지리지가 사변적이고 이념적이었다고 한다면, 후기에는 서양과학 지식이 유입되고 북학사상이 태동하면서 지도 제작에 과학적인 방법이 도입되는 변화가 보인다. 조선 전기의 지리지 가운데 울릉도와 우산도 내용을 중심으로 지리적 쟁점을 다루어보기로 한다.

2) 삼국사기, 고려사, 신찬 팔도지리지, 세종실록, 팔도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신증 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신찬 팔도지리지와 팔도지리지는 현존하지 않는다.

3) 최영준, “조선 후기 지리학 발달의 배경과 연구전통,” 『문화역사지리』4(1992), 54쪽.

4) 최영준, 윗글, 55쪽.

울릉도·독도 관련 내용이 가장 먼저 보이는 사료는 『삼국사기』이다.<sup>5)</sup> 여기에 우산국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이 우산국에 우산도(독도)가 포함되는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지증왕 13년 즉 서기 512년 단계에 신라가 울릉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밝혀준 자료라는 점에서 『삼국사기』는 중요한 기록이다.

지증왕 13년(512년) 여름 6월, 우산국이 진심으로 복종하고 해마다 토산(土産)을 공물로 바쳤다. 우산국은 명주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라고도 하는데 땅은 사방 백리이다. 이곳 사람들이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복종하지 않자,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의 군주(軍主)가 되어 말하기를, “우산국 사람들은 어리석고 성질이 사나워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것이 어려우니 피를 써서 복종시키는 게 좋겠다”고 하였다. 이에 나무로 가짜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선(戰船)에 나누어 싣고는 그 나라(우산국-역자) 해안에 이르러 속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만일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 맹수들을 풀어놓아 밟혀 죽게 하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두려워 바로 항복하였다.

이 기록에 우산도는 보이지 않고 우산국만 보이므로 울릉도만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있다. ‘우산도’라는 지명이 보이는 것은 『고려사』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이다. 『고려사』지리지에 보면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온다.

[혹자는 말하기를 우산(于山)과 무릉(武陵)은 본래 다른 섬인데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sup>6)</sup>

5) 권 34-37까지가 ‘지리’로 분류되어 있으나 울릉도에 관한 내용은 권 4 신라본기 4 지증마립간 조에 실려 있다.

6) 「一云于山武陵本二島 相去(距)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

『고려사』는 본문에서는 울릉도 1도설을 말하고 있으나 주에서 우산과 무릉 2도설을 말하고 있다. 2도설이 주(注)로서 설명되어 있긴 하지만 두 섬임이 분명히 밝혀져 있다. 조선 전기에 오면 태종 17년(1417) 기사에 안무사 김인우가 울릉도에서 돌아와 토산물을 바치는 내용이 나오면서 우산도가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우산도는 내용으로 보건대) 울릉도의 일을 가리킨다. 이후의 기사부터는 ‘우산’과 ‘무릉’이 언급되어 동해상에 두 개의 섬이 있다는 인식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이때의 우산도 역시 주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되어 있어 독도를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산도가 울릉도와는 별개의 섬으로서, 그리고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세종실록』지리지라고 할 수 있다.

####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현의 정동(正東) 해중(海中)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우산국(于山國), 또는 울릉도(鬱陵島)라 칭했는데, 땅이 사방 백 리이며,...】

『세종실록』지리지는 우선 제목부터 ‘우산과 무릉’으로 되어 있어 두 섬으로 되어 있고, 울릉도에 대한 호칭이 ‘무릉’으로 되어 있다. 울릉도에 대한 호칭이 『고려사』지리지에는 ‘우릉’ ‘무릉’ 두 호칭이 나왔으나,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무릉’만이 나온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제목에 ‘무릉’이 들어가 있으나 본문에는 ‘울릉도’라는 호칭만 보인다.

『신증 동국여지승람』 역시 제목이 ‘우산도 울릉도’로 되어 있다.

---

7) 우산도의 호수가 15가구요 남녀 86명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데, 세 봉우리가 우뚝 솟아 허공을 떠받치고 있으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날씨가 맑으면 봉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으며, 바람이 잘 불면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다.

일설에는 우산과 울릉이 본래 하나의 섬이라고 한다. 땅은 사방 백 리이다....

이 문헌에는 우산과 울릉을 하나의 섬으로 본 일설이 소개되어 있어 2도설이 완전히 정착한 상태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제목에 ‘무릉’으로 들어가 있던 것이 여기서는 ‘울릉도’로 바뀌어 있다. 이후 나오는 울릉도·독도 관련 내용을 제목만으로 보면, 『동국지리지』에는 ‘우산도’, 『동국여지지』에는 ‘우산도울릉도’로 되어 있다가 『택리지』에 오면 ‘울릉도’, 『강계고』에도 ‘울릉도’, 『여지도서』에서도 제목이 ‘울릉도’로 되어 있다. 『동국문헌비고』와 『증보 문헌비고』에는 ‘우산도울릉도’로 되어 있다. 따라서 후대로 오면 울릉도의 호칭으로서 ‘무릉’이라는 호칭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울릉도’로 정착되어간다. 마찬가지로 후대로 오면 2도설이 정착하고 있다. 『증보 문헌비고』의 ‘우산도·울릉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산도(于山島)】 · 【울릉도(鬱陵島)】 :

[울진에서 동쪽 3백 50리에 있다. 울(鬱)은 울(蔚)이라고도 하고, 우(芋)라고도 하며 우(羽)라고도 하고, 무(武)라고도 하는데, 두 섬으로 (그 중 - 역자) 하나가 바로 우산(芋山)이다. (속) 지금은 울도군(鬱島郡)으로 되었다.]

울릉도는 울진현(蔚珍縣)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데, 일본의 은기주(隱岐州)와 서로 가깝다. 세 봉우리가 높이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조금 낮다. 날씨가 맑으면 봉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까지 역력히 볼 수 있다. 바람이 좋으면 이틀이면 갈 수 있다. 땅은 사방 1백 리이다.



----[ 《여지지(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于山國) 땅인데, 우산은 바로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이다’고 하였다. ]<sup>8)</sup>

이들 일련의 기록을 보면 우산도와 울릉도가 1도라는 설에서 점차 2도 설로 바뀌어 가고, 울릉도의 호칭은 무릉, 우릉 등에서 ‘울릉’으로 정착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산도는 울릉도와는 다른 섬이라는 인식이 확립되면서 한편으로는 우산도에 대한 일본 호칭 마쓰시마(松島)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조선 지리지에서 울릉도에 관한 언급은 있었으나 우산도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후기에 오면 우산도에 대한 지견이 확대되고 그 결과 우산도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마쓰시마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기록에 보인다.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독도를 마쓰시마로 부르고 있었으므로 이는 조선의 우산도가 독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분명히 말해준다.

여기서 말한 “우산도가 바로 일본이 말하는 송도”라는 인식은 후일 한일 양국에서 우산도가 독도인가 아닌가를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에서 ‘우산도가 독도’임을 입증해주는 논거가 된다. 조선 지리지에서는 우산도를 울릉도와는 다른 섬으로 보고 이를 일본의 마쓰시마에 해당시키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의 일각에서는 우산도가 울릉도 옆의 죽도(죽서)나 관음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이는 마쓰시마라 불리는 섬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일본측 문헌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 조선 지리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인 우산도 호칭을 둘러싼 전개 즉 ‘일도이명(一島異名)’ 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를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8) 『증보 문헌비고』(권 31) 여지고 19/ 관방 7/ 해방10/울진 (1908)

## 2) 호칭을 둘러싼 쟁점

1954년 양국간 독도 영유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한국 정부가 우산도를 울릉도와는 다른 섬으로 보고 제시한 논거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 동국여지승람』이었다. 우리나라는 이들 사료에 나온 기사를 들어 우산과 울릉, 두 섬은 동일한 섬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일본은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는 구절을 들어 2도설을 부정해왔다.<sup>9)</sup>

이에 한국은 『세종실록』지리지는 신라시대의 우산국을 말한 것이지 우산도(여지지에 우산도를 우산국의 일부라는 것을 표시)를 말한 것은 아니며,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언급은 ‘일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즉 한국은 이들 두 사료가 편찬될 당시에는 분명 2도입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설령 2도설을 취하더라도 전문이 울릉도에 대한 설명으로 일관하여 우산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sup>10)</sup>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런 관점은 그 후 일본에서 한국의 영유권을 부인하는 학자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이미 밝혀진 바 있듯이 우산도가 울릉도와는 다른 섬이라는 사실은 서계 박세당의 사료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후대로 올수록 우산도에 대한 지견도 확대되어감을 알 수 있다.<sup>11)</sup>

대개 두 섬<sup>12)</sup>이 여기<sup>13)</sup>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 한번 큰 바람이 불면 이를 수 있는 정도이다. 우산도(于山島)는 지세가 낮아 해기(海氣)가 매우

9) 『독도관계자료집』(1)-왕복외교문서 1954년 9월 25일부

10) 『독도관계자료집』(1)-왕복외교문서 1954년 9월 25일부

11) 유미람, “우산도=독도’설 입증을 위한 논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8. 참조.

12) 두 섬: 여기서 두 섬이 울릉도와 우산도입은 뒤의 문장으로 드러난다.

13) 여기: 위에서 영해라고 밝혔으므로 영해 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맑지 않거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울릉이 (우산도보다, 역자 주) 조금 더 높다.<sup>14)</sup>

다만 문제는 여기에 나온 우산도가 독도인가 하는 점이다. 박세당은 우산도는 날씨가 매우 맑거나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울릉도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산도는 적어도 울릉도 옆의 죽도[竹嶼]가 될 수는 없다. 죽도나 관음도 같은 도서는 울릉도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높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또한 날씨가 조금 흐리더라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15)</sup> 울릉도에서 떨어져 있으며 아주 맑은 날 높은 곳에서 보이는 섬을 찾는다면 그것은 독도 밖에는 없다.

우산도가 독도임이 사료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산도에 해당하는 일본의 호칭이 마쓰시마라는 점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말하는 마쓰시마는 한국의 독도에 해당되므로 만일 마쓰시마가 우산도임을 인정하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우산도가 독도라는 점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산도 혹은 자산도에 관한 언급은 이미 안용복 당대에 한 적이 있다.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만난 일본인에게 “송도는 자산도(子山島)로서, 그것도 우리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거기에 사는가?”고 따진 적이 있다. 위의 기술은 조선에서 17세기 중반을 전후로 하여 우산도에 대한 지견이 확립되어 있었음과 동시에 일본의 호칭에 대해서까지 조선에 널리 알려졌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조선의 호칭인 울릉도와 우산도를 일본의 호칭에 비정한다면 그것은 다케시마(竹島)와 마쓰시마(松島)가 될 것이다. 적어도 에도 시대까지는 일본 호칭 다케시마를 우리나라 호칭 울릉도에, 마쓰시마를 우리나라 호칭 독도에 비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문헌과 지도를 통해 알려져 있

14) 『盖二島去此 不甚遠 一飄風可至于山島勢卑 不因海氣極晴朗 不登最高頂 則不可見 巒嶺稍峻』(『울릉도』)

15) 유미림, “‘우산도=독도’설 입증을 위한 논고,” 『한국정치외교사논총』29-2, 2008. 94쪽.

었다. 그러던 호칭이 메이지 시대에 접어들면 혼란을 겪게 된다. 근대기에 서구인들이 붙인 호칭이 들어오면서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 경위를 살펴보면, 1787년에 프랑스의 라 페루즈가 울릉도를 발견하고 최초 발견자인 부솔 호의 함장 다줄레의 이름을 따서 다줄레 섬으로 명명하였다. 1791년<sup>16)</sup>에는 영국의 탐험가 콜넷 역시 울릉도를 발견하고는 이름을 아르고노트라고 붙였다. 그러나 라 페루즈와 콜넷이 발견한 울릉도는 같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경위도상 다른 위치에 그려졌기 때문에 유럽에서 제작한 지도상에는 두 섬이 다른 섬인 것처럼 나타났다.

이후 1800년대 초기에 간행된 지도에는 아르고노트와 다줄레 두 섬이 함께 그려진 지도가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네덜란드 의사로서 일본에 오래도록 체재했던 시볼트는 일본쪽에 마쓰시마, 조선쪽에 다케시마라는 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유럽지도에 보였던 다줄레를 마쓰시마로, 아르고노트를 다케시마로 추정, 그가 제작한 지도에 대입하였다. 이렇게 해서 종래 다케시마로 불리던 울릉도가 마쓰시마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1854년 러시아 팔라다 함의 측정으로 인해 이전에 콜넷이 아르고노트라 부르던 울릉도의 경위도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써 이후의 지도에서는 아르고노트가 현존하지 않는 섬으로 치부되거나 지도상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한편 1849년에는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 호에 의해 지금의 독도가 발견되었고, 뒤이어 영국의 호넷 함대에 의해 독도(다케시마)가 발견되어 호넷 락스로 기재되었다. 이로 인해 지도상에는 아르고노트와 다줄레, 리앙쿠르, 호넷 등의 섬이 기재되거나 아르고노트는 표시되지 않는 등의 혼란을 겪었다.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구미에서 제작한 지도에는 일반적으로 독도 호칭으로 다줄레 섬 또는 마쓰시마, 리앙쿠르 락스, 호넷 락스 등의 호칭이

---

16) 1789년 설도 있다.

혼재된 형태로 기재되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일본에서 나오는 지도나 지리지 가운데 특히 1890년대와 1900년대 초반에는 독도의 호칭으로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외에도 우산도, 양코 도, 리양쿠르 락스 등이 혼용되어 표기되었다. 울릉도에 대한 호칭으로는 종래의 다케시마 대신에 ‘울릉도 일명 마쓰시마’라고 하거나 다줄레 혹은 마쓰시마로 표기되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마쓰시마로 불리던 독도 호칭은 다케시마와 리양쿠르 락스로 전화되었다가 1905년에 편입될 때는 다케시마로 명명되어 정해졌다. 한국에서 주로 불리던 ‘우산도’ 호칭이 일본 지리지에 등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1800년대 후반에 독도 호칭으로 주로 마쓰시마가 사용되었고 1903년에 ‘양코 도’라는 호칭이 출현한 이후로는 주로 ‘양코 도’로 불렸다. 그런데 수로지에서 양코 도 호칭 즉 리양코루도 열암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지리지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 이는 호칭에 있어서 지리지와 수로지간 시차가 존재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호칭상의 변화가 지리지와 수로지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는 4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 2. 지리지와 영토 확장

### 1) 근대 이전의 지리지

1785년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지은 『三國通覽圖說』은 그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상에서 지리를 논하는 자가 적지 않지만, 특하면 만국의 도(圖)를 논하고 그게 아니면 우리나라 땅에 한정되고 있다.”<sup>17)</sup> 18세기 말에 이르기까지의 일본 지리지의 경향을 이토록 간명하고도 정확

17) 『三國通覽圖說』題初. 본고에서는 규슈대학 디지털 아카이브에 공개된 필사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http://record.museum.kyushu-u.ac.jp/sangokutu/index.html>)

하게 파악한 문장은 달리 없을 것이다. 그가 비판하는 것은 일본의 지리만을 논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범위를 무한히 확대하여 전 세계의 지리 현상을 개괄적으로만 논하는 그때까지의 경향이었다. 그리고 이는 바꿔 말하자면 바로 이웃 나라들에 대한 당대 일본인의 무관심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 ‘이웃 나라’ 속에서 주요한 것으로 조선이 있었음은 물론이다.<sup>18)</sup>

일본의 지리지는 나라시대인 713년에 『風土記』를 편찬한 이래 자국의 여러 지방의 기후와 산물, 연혁을 서술하는 데 주력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지적되듯이 이것은 다양한 카테고리를 나열하는 형식을 취했으며, 각종 지리 현상을 일관해서 원리적으로 서술하는 근대 지리지적인 양상과는 거리가 멀었다.<sup>19)</sup> 이는 일본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지리지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고 외국 지리지도 마찬가지로 형식을 취했다. 이하에서는 18세기 말에 작성된 두 개의 조선 지리지를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 (1) 『삼국통람도설』

이미 지적했듯이 에도시대 일본에서는 조선을 다룬 지리지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런 속에서 예외적인 것이 여기서 설명할 『삼국통람도설』과 『상서기문』이다. 이 둘을 살펴봄으로써 메이지유신 이전 일본 지식인의 조선에 대한 지리 인식을 일람하기로 한다.

18) 에도시대 일본인이 그토록 조선을 도외시한 이유를 추적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상기해 볼 수 있는 한 예로 사토 노부히로(佐藤信淵)의 주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1808년에 지은 『서양열국 사략(西洋列國史略)』이란 문헌에서 조선을 중국에 대한 ‘부용(附備)의 속지(屬地)’로 간주하여 조선이 세계 속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지닌 독립국임을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조공 관계를 맺고 있던 조선을 일본의 국학적 세계관에 바탕하여 멸시 혹은 도외시켰을 가능성은 있다. 사토 노부히로에 대해서는 최은석, “사토 노부히로의 대외관 - 구제와 침략,” 『동북아역사논총』 29호 (2010. 12)를 참조.

19) 시라이 데쓰야(白井哲哉)의 연구에 따르면 에도시대 지리지의 효시를 이루는 것은 1666년에 편찬된 『會津風土記』이며 이때 확립된 체제는 이후 막부에 의한 관찬 지리지인 『新編武藏國風土記稿』에까지 이어진다. 白井哲哉, 『日本近世地誌編纂史研究』(思文閣出版, 2004) 제2장, 제6장.

먼저 『삼국통람도설』은 『해국병담(海國兵談)』으로 유명한 하야시 시헤이의 저작으로, 조선을 필두로 류큐, 예조, 오가사와라 군도 등을 서술한 것이다. 그 서문[題初]에서 하야시는 일본 지리에 관해서는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 1717~1801)의 지도를 보라고 한 다음, 이 문헌이 다루는 각 지역에 대한 정보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를 보면 먼저 조선에 관해서는 “조선의 지도는 조선 대상서(大象胥)가 전한 것을 나가사키 사람(崎陽人) 나라바야시 씨(榎林氏)가 비장하던 진기한 지도[珍圖]가 있어 이를 근거로 삼았다”고 적고 있다. 나라바야시 씨란 곧 나가사키의 네덜란드어 통역이자 난방의[蘭醫] 즉 네덜란드 의학의 선구자 중 한 명인 요시오 고규(吉雄耕牛, 1724~1800)를 가리킨다. ‘조선 대상서’란 곧 쓰시마 대통사(大通詞)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류큐에 관해서는 1721년에 저술된 『中山傳信錄』을 정보원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책은 1719년에 중국의 책봉 사절로서 류큐에 가서 8개월간 체류한 서보광(徐葆光)이 류큐 현지의 서적을 모으고, 현지 관리 및 학자와 교류하여 얻은 지식 및 류큐 여행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하여 쓴 복명서로서,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입되어 일본 국내에서 간본이 발행됨으로써 널리 알려졌다.<sup>20)</sup> 한편, 예조에 관해서는 자가 소장 지도와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가 1720년에 지은 『하이지(蝦夷志)』를 주요 정보원으로 하고 있으며, 무인도 즉 오가사와라 제도에 관해서는 나가사키의 시마야(嶋谷) 집안의 문서를 보았다고 적고 있다. 시마야 가문이란 165년에 오가사와라 제도의 섬들을 발견했다는 시마야 이치자에몬(嶋谷市左衛門)의 후손을 가리키는 듯하다.<sup>21)</sup>

이렇게 보면 류큐와 예조는 둘 다 하야시보다 60여 년 앞선 18세기 초의 자료에 근거하여 기술되었음을 알 수 있고, 명확한 연도를 확정할 수는

20) 和田久徳, “『中山傳信錄』の清刊本と和刻本,” 『放送大學研究年報』第5號 (1987), 1쪽

21) 『三國通覽圖說』 題初

없지만 조선과 오가사와라 제도에 대해서도 특별히 새로운 정보를 취해서 작성했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때문인지 후술하는 『象胥紀聞』과는 세부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부정확한 점도 보인다. 일례로 “그 나라[조선]의 두 도읍이라는 것은 경기도의 왕성과 경상도의 진주이다”라는 서술도 보이고, 『삼국통람도설』에서 경기도의 행정체제를 4목(牧) 9부(府) 등으로 서술한 데 비해 『상서기문』에서는 3목 9부 등으로 적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sup>22)</sup>

우선 그 체재와 내용을 보면, 여러 지역을 소략하게 다룬 책인 까닭에 조선 항목은 장절의 구분없이 개조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내용은 일본의 잇키섬과 쓰시마로부터의 거리를 서술하여 조선의 대략의 위치를 부각시킨 다음 그 위도를 35도~45도에 걸쳐 있다고 적는 것으로 시작한다. 경도에 대한 설명은 없다. 곧이어 고대에 삼국이 있었고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렀다고 그 연혁을 서술하는 점에서는 다른 조선 지리지와 공통된다. 이어서 백두산에 대해 언급하고 조선 8도에 대해 행정 조직을 중심으로 소략히 서술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의 무비(武備)가 강고해졌음을 지적하고, 이후 부산포 왜관, 화폐, 연호, 사람의 특성, 문자(한글), 복장, 단군과 기자 조선 순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순서라 할 만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 (2) 『象胥紀聞』

쓰시마의 역관인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 1754~1831)가 1794년에 지은 『象胥紀聞』은 18세기 말의 주요한 조선 지리지이다. 오다 이쿠고로는 이 책을 지은 1794년에는 이미 30년 남짓 역관으로 근무했으므로 쓰시마 역관

22) 『三國通覽圖說』朝鮮八道; 오다 이쿠고로 지음, 구리타 에이지 옮김, 『상서기문』(이회문화사, 2005) 38쪽.



중 최고위인 대통사(大通詞)의 지위에 올라 있었다.

오다는 『상서기문』의 서(序)에서 ‘상서’ 즉 통역이란 직책이 중국 고대로부터 시작된 오래되고도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 뒤, “그 나라[조선] 상관(象官: 관상감)의 서리(胥吏)에게서 그 영역 내의 형세를 들어서” 이 책을 지었다고 적고 있다. 이 책의 주요 정보원이 조선의 관리였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체재를 보면, 전체가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권은 역세(歷世) - 태조 소전(太祖小傳) - 조의(朝儀) - 도리(道理)로 구성되어 있다. ‘역세’는 제목 그대로 한반도의 역사를 다룬 것이다. 내용을 보면 단군 조선에서 시작하여 기자 조선, 삼한, 신라, 고구려, 백제를 거쳐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극히 간략하게 기술하고, 이어서 조선 왕의 계보를 태조에서 당시의 조선 국왕인 정조 때까지 열거했다. 다만, 연산군과 광해군은 이 목록에서 빠져 있는데, 이는 오다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제외했다기 보다는 그에게 정보를 준 조선 관리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태조에 대해서는 따로 ‘태조 소전’ 항목을 마련하여 상세하고 적고 있다. 이는 공식적인 역사 서술이라기보다는 이성계의 일화를 몇 개 나열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역사 부분은 위와 같이 대체로 소략한 편이다. 『상서기문』의 서술이 상세해지고 당대의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태조 소전’에 이어 나오는 ‘조의’부터이다. ‘조의’란 원래 조정의 의식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 책의 ‘조의’ 항목에는 조하(朝賀), 조회(朝會) 같은 조정 의식뿐만 아니라 서울 및 경기의 지리, 궁궐의 구조, 서울의 풍속 등이 어지러이 섞여 기술되어 있다. 비록 서술이 체계적이지 않기는 하지만 18세기 조선의 풍속과 실상을 다양한 면에 걸쳐 알려주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일본의 다른 조선 지리지에는 보이지 않는 사대(事大)에 관한 기술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역관으로서의 오다의 개인적 관심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는데, ‘사대’에는 중국과 조선의 외교 교섭의 실체가 소상히 서술되어 있다.

이어지는 ‘도리’는 조선의 8도 구분과 주요 산천, 도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머리에는 8도의 명칭과 주요 지방관 명칭, 서울에서 각 지역까지의 거리, 역참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극히 소략하다. 반면에, 주로 남해안의 주요 포구와 뱃길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되고 있는데, 이는 쓰시마 역관이라는 저자의 성격을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해안 지방과 도서에 관한 서술에서 울릉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양적으로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울릉도를 자산국(子山國)이라고 한다. 또 궁송(弓嵩, 이소다케)이라고도 한다. 한 섬에 이름이 세 개이다(일본에서 말하는 다케시마이다). 강원도 내에 있다. 무용(無用)한 섬이다. 3년에 한 번씩 수영(水營)으로부터 관리가 두 세 명, 일본 통사(通詞) 한 명이 삼척에서 배로 검분(檢分)하러 간다. 경성에서 삼척까지 600리, 수로 1천 여 리, 날씨가 좋아도 일본이나 조선의 산이 양 쪽 다 보이지 않는다. 좋은 포구[浦津]가 없다. 섬 주위는 대강 140, 150리. 물은 좋은 물이 있다. 논밭으로 쓸 수 있는 땅은 없다. 맹수 종류는 없다. 큰 고양이가 많이 있는데 개만큼 크다. 정기적으로 이 섬에 건너가는 사람은 없다. 가끔 전라도 사람이 해초를 캐러 가서 이 섬에서 배 수리 등을 하고 돌아온다고 한다. 또 이 섬에는 인삼이나 그 외에 전복, 해삼 등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인삼은 영초(靈草)라고 해서 많이 있다고 해도 운이 나쁘면 찾아낼 수 없다. 게다가 (인삼의 무게가 -역자) 한 근을 넘으면 더 이상 캐낼 수 없다고 한다. 해물(海物)은 다른 곳보다 많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이 섬의 살쟁이는<sup>23)</sup> 옛날 이 섬에 인가(人家)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역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가를 철수시켰을 때 남았다고 한다. 또 전라도 사람들이 조선에서 배를 제일 잘 몰기 때문에 <이 섬까지 갈 수 있는데> 다른 도 사람은

---

23) 山貓를 살쟁이로 해석함

이 섬까지 일하러 갈 수가 없다고 한다.<sup>24)</sup>

섬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는 이 시기나 후대의 지리지에서 언급된 묘사와도 일치하는데, 울릉도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나쁜 짓’을 해서 철수되었다는 것, 전라도 사람들과 울릉도와의 깊은 인연을 지적하는 것은 일본의 여타 조선 지리지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사항이다.<sup>25)</sup> 다만, 울릉도에서 민간인을 소개(疏開)한 것이 어느 시대의 일을 가리키는지는 본문에서 명확하지 않다.

중권은 절서(節序) - 인물 - 관제(官制) - 과거(科擧) - 예속(禮俗) - 제(祭) 등 조선의 풍속에 관계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절서’에서는 조선의 연중행사, ‘인물’에서는 각 도별 사람의 기질이나 특성, 혼인 풍속, 직업 실태 등을 다루고 있다. 이어서 ‘관제’에서는 조선의 관직 제도를 상세히 서술하고 의장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뒤이은 ‘과거’, ‘예속’, ‘제’ 등은 제목 그대로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본고의 목적과 크게 연관되는 것은 없으므로 생략한다. 하권은 ‘호적’을 시작으로 법제와 사회 여러 풍속을 소상히 서술하고 있다. 전체의 반 정도 분량을 차지해서 기술하다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바로 이 하권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18세기 조선 사회를 아는 데 흥미로운 자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 본고의 목적과는 별 연관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다수의 삽화를 동원하여 특별한 순

24) 『상서기문』 49쪽. 한자 표기를 한글로 고쳐 쓴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구리타 에이지의 번역문을 그대로 인용함.

25)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도 나온다: “제주 사람들은 조선반도 내에서도 기질이 크게 달라, 성질이 거칠 뿐 아니라 품성들이 나쁘며 매사에 거칠다고 한다. 옛날에 제주 사람들은 표착한 일본 사람들을 죽이고 소지품을 훔친 적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곳에서 전해지고 있으므로, 제주 사람들은 일본에 가끔 표착해도 제주 출신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전라도 해남 주변 지명을 엉터리로 말한다고 한다.” (『상서기문』183쪽). 이 인용문은 제주도 사람들과 일본인이 접촉할 때의 이야기이지만, 제주도 사람들이 스스로의 신원을 전라도 해남 사람으로 위장했다는 것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독도를 둘러싼 해상교류사와 관련해서도 유의해 둘 만한 내용이라고 하겠다.

서 없이 상세히 서술한 체제는 당시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던, 『守定漫稿』 같은 풍속지(風俗誌)와 유사하다는 인상을 준다.

『상서기문』은 후술하는 메이지시대의 여러 조선 지리지, 특히 초기 지리지에서 거듭 인용되는 문헌이며, 따라서 19세기 말까지 일본인의 조선 지리 인식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문헌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과 체제는 이미 살펴보았듯이, 서로 구분되는 내용을 별도의 장절(章節)로 나눠 서술하기보다는 애매한 제목 밑에 잡다한 사실을 섞어 놓았고, 사실을 전달한 것도 물론 많지만 세부 묘사에서는 전문(傳聞)에 의한 일화를 모아 놓은 것이 많은 등,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서술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난학자들이 경위도를 써 가며 각국의 지리를 규정하고 주로 서양 각국을 중심으로 주요 사건들과 사회제도에 관심을 기울이던 것에 비하면 왕조의 계보와 공식적 행정 체제, 그리고 각종 일화로 지면을 메우고 있다.<sup>26)</sup> 즉 『상서기문』, 그리고 이 문헌으로 대변되는 18세기 말의 일본인의 조선 지리 인식은 당대 지식계의 성과를 흡수한 것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서술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뒤로도 오랫동안 이러한 서술 방식이 일본의 지리지를 지배해왔음은 제3장에서 논하기로 한다.

## 2) 일본의 지리지 편찬과 식민지 개척

근대 이전의 지리지와 달리 근대 일본의 지리지는 외국이라는 존재를 강하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양 정보에 대한 갈구는 이미 메이지유신보다 훨씬 앞서서 존재해 왔었지만, 근대 일본이 새로 갈구하게 된 정보

26) 이 시기 난학자의 서양 지리 인식을 보여주는 한 예로서는 혼다 도시아키(本多利明)의 저작, 『經世秘策』과 『西域物語』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경세비책』에서는 위도에 따라 세계 각국의 환경과 그 우열을 논하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유명하다.

는 다름 아닌 아시아의 지리였다. 일차적으로는 조선과 중국(특히 만주)에 대한 정보였다. 조선 지리지는 제3장에서 살펴 볼 것이지만, 조선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원활히 파악하는 시대에 접어들 무렵에는 이미 러일전쟁이 끝나 있었고, 일본은 다시금 더 넓은 아시아와 마주하게 되었다. 이것이 아시아 정보에 대한 보다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켰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정보가 식민지 확보라는 국가적 요구에 복무하게 될 것 또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1903년에 설립된 와세다대학교 역사지리과의 1906년도 2학년 강의록으로 발간된 『近世植民史』의 「서언」에는 당시의 세계정세를 식민지 각축으로 특징짓고 러일전쟁 또한 식민지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충돌이라고 규정한 다음 이렇게 말한다. “바야흐로 우리 일본은 매년 60여 만 명의 거대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면적은 이미 좁게 느껴지며 국내[海内]에는 국민 발달의 여지가 없다. 밖에는 구미의 여러 나라가 다투어 긴 팔[猿臂]을 뻗어 우리 근린에까지 그 세력을 심으려 하고 있다. 어찌 태평스레 헛되이 정의를 표방하여 하릴없이 수수방관할 때이겠는가. 필히 한반도나 만주, 그 외 세계 어딘가를 향해 어떤 식으로든 발전해야 할 것이다. 발전이란 무엇인가? 상업의 진흥, 식민사업의 결행이 곧 그것이다.”<sup>27)</sup>

그러나 지리 분야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담당할 준비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위에서 언급한 와세다대학 역사지리과는 역사와 지질학을 요체로 했고, 일본 국내에서 본격적인 지리학 강의가 도입된 것은 1907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근대적 지리학이 제도화되고 뿌리내리는 것은 1920년대에 접어들어서였기 때문이다.<sup>28)</sup> 즉 이 시기 이전,

27) 三輪徳三講述, 『近世植民史』(早稻田大學出版部, 1907), 2쪽.

28) 柴田陽一, “『滿州國』における地理學者とその活動の特徴” 石川禎浩編 『中國社會主義文化の研究』(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2010), 294쪽.

특히 이어질 제3장에서 다루는 한일병합 때까지의 지리지는 이러한 지리학의 제도화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제도권 지리학이 아직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었던 이 시기에, 제국 일본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지리적 조사를 담당할 주체와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 중 하나로 1907년 4월에 만들어진 만철조사부(滿鐵調査部)를 들 수 있다. 만철조사부는 1907년 4월에 구습(舊習) 조사반, 경제조사반, 러시아조사반을 설치하였고, 1908년 1월에는 만선(滿鮮)역사지리 조사부, 마지막으로 1908년 11월에 동야경제조사국을 설립했다.<sup>29)</sup> 이 중 만선역사지리 조사부는 시라토리 구라기치(白鳥庫吉)의 주도 하에 조직되었다. 박장배는 이 만철조사부의 활동 시기를 그 조사 내용에 따라 셋으로 구분한다. 제1기에 해당되는 1907년부터 1919년까지는 조사부, 조사과 시대, 1920년부터 1931년까지의 제2기는 러시아와 몽골 등지로 대상을 확대한 시대, 제3기의 1931년부터 1938년까지는 중국 각지로 조사소를 확충한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각종 조사 기관을 통합한 극적인 팽창과 소멸의 제4기가 그것이다.<sup>30)</sup> 중요한 것은 박장배가 지적하듯이, 만철조사부의 확대과정은 “제국 일본의 팽창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다. “조사부의 조사 내용의 첫 번째 특징은 제국 일본의 팽창을 뒷받침하는 정보의 수집소 역할을 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 내용은 시기별로 변화했으나 그 내용은 제국의 세력권과 새로운 점령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었던 것이다.<sup>31)</sup>

그러나 이러한 만철조사부조차 을사조약 이후인 1907년에야 만들어졌으며 비록 여기서 만주와 더불어 조선의 역사와 지리를 조사하긴 했어도 근대 일본의 조선 인식에서 식민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29) 스테판 다나카 지음, 박영재·함동주 옮김, 『일본 동양학의 구조』(문학과 지성사, 2004), 344쪽.

30) 박장배, “만철 조사부의 확장과 조사 내용의 변화,” 『중국근현대사 연구』(2009), 159쪽.

31) 박장배, 윗글, 162쪽.

1905년 이전 단계에는 이런 기관조차 부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사다 하쿠보(佐田白茅)가 지은 『朝鮮見聞錄』처럼, 다양한 주체의 현지 탐방으로 얻어진 정보가 지식인이나 정부 요로에 전달되었고 이것이 해당 지역에 대한 인식 체계로 결정(結晶)되어 가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후술하듯이, 1905년 이전의 조선 지리지는 실로 그와 같이 얻어진 정보에 의해 그 현실적 적실성을 담보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최근의 한 연구는 만주 지역에서 그와 같은 활동을 벌인 한 지식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야마구치현 출신으로 1903년 이래 한성신보 주필과 조선의 일본거류민단 단장을 겸임하고 있던 나카이 기타로(中井喜太郎)는 1906년에 조선통감부의 위촉으로 간도를 탐방하여 그 결과를 『間島問題の沿革』이란 책 안에 담아냈다. 이 정보는 당시 조선 총감 이토 히로부미 등에게 전달되어 간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sup>32)</sup>

제3장에서 언급할 조선 지리지의 여러 저자들 중에서도, 나카이처럼 언설 활동에 관여하면서 정부의 촉탁이나 지원을 받아 조선 현지를 답사하거나 혹은 그런 자들에게서 정보를 얻고, 이 과정을 거쳐 정리된 조선 정보를 지리지로 펴낸 경우를 쉬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각 지리지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 간의 직접적인 정책적 연계성은 나카이 기타로의 경우와 달리 그리 명확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일본의 근대 지리학이 채 성립되기 이전에 대부분 진행된 동아시아 식민지의 확보 과정에서 개인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축적이 지리지란 형태로 응집되고 일본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지역 인식과 식민지화에 참고 정보로 원용되었을 것임은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32) 정애영, “러일전쟁 직후 일본의 간도조사와 지역구상,” 『일본역사연구』제28집 (2008.12), 64~68쪽.

## 제 3 장 일본의 ‘조선’ 인식: 지리지 개관(1875-1910)

### 1. 조선의 자연 지리

1875년부터 1910년에 이르는 시기에 나온 대부분의 조선 지리지에서 첫머리에 놓이는 것은 조선의 위치 즉 경위도와 사방의 경계이다. 이 중 사방의 경계에 대해서는 각 지리지 간에 특별한 상이점 없이 동쪽과 남쪽에 동해(원문에서는 ‘일본해’)를 두고 일본과 접하며 서쪽으로 황해를 끼고 중국과 마주보고 북쪽으로 만주에 접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위도에 관해서는 약간의 상이점이 보이는데, 주요 저작들에서 설명되고 있는 경위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표를 보면 대부분의 지리지가 조금씩 편차는 있더라도 조선의 동쪽 경계를 130도 언저리에서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반도의 경위도는 북위 33도부터 43도 사이, 동경 124도부터 132도 사이, 이 중 울릉도는 동경 130도 54분, 독도는 131도 52분). 다만, 1910년에 한국 농상공부가 발간한 『韓國通覽』에서는 동경 131도 54분을 동쪽 경계선으로 삼고 있고 괄호 안에 ‘울릉도 동단’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독도를 포함하는 범위이다.

다만,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이들 지리 정보가 실측에 기반하게 되는 것은 1910년을 전후해서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예컨대 면적 관련 정보를 보더라도 그 단위나 수치가 저서별로 상이한 것이 바로 드러나는데, 이는 1905년에 발간된 『韓國新地理』에서 “아직 실측된 바가 없어 갖가지 이설이 있다”고 하듯이, 한일병합 이전에 일본 발간의 조선 지리지의 사실 정보나 실측 면에서 부족함을 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표 3-1 | 조선 지리지에 기술된 조선의 경위도

연도	저자	제목	위치	육상정보
1875	東條 保	朝鮮誌略	북위 34°-43° 서경(베이징기준) 8°-18°	200리×16리
1876	邏列留駄牟	朝鮮事情	북위 33도 15분에서 42도 25분, 동경 122도 15분에서 128도 30분	
1881	坂根達郎	朝鮮地誌	북위33°15'-42°25' 서경(도쿄기준) 9°-15°	
1887	小松運	朝鮮八道誌	북위 33°15'-42°25' 동경 124°30'-130°35'	2300×300-600리
1893	關澤明清 竹中邦香 編	朝鮮通漁事情	북위 34도에서 43도, 동경 124도에서 132도	
1894	足立栗園	朝鮮志	북위 33°10'-43° 서경 9°6'-15°8'	면적 1만 4천 方里
1894	鈴木信仁	朝鮮紀聞	-	
1894	松本謙堂	新編朝鮮地誌要略	북위 33°-43° 동경 124°-130	
1894	大田才次郎	新撰朝鮮地理誌	북위 33°15'-42°25' 동경 124°30'-130°35'	2300×300-600리
1894	해군 수로부	朝鮮水路誌	북위 33°15'-42°25' 동경 124°30'-130°35'	500×90-180리 면적800평방리
1901	恒屋盛服	朝鮮開化史	북위 33°13'-43°2' 동경 124°12'-130°35'	
1904	岩永重華	最新韓國實業指針	북위 33°15'-42°25' 동경 124°30'-130°35'	318×130리 면적 14,147평방리
1905	田淵友彦	韓國新地理	북위 33°46'-43°2' 동경 125°5'-130°58'	190×45-158리 면적은 대략 21만 8,650평방미터
1906	堀內泰吉, 竹內政一	韓國旅行報告	북위 33°40'-43° 동경 125°5'-130°58'	

| 표 3-1 | 조선 지리지에 기술된 조선의 경위도(계속)

연도	저자	제목	위치	육상정보
1909	조선잡지사	最近 朝鮮要覽	북위 33° 7'(제주도의 속도 깃프왈도)-43°2' 동경 124°39'-130°42'	
1910	足立栗園	朝鮮新地誌	북위 33°46'-43°2' 동경 125°5'-130°50'	
1910	韓國農商工部	韓國通覽	북위 33°12'-43°2' 동경 124°13'-131°54'	
1910-32	농상공부	朝鮮要覽	동경 124°18'-130°54' (울릉도 동단)	
1911-20	조선총독부	最近 朝鮮事情 要覽 1-7	북위 33°12'-43°2' 동경 124°13'-130°54'	
1912	日韓書房	最新 朝鮮地誌	남단 북위 33°12'-북단 42°2' 극동 동경 130°54'-극서 124°13'	
1917	越智唯七	新舊對照 朝鮮全道府 郡面里洞 名稱一覽	북위 33°12'-43°2' 동경 124°18'-130°54'	
1918	藤戶計太	最新 朝鮮地理	북위 33°12'-43°2' 동경 124°13'-130°54'	
1899	현채	大韓 地誌	북위 33°15'-42°25' 동경 124°30'-130°35'	

조선의 자연지리에 대한 서술은 초기에는 극히 미진하다가 점차 양이 늘어나고 1905년 이후에 오면 실측 정보를 점점 더 많이 반영하는 추세를 보인다. 1875년의 『朝鮮誌略』은 ‘총설’에서 “눈이 많고 기후는 한냉하며 눈이 많이 내리고 안개가 많이 핀다. 토산물로는 인삼, 금은, 철, 주석, 쌀, 마, 담배 등이 있다”는 간단한 문장으로 개황을 전한 다음에 조선 8도를 열거하

지만 이에 부수되는 자연 지리적 서술은 보이지 않고 다만 지방 관제를 간략히 설명할 뿐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도서(島嶼)’와 ‘산천’에서는 제주도, 거제도, 울릉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백두산, 한라산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는 1881년에 사카네 다쓰로(坂根達郎)가 지은 『朝鮮地誌』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산악이 험준하되 옥토도 적지 않다는 것, 백두산의 줄기가 국토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다음에 하천을 열거하고 마지막으로 서남해에 섬이 많으며 가장 큰 것은 제주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조선국에 대한 정의가 이전의 ‘아세아 중의 일국’<sup>33)</sup>에서 “아세아 주의 동부에 위치한 반도상의 나라”로 좀 더 부연되었고 이런 정의는 후의 지리지에 그대로 이어진다. 경위도는 북위 33도 15분에서 42도 25분, 서경은 일본 도쿄 9도에서 시작하여 15도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아 동경 대신 서경을 적고 있다.

조선의 총 길이를 대략 2천리로 보고 있으며 폭은 600여 리로 보고 있다. 전국을 8도, 25주, 60부, 78군, 165현으로 보고 있으며, 인구는 705만 3837인으로 보았다. 역사와 연혁, 풍속, 기후, 산물 등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 각도에 관한 기록은 비교적 짧지만 8도에 관한 서술이 나온다.

『朝鮮八道誌』(小松 運 편, 1887) 역시 조선에 대하여 “동반구 아세아주 동부에 위치한 긴 반도와 기타 부속 군서(群嶼)로 이루어진 북위 33도 15분에서 42도 25분, 동경 124도 30분에서 130도 35분에 이르는” 나라로 정의하였다.

『朝鮮通漁事情』 ‘지리’에서는 “아세아 동부에 이어진 반도국”이라는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기술한 뒤 경위도는 “북위 34도에서 43도에 걸쳐 있고(해안은 북위 42도 18분으로 끝난다), 동경 124도에서 132도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았다. 길이는 “남북으로 460 영국 리(마일 - 역자), 폭은 동쪽으

33) 東條 保 편, 『朝鮮誌略』 (1875)

로는 435 영국 리”라고 하고 다시 괄호 안에 “조선인은 길이 2300리(里), 폭 600리라고 함, 조선의 1리는 우리의 3정(町) 51칸(間) 7촌 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었다.

이후, 갑오농민전쟁과 갑오개혁, 그리고 청일전쟁으로 숨가쁘게 돌아간 1894년에는 적어도 네 종의 조선 지리지가 발간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한론 논쟁 때부터 조선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고양되었으나 1894년이 되면 조선의 행로가 일본의 운명에 직결된다는 인식이 급격히 고조되었고 이것이 지리지 발간으로 이어진 것이다. 예컨대 『新編朝鮮地誌要略』(1894년)을 지은 마쓰모토 겐도(松本謙堂)는 서언에서 갑오농민전쟁으로 야기된 조선 정세의 불안을 언급하고, 조선의 정세를 아는 첫걸음으로서 지리 정보를 거론한 뒤 “최근의 확실한 자료에 의해 풍습 및 형편 요지(形便要地)의 개략을 거론하여 평시 및 전시에 겸용토록” 함을 저술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같은 해에 『朝鮮志』를 발간한 아다치 리쓰엔(足立栗園) 역시 “바야흐로 계림(鷄林)의 풍운이 날이 갈수록 급해져 세상 사람들의 눈길이 한결같이 여기로 향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보거순치(輔車唇齒)”라는 전통적인 용어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긴박한 정세가 빚어낸 관심과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제출된 지리지의 엄밀성이 반드시 비례한다고만은 할 수 없다. 각 지리지가 어떤 정보에 바탕해 편찬되었는지를 서문과 범례 등으로 판단하여 표로 정리해보았다.

| 표 3-2 | 조선 지리지의 이용 자료

연도	저자	제목	이용 자료에 대한 언급
1875	東條 保	朝鮮誌略	쓰시마 사람에게 얻은 간세이 연간(1789-1800)의 조선 지리지(상세 불명)
1881	坂根達郎	朝鮮地誌	(언급 없음)

| 표 3-2 | 조선 지리지의 이용 자료(계속)

연도	저자	제목	이용 자료에 대한 언급
1887	小松運	朝鮮八道誌	『상서기문』 『징비록』 『고려사』 『조선부』 『대전회통』 『공사촬요』 + 고금의 서(書) + 저자의 견문
1894	足立栗園	朝鮮志	(언급 없음)
1894	鈴木信仁	朝鮮紀聞	오토리 케이스케(大鳥圭介)의 조선 역사 강연(지학협회) + “제서(諸書)” + 견문
1894	松本謙堂	新編 朝鮮地誌要略	“최근의 확실한 재료”
1894	大田次郎	新撰 朝鮮地理誌	『동번기요(東藩紀要)』 『상서기문』 『조선팔역지(朝鮮八域誌)』 『조선부(朝鮮賦)』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정례(六典定禮)』 『간례휘찬(簡禮彙纂)』 『공사촬요』 『고려사』 『징비록』 『조선사정』 『조선기문』 『조선정체』 『조선견문록』 『독사방여기요』 『조선해관 매기보고』 + 일본 고금의 서적 + 견문
1901	恒屋盛服	朝鮮開化史	(언급 없음)
1904	岩永重華	最新 韓國實業指針	도쿄제국대학 공과대학 교수, 농상무기사, 부산 매축 주식회사 대표, 경부철도 주식회사 서무과장 등이 제공한 자료(상세 불명)
1905	田淵友彦	韓國新地理	(언급 없음)
1906	荒川五郎	最近 朝鮮事情	“제서(諸書)” + 견문
1907	農商務省山林局	韓國誌	러시아 대장성 조사보고서의 초역(抄譯)
1910	足立栗園	朝鮮新地誌	(언급 없음)
1910	地理 研究會	朝鮮新地理	“신조사(新調査)” - “실로 신 지리의 새로움에 맞도록”
1910	韓國農商工 部	韓國通覽	“한국의 산업 상태 내지 사회, 경제 사항 일반을 수집”
1911	吉田英三郎	朝鮮誌(上,下)	“내가 족적을 남기지 않은 땅이 드물다. 하여, 도중에 내가 느낀 바를 그때그때 적어놓고, 견문한 바를 .. 기록하여”

위의 표로 보건대, 정한론 논쟁으로 조선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지 20년이 지난 1890년대까지도 조선 지리지의 내용을 메운 것은 실지 정보보다는 조선시대 중후기에 나온 조선의 저작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전적을 기본으로 하고 당시 조선을 드나들던 일부 일본인의 견문을 더하는 것이 이 시기 조선 지리지의 기본적인 작성 태도였다. 이에 더해 메이지유신 이후에 저술된 조선 지리지의 상호 참조도 이뤄지는데,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이 시기 조선 지리지의 내용이 서로 대동소이하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통감부가 설치되기 직전인 1904년에 발간된 『最新 韓國實業指針』에 이르러서야 당시의 살아 있는 정보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되기 시작하는데, 이 통감부 시대 이전의 지리지의 한 전형으로서 『新撰 朝鮮地理誌』(大田才次郎 지음, 1894)를 보도록 한다.

저자인 오타 사이지로(大田才次郎)는 이 책의 서문에서, 『신찬 조선지리지』의 저술에 전통적 역사서 및 『조선기문』 등 당대의 지리지, 조선 해관의 보고서 등을 문헌자료로 참고하였고 현지 탐방자들의 견문으로 보충했다고 밝히고 있다. 목차는 제1편 ‘총론’에서 한반도 전체를 다루고 제2편에서 각 도별 상황을 서술하는 체재를 취하고 있는데 ‘총론’은 다시 5개 장으로 나뉘어 각각 지리적 특징, 산업, 인종 및 인구, 각종 제도, 풍속을 다루고 있다. ‘기후’편에서 이전과 달리 지역별 구체적인 기온을 표로 제시하는 등 객관적 수치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전의 지리지처럼 견문에 의한 기술적(descriptive) 묘사가 주류를 점한다.

이 책의 자연지리 관련 항목은 제1장 ‘지세, 지질’ 아래 총괄되어 있다. 먼저 ‘지세’에서 산맥과 하천의 구조를 언급한 뒤에 ‘지질’에서 토양과 특산물의 관계를 논하고 다음으로 ‘기후’ ‘산악’ ‘하천’ ‘조석’ ‘동물’ ‘식물’ 순으로 설명을 전개하고 있다. 다만, 제1장을 행정구역에 대한 설명(‘구획’)으로 시작하고 ‘동물’ 앞에 ‘도로’ 항목을 배치하고 있는 것은 이 책의 자

연지리 항목의 구조가 순연한 지리학적 개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땅에 연관된 것들을 모조리 몰아넣은 유형적 분류에 따른 것임을 시사한다. 즉, 특정 지역을 설명할 때 해당 지역의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괄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틀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지세'에서는 “전국의 지세는 산악이 많고 평지가 적다. 북방에 백두산이 있고 나라에서 으뜸가는 높은 산으로 친다. 산맥이 북에서 남을 향해 동쪽 해안을 따라 달린다. 이 산맥에서 산들이 갈라져 나와 전국에 미치며, 나라 안 어디서든 산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산세는 북동쪽에서 점차 동남쪽으로 내려오며 따라 높이가 낮아지고, 서남부에 이르러서는 낮고 평평해지는 까닭에 나라 안의 하천은 상당수 백두산 및 여타 산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개괄이 이뤄진다. 이어서 각 산맥에서 나온 하천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를 언급하고 제주도의 한라산 또한 백두산 줄기에서 나온 것이라는 언급으로 맺고 있다.

'지질'은 조선의 땅이 반은 옥토이고 반은 척박하다고 설명하면서 저수 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나 하천 수량이 풍부하여 관개에 이뤄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뒤 대부분의 내용은 조선의 자연 산물을 열거하는 것으로 이뤄지는데 미곡이나 채소류는 그다지 좋지 않고 담배와 인삼 등의 품질이 좋다고 지적하고 있다. 평가가 후한 것은 조선의 광물이다. 금은 및 구리가 많고 특히 북방의 여러 도(道)는 땅을 깊이 파지 않아도 금을 캐 수 있다는 주장이 실려 있다. 그 외에 각지에 사금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 매우 많고 철이 나는 땅도 아주 많다고 설명되고 있다.

'기후'에서는 조선을 통괄해서 한냉하다든가 온난하다든가 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각 지역별로 기후가 다름을 설명하는데 1886년부터 1889년까지의 각지의 기온 표가 실려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어지는 '산악'에서 산악 개황의 설명은 '지세'와 서술이 겹치지만 조선의 주요 산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별다른 설명 없이 이름만 거론되는 이들 산은 조

령산, 태백산, 소백산, 속리산, 지리산, 가야산, 금강산, 철령, 오대산, 등운산, 백암산, 고달산, 수양산청, 양산, 장백산, 백두산, 오봉산, 청산, 서양, 연평산, 천마산, 낭림산, 검산, 관악산 등이다. 북방은 수목이 울창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바위산이 많으므로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화산이 거의 없다는 특징이 서술되고 있다.

‘하천’ 항목도 ‘산악’ 항목과 별반 다를 게 없이 하천명의 열거가 중심을 이룬다. 여기 나열된 하천으로는 압록강, 대동강, 한강, 두만강, 낙동강, 청천강, 금강, 영산강, 섬강의 9대 강과, 그 외 임진강, 소양강, 작천(鵲川), 달천, 사수강(泗手江) 등이다. 앞서 ‘지질’에서 언급되었듯이 관개 시설의 부족이 재론되어 수해가 심하다는 설명이 이뤄지고 있다. 다음으로, ‘조석’은 조선 해안의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 강조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 밀물과 썰물 때의 수위의 차가 33척, 충청도에서도 24척 정도, 전라도 서부에서는 13척, 부산은 6척, 원산은 1척 정도라는 수치가 제시되고 있다.

‘동물’에서는 조선의 동물종이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단지 조선에는 호랑이, 표범, 수달, 생쥐[麩鼠], 노새가 많다는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 집마다 개를 두 세 마리씩 길러 그 가죽과 고기를 쓴다는 서술도 보인다. 조류에 관해서도 일본과 동일하며 다만 매, 송골매, 학, 수리, 물수리가 일본에 비해 많다는 정도이다. 어류 또한 일본과 다를 게 없다고 서술되어 있다. ‘식물’에서도 일본과의 차별은 거의 없다고 설명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많이 나는 품종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다만, 조선에 없는 식물로서 차와 사탕을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서에서는 제3장에 포함되어 있지만, ‘인종’에 관해서는 단일 인종으로 간주하되 지역별로 방언이 있다는 지적 정도에 머물고 있다. 다만, 이 지리지는 조선 인종을 설명할 때 『산해경』 같은 신화적 자료에 어느 정도 의지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신찬 조선지리지』의 자연 지리 관련 항목은 상당히 개괄적이며 체계를 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병렬적 기술’로 특징지어지는 전통적 지리지=외국지의 양식을 따랐다고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체제는 동 시기의 다른 지리지에서도 확인이 되며, 그런 점에서 『신찬 조선지리지』의 형식과 내용은 이 시기에 일본에서 나온 조선 지리지의 한 전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34)</sup>

역시 1894년에 마쓰모토 겐도가 펴낸 『신편 조선지리지요략』은 크게 한반도 전체를 논하는 ‘조선지’와 각 도별 지리를 논하는 ‘지방지’로 나뉘며, 전자는 위치 - 경계 - 지세 - 산악 - 하류 - 도서 - 항만 - 지미(地味) - 물산 - 기후 - 인종 - 풍속 - 인정 - 정제 - 제도 - 병제 - 문학 - 종교 - 학술 - 경작 및 목축 - 전국 석고(石高) 및 세입액 - 무역 - 궁실 - 가옥 - 숙역 - 도로 - 교량 - 통화 - 역사 - 국내 구획 및 위치 - 도부(都府) - 각 도별 인구 등으로 나뉘어 서술되고 있다. 이들 각각의 세부 사항은 한결같이 한 쪽 미만의 분량으로 서술되고 있어서 매우 개략적이며 각 항목을 나열해 놓은 정도이다.

이 책에서는 주요 산악으로서 백두산, 장백산, 낭림산, 묘향산, 구월산, 자비령, 천마산, 삼각산, 금강산, 오대산, 태백산, 속리산, 지리산을 들고 있으며, 하천으로는 두만강, 압록강, 대동강, 임진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을 들고 있다. 모두 그 위치와 방향을 적시하는 데 머물고 있다. 이어서 도서는 신미도, 백도, 교동, 강화, 안면, 제주, 남해, 진도, 군산, 임자, 거제 등을 들고 있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진도, 군산 등 전라도에 속한 섬이 경상도 소속으로 명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당시의 조선 지리 정보에 혼란과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징표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34) 양보경, “한국·중국·일본의 지리지의 편찬과 발달,” 『응용지리』 제19호(1996), 118쪽. 양보경은 여기서 노마 등의 연구를 인용하여 지리지의 기술 유형을 병렬적 기술, 종합적 기술, 중점적 기술, 구조적 기술의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 중 병렬적 기술은 자연, 생물, 인물의 세 요소를 다시 세분하여 각 항목을 열기(列記)하는 방식으로, 한중일 공히 전통적 지리지는 이와 같은 형식을 따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에 지미(地味), 기후 등은 『신찬 조선지리지』보다 매우 간략할 뿐 아니라 내용상의 특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전의 지리지들이 인종을 묘사할 때 중국과 비슷하다고 한 데 비해, 여기서는 한민족이 몽고종에 속함을 밝히고 있다. 북방 사람들이 기후의 타인지 비교적 더 강건하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지리지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전술한 본서의 목차에서 보듯이 『신편 조선지리지요략』은 사실상 대부분의 지면을 조선의 제도와 풍속을 설명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이는 당시까지의 조선 지리지에서 일관된 흐름으로 아다치 리쓰엔의 『조선지』같은 저작에서는 더 뚜렷이 드러난다. 『조선지』는 제1편에서 지리를 간략하게 서술한 뒤, 책의 대부분을 역사 특히 고대사 및 각종 전쟁과 한일관계사에 할애했다. 심지어는 지리를 언급할 때에도 조선의 지세를 “병가에서 말하는, 이른바 사지(死地)에 해당된다”라고 성격지우는 등 지리학적 접근보다는 지정학적 접근이 강하며, 역사로써 해당 국가를 설명하는 지리지의 계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지리학자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의 감수를 받아 스즈키 노부히토(鈴木信仁)가 펴낸 『朝鮮紀聞』(1894)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오토리의 지리협회 강연을 그대로 수록한 역세(歷世)를 필두로, 왕실 - 의식 - 사대 - 지리 - 절서(節序) - 인물 - 관제 - 풍속 - 호적 - 문예 - 무비 - 형벌 - 도량 - 복색 - 음식 - 제택(第宅) - 물산 - 금수 - 농포(農圃) - 잡문(雜聞) 순으로 이뤄진 이 책은 한 사회의 인정(人情)을 항목별로 나열하고 있으며, 그 안의 「지리」조차도 자연지리와는 거의 무관하게 조선의 행정 구획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1894년 당시 일본에서 파악하고 있던 조선의 자연 지리는 『신찬 조선지리지』에서 서술된 내용을 크게 넘어서지 않으며 매우 개괄적인 정보 이상을 담아내지 못 하고 있었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지리지라고 하기에는 역사서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1901년에 나온 『朝鮮開化史』에 이르면 약간이나마 지리학적 성과를 받아들이는, 바꿔 말하자면 구래의 서적을 취합하고 여행자들의 견문으로 보강한 것을 넘어서서 당대의 실측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891년에 『地學雜誌』 제3권 제1호에 실린 「조선국 지질 개요」를 인용한 대목이 그것인데, 비록 책의 다른 부분의 기술은 전술한 서적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고 지학협회의 연구 결과가 실제 지리지에 반영될 때까지 십 년에 이르는 지체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 시기를 즈음해서 실지 정보가 조선 지리지에 들어가기 시작한 징조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지리지 역시 기본 구성은 이전의 지리지와 별반 다르지 않아, 지리(자연 지리)와 8도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 ‘역대 판도 연혁’에서는 상고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연혁을, ‘경외(境外) 지역’에서는 간도와 녹도(鹿嶋), 요동의 한인부락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지리상의 관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인종’편에서는 여러 종족과 한(漢)인종의 식민과 변동, 일본인의 식민, 인종의 이동과 변동 등을 다루고 있어 일본 식민정책의 시원을 밝혀 근대기 일본의 식민화정책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총 4편 49장 438절의 대분량이다. ‘문화’와 ‘외교’편까지 넣어 조선의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어 이 지리지가 식민지화를 위한 전초적 정보서로서의 기능을 하려는 데 편찬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위 33도 13분에서 43도 2분, 영국 그리니치 동경 124도 12분에서 130도 35분 사이, 남북 길이 총 318리, 동서 넓이는 130여 리, 면적은 14470방리, 인구는 800만내지 900만 명으로 되어 있다.

이후 통감부 설치를 기화로 조선으로 이민=식민하는 일본인이 증가하면서 비로소 조선 관련 정보가 정치해지기 시작한다. 1905년에 초판이 나오고 1908년에 제3판이 나온 다부치 도모히코(田淵友彦)의 『韓國新地理』는 그런 양상을 잘 드러내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전 200권으로 구성된 『帝國

『百科全書』의 제134책으로 발간된 이 책은 지금까지 외국으로 보아 온 만주, 사할린, 한국을 일본 범위 안의 지역으로 볼 필요를 제기하면서 한국에 대한 교과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목적에 복무하기 위해 저술되었음을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과학적 교육이 아직 보급되지 않아 그 지문(地文) 및 인문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성과가 없음을 지적한 뒤, 고토 분지로(小藤文次郎)가 한국의 산맥을 실지 조사한 적이 있으므로 그 연구 성과를 반영한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실지 조사에 기반한 지리서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맺고 있다.

실지 조사에 대한 강조를 내 건 이 책은 목차에서도 제1편에 ‘지문 지리’를 배치하고 제2편에 ‘인문 지리’, 그리고 제3편에 ‘처지(處誌)’ 즉 각 도별 지방지를 할애함으로써 후술할 고토 식의 지리학적 접근을 넣으려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 중 자연 지리에 해당되는 제1편은 다시 명칭 - 위치 - 경계 - 광무(廣袤) - 해안선 - 지세(地勢) - 산지(山誌) - 수지(水誌) - 기후 - 조류 - 조석 - 생산물에 각 장을 할애하고 있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산맥에 관해서는 일본인 지질학자 고토의 실지 조사를 원용한 만큼, 종래의 서술적 묘사가 아니라 제1기 산맥, 제2기 산맥, 제3기 산맥이라는 식으로 자연물을 재분류한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전 지리지와의 내용상의 차이는 크게 확인되지 않는다.

그 내용은 이전 지리지에 비해 정치함을 더해 제5장 ‘해안선’에서는 해안선의 총 연장을 1,740리(浬)로 하고 각 해안의 주요 만(灣)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명칭이 거론되는 항만으로는 영흥만, 덕원만, 내호만(함흥만), 성진만, 구진만, 나진만, 조산만, 웅기만, 죽변만, 울산만, 영일만, 부산항, 마산항, 진해만, 곤양만 외 서해의 여러 항만이 있다. 뒤이어 각종 섬의 상세한 리스트가 게재되어 있다.

제6장 ‘지세’는 주요 산맥과 거기서 흘러나오는 하천에 대한 기술적 묘사로 채워진다는 점에서 전술한 다른 지리지와 양식상 공통되는데, ‘북한’

과 '남한'의 지세를 따로 언급하여 지질 지형에 근거한 지역 구분을 시도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제7장 '산지'는 앞서 언급한대로 고토의 산맥 분류에 따라 제1기부터 제3기까지를 나누는데, 이전까지의 지리지에서 백두산을 한반도 모든 산맥의 정점에 위치시키던 것과 달리 1899년의 탐사 결과 백두산은 아시아 내부에서 융기된 지형의 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처럼 제1기 산맥은 중국 대륙에 연원하는 산맥이다. 제2기 산맥은 한반도를 남하하는 산맥, 대표적으로 태백산맥이며 이를 “이른바 조선산맥”으로 부르고 있다. 제3기 산맥은 한반도 남부에 편재하는 것으로 동서로 달리는 작은 산맥을 이루거나 반도, 섬을 형성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 전라도 광주와 함양 사이에서 융기하여 지리산 북부로 이어지는 산악이 그 한 예로 거론되고 있다.

산맥처럼 실지 조사에 근거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전의 지리지와 달리 대상을 분류하려는 의지는 제8장 '수지(水誌)'에서도 엿보인다. 주요 하천을 전국을 통괄하여 혹은 행정 구역에 따라 열거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한국신지리』는 '일본해 사면(斜面)'과 '조선해 사면'으로 방향을 나누어 전자에서는 두만강을, 후자에서는 여타 한국의 주요 하천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지는 장들에서 기후를 산맥의 분기에 따라 남북 두 지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나 강수량, 기온, 조석 간만차 등의 구체적 수치를 제공하는 것 등이 모두 이 시기에 비로소 등장하는 서술 태도이다. 반면 자연산물에 관해서는 특이점이 파악되지 않고 광물에서 금과 사금의 풍부함을 지적하는 것도 이전의 지리지와 공통되는 점으로 들 수 있다.

제2편 '인문지리'에 포함되긴 했어도 자연지리학적 내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제1장 제1절 「인종」도 이전의 지리지와는 다른 태도가 엿보인다. 즉 중국인이나 몽고인, 인도인과의 연속성 혹은 유사성을 지적하던, 바뀌 말해서 일본인과는 다름을 강하게 의식하던 이전의 지리지 서술 태도와 달

리 『한국 신지리』는 한국 인종이 아시아 여러 민족의 결합으로 비롯되었을 것이라 추정은 하지만 그 외모가 일본인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물론 이런 주장들은 형질인류학이 아니라 북부여 이래의 역사적 접근에 의해 제시되고 있지만, 통감부 설치 이래 한일병합을 눈 앞에 두고 있던 시점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의 외견적 유사성을 지적하는 주장이 지리지에 등장한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자연지리학 방면에서 조선 지리지의 서술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 것이다. 『한국 신지리』에서 의욕적으로 제기된 지문 지리와 인문 지리의 구분이 다른 저술에 전과되었다거나 항목의 서술 내용에 최근의 지리학적 발견이 도입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각 항목의 정치화, 수치 제공의 증대 등의 경향은 파악되지만 일제 강점기가 시작될 때까지도 한국의 자연 지리에 대해 일본의 저자들이 혁신적인 발전을 이뤄냈거나 태도의 변화를 보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 2. 조선의 인문 지리

자연 지리 분야에서 1910년에 이르기까지 실지 정보의 부족이 드러난 사정은 인문 지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표 2에 보이듯 1890년대까지도 조선 사정에 관해서는 소수 탐방자의 견문을 제외하면 대부분 조선의 고전적에 의거하는 바가 컸고, 이는 일제 강점 이전의 각 지리지에서 다루던 조선 사정의 대동소이함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저작별로 정치함의 차이는 있지만 지리지는 다음과 같은 양상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① 역사(연혁)를 다룰 때는 고대사에 많은 비중이 두어지고 있다. 단군 조선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는 기자 조선에서 시작하기도 한다. 그러나 각 저작에 공통된 것은 고대사의 신공황후 전설을 신고 있는 점이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또한 강조되고 있다.

② 대부분의 저작은 행정제도의 설명에 인문적 내용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왕실 제도를 비롯한 중앙 정부 제도와 지방 행정 구획, 지방 관제가 이 시기 조선 지리지의 인문 지리 분야에서 사실상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주요 역참과 교통로, 무비(武備)에 대한 설명도 이뤄지고 있다.

③ 산업에 관해서는 농법 같은 전문적 지식의 제공은 거의 보이지 않고 지역별 특산물의 열거가 중심을 이룬다. 이미 자연 지리 분야에서 서술했듯이 인삼, 담배같은 농작물과, 금, 은, 구리같은 광물, 그리고 호랑이, 표범같은 동물을 조선의 특산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1904년의 『최신 한국실업지침』에 와서 비로소 변화의 양상을 보인다. 외무성 정무국장을 필두로 중의원 의원, 한국 농공상부 고문 등 당대의 유력 정치인 8명의 추천사로 장식된 이 책은 “(메이지) 27·8년 전역(戰役=청일전쟁) 이후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에 도항하여 각종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서, 특히 본년 2월 이후에만도 겨우 너댓 달 사이에 무려 2만 명을 헤아린다”는 상황 하에서 적절한 한국 소개서의 부재를 개탄하며 저술된 것이다. 표 2에 보이듯, 옛 전적에 많이 기렸던 이전의 지리지와 달리 도쿄제국대학 교수나 공학자, 농학자의 실지 견문과 의견을 도입한 이 책은 「총설」에서 자연지리를 간략히 서술하고 개항장을 비롯한 조선 각지의 상업 중심과 무역 상황, 주요 수출입품, 도항 시 주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맺음하고 있다. 말 그대로 조선에 이민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지침’으로 작성된 책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총설」처럼, 책의 나머지 부분도 조선 각지의 산업 현황을 설명하는 데 할애되고 있다.

한편 이 책에서는 이전부터 주로 쓰시마 출신의 일본인이 거주했던 부산을 비롯하여, 1897년 이래 조선 각지에 개설된 개항장의 양상이 묘사되기 시작하고 있다. 여기 기재된 일본인 거주지의 규모와 인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의 누락은 물론이고 거주지 규모 표기에서 단위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점, 성진의 일본인 인구는 정확히 파악된 반면 다른 지역의 인구는 대략의 수치만 제시된 점 등은 저자가 의존했던 정보원이 여러 개이며 그 정도(精度)가 상이했을 것임을 말해준다.

| 표 3-3 | 『최신 한국실업지침』(1904)에 기재된 일본인 거주지 일람

개항장	일본인 거주지 규모	일본인 인구
부산	10만 평	12,000
마산	15만 평	500
목포	-	1,000
군산	57만 평방미터	1,300
인천	-	7,000
경성	-	4,000
용산	-	-
진남포	19만 평방미터	600
평양	-	300
원산	10만 평	2,000
성진	10만 평	168

총설에 뒤이은 각 산업의 설명은 산업별로 주요 산업 거점과 특산물을 간략히 설명하는 데 할애되고 있다. 번쇄해지므로 인용은 생략하지만, 다른 조선 지리지와 달리 땅값이나 임차료 같이 실제 정착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점이 흥미롭다. 이 책이 지니는 식민 가이드북으로서의 기능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처럼 1904년에 등장하기 시작한 식민 지향적인 지리지의 양상은 일회적인 데 그치지 않고 그 뒤로 조선 지리지의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1906년에 발간된 『最近朝鮮事情』은 조선이 일본의 보호하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국의 부원(富源)을 개척하고 그 문명을 계발하여 그



로써 동양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일본 국민의 천직”이라 천명하고, 아직도 “바다를 건너 그 땅에 이르러 일을 성취한 자가 여전히 적”음을 문제시하여, 그 원인을 “(조선의)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데 있지 않은가라고 자문하는 마쓰오카 야스타케(松岡康毅) 농상무 대신의 추천문으로 시작되고 있다. 저자는 히로시마 출신의 중의원 의원이자 쥬고쿠 신문(中國新聞) 주필인 아라카와 고로(荒川五郎, 1865-1944)인데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제문을 적어 주었고 농공상 대신인 마쓰오카가 추천사를 써 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책이 단순히 일개 사찬 지리지에 머물지 않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아라카와 자신의 서문에서도 마쓰오카의 추천문처럼 “조선 경영은 일본인의 천직이고 또한 일본국의 생명”임을 선언하고 있다. 식민의 의의와 중요성이 직접적이고도 명확히 강조되고 있으며, 조선의 농업, 광업, 어업이 식민을 지탱할 부원(富源)으로서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지리지의 의의는 “먼저 조선의 사정을 알아서 이주의 방침을 정하며, 조선인의 심성이나 업무에 관한 주의사항 등의 대강을 필히 사전에 알아 두어야” 하기에 그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다.

1896년에 조선 8도의 행정구분이 13도로 바뀐 것을 반영하고 있는 이 책은 자연 지리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이 조선의 풍속과 제도를 설명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각 산업의 현황과 일본의 대응을 논하는 부분이 많다. 금융기관, 통화, 어음, 도량형, 도소매, 상관습, 무역, 내지 행사 등의 상업을 상세하게 논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인삼, 면직, 잠업, 목축, 어업, 광업, 임업같은 1차 산업이 목차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중 농업에 관해서는 조선의 농법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 등 각 산업의 기술적 측면과 제도적 틀의 서술에 중점을 두고 있는 특색을 띤다.

지금까지 논한 대부분의 조선 지리지와 달리 당대의 실제 사건과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책은 식민 가이드북으로서의 의의를 드러내는, ‘내지 이주

의 마음가짐(内地移住の心得)'이란 항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먼저 조선의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가는 것이 좋다는 것, 가족 동반 이주가 좋지만 단신으로 먼저 가서 터를 닦은 다음 가는 것도 좋고 되도록이면 10호 20호가 모여서 집단 이주하는 것이 좋다는 것, 생활도구나 여타 직업상 필요한 도구는 꼭 챙길 것, 조선인들이 일본어를 빨리 배우므로 조선어를 몰라도 이주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것, 조선인은 약속을 안 지키므로 그들과 거래할 때는 항상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 대신에 무리한 요구나 불법적인 행동은 하지 말 것이며 항상 올바른 태도를 견지하고 친절히 대할 것, 폭리를 취하거나 조선인을 박해하지 말 것 등을 권하고 있다. 한 마디로 “문명 국민의 태도로써 .....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삼을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식민 가이드북이라는 새로운 성격은 1909년의 『最近朝鮮要覽』에서도 파악된다. 조선잡지사 편집장으로서 잡지 『조선』, 『조선급만주』 등을 펴낸 저널리스트 샤쿠오 고쿠보(釋尾旭邦)가 지은 이 책의 서문에 “이 책에 적절한 이름은 「韓國實業要覽」일 것이라고 적었듯이, 식민이 진행되는 상황 하에서 한반도의 부원(富源)을 확인하고 그 개척에 일조할 의도로 작성된 서적이다. 따라서 자연 지리 사항은 최대한 간략히 다루고 각종 산업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예컨대 수산업에서 어종별로 현황을 서술하듯이 각 산업 공히 산업 기술이나 제도적 틀보다는 상품=산물별 현황을 기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서문에서 주창하듯 한반도의 부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후미에는 이미 한국에 형성되어 있던 각종 일본인 거류민단(경성, 인천, 부산, 진남포, 군산, 평양, 목포, 원산, 마산, 대구, 용산, 신의주), 식민 개척에 관련 있는 각종 법령이나 조약에 대한 해설이 배치되고 있는데, 일본 거류민에 대해서는 단지 인구만을 집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업별 인구구성, 거류단별 예산 상황 등을 신고 있어 『최근 조선사정』에 비해 정치

한 정보를 담고 있다. 당시의 일본 거류민 인구는 다음과 같다.

| 표 3-4 | 『최근 조선요람』(1909)에 기재된 일본 거류민 수

개항장	인구	개항장	인구
경성	25,000	목포	4,000
인천	12,000	원산	5,000
부산	20,000	마산	4,000
진남포	3,000	대구	3,000
군산	3,000	용산	6,000
평양	8,000	신의주	2,000

이처럼 식민 가이드북의 성격을 띠는 지리지들은 모두(冒頭)에 자연 지리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이어서 조선의 산업 현황과 자원, 일본인 거류민의 현황을 서술하는 체재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 일본인이 낸 조선 지리지의 대부분이 이러한 형식을 취한 것은 당연히 아니며, 자연 지리 부분에서 언급한 『한국 신지리』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지문’과 ‘인문’을 구분하고 ‘인문’을 주민 - 종교 - 교육 - 정치 - 병제(兵制) - 재정 - 외교 - 산업 - 화폐 - 교통 순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어서 이들 지리지의 세번째로 ‘처지(處誌)’ 즉 지방지를 놓고 있음은 전술한 바 있다. 물론 산업이 ‘인문’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비중 있게 다뤄지지만 어디까지나 다른 인문 지리적 요소와 나란히 기술되고 있음은 『한국 신지리』같은 지리지와 『최근 한국실업지침』 식의 식민 가이드북 류의 지리지를 구분하는 하나의 표식이 될 것이다. 다만 이들 역시 체재는 다르지만 기술된 내용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부연해야 할 것이다.

### 3. 지리지의 특성

#### 1) 서술 형식의 문제

이미 언급했듯이 이 시기의 조선 지리지들은 ‘병렬적 기술’로 특징지어지는 서술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전 근대에 행해지던 서술 태도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서도 이런 양식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 이 시기 지리지들이 근대 지리학적 서술 양식의 도입 이전의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일본에서 근대 지리학의 시각이 반영된 지리지로는 1896년에 일본 지학협회가 발간한 『臺灣諸島誌』가 사실상 최초로 간주되고 있고, 1903년부터 1915년에 걸쳐 발행된 『大日本地誌』에서 본격화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35)</sup> 이는 메이지유신 이후 30년이 지날 때까지도 일본의 관찬·사찬 지리지의 전통적인 풍토기나 기행문 양식의 서술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은 양태를 보이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근대 지리학의 시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대일본 지지』의 간행 연도가 1903년부터 1915년이라는 것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던 시기까지도 일본의 지지 편찬이 여전히 전통적 틀 안에 머물러 있었음을 의미한다.

일본인 지질학자 제1세대를 대변하는 고토 분지로(小藤文次郎, 1856-1935)가 전통적인 지리지 양식을 “낡은 지리서 필법”이라고 하여 거부하고 자신의 방법을 “신선하고도 근본적으로 혁신적인 지리서”로 내세운 것은 1888년의 일이었다. 이때 그가 의미한 것은 ‘지문(地文)’ 즉 자연 지리, ‘인류 지리’ 즉 인문 지리, 그리고 ‘식민 및 교통’이라는 3구분법이었다. 이 중에서도 당시의 일본에 전혀 새로운 요소였던 것은 첫 번째의 자연지리였다.

35) 荒井由美, “日本近代地誌學の發展からみた地誌學の特性に関する一考察” 『お茶の水地理』 27 (1986년 5월)

그의 시도는 1892년에 발간된 도쿠시마현의 지리 교과서에 반영되었으며 이후 지질학 안에서 추종자를 낳기 시작했는데, 앞서 언급한 『대일본 지지』는 그와 같은 지질학자들의 노력이 반영된 대표적인 결과물로 이해되고 있다.<sup>36)</sup> 조선 지리지 중에서는 『한국 신지리』(1905)가 고토의 시각을 일부 반영한 것이었음은 이미 제1절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 근대 지리학적 시각에서 지리지 편찬이 시도된 것은 일제 강점과 시기를 같이하고 있었으며, 본 장에서 검토한 지리지들은 그 이전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러면 이 시기에 일본의 지리지 편찬을 지배한 인식 틀은 어떤 것이었는가?

전통적인 지리지 서술 양식에 더해 메이지 시대 일본의 지리지 편찬은 문부성, 육군성, 태정관 정원이라는 세 주체에 의해 각기 다른 양식에 따라 이뤄졌다. 먼저 문부성은 1872년에 통달을 내어 각 현(縣) 별로 특산품을 세 종류씩 적어서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2년 뒤에 사범학교가 편집한 『日本地誌略』에 반영된다. 역시 1872년에 육군성은 통달을 내어 현 별로 지도와 촌락, 하천, 해안의 형상, 풍토기 즉 풍속을 적어 제출할 것을 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성시(城市)와 촌락의 관청 소재지, 경위도, 거리, 방향, 연혁, 인구 구성, 신분 구성, 하천과 평야의 지형, 토양, 산물 등등 다기에 걸쳐 상세를 적어낼 것을 지시한 것이었다. 이 지시에 따른 제출 자료가 모여 『兵要日本地理小誌』(1873)와 『共武政表』(1876)로 귀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본의 지리지 편찬 발달에서 더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은 『皇國地誌』 편찬을 기도한 태정관의 편찬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1872년에 처음 기안된 사업인데, 1873년에 그 예비 작업으로서 『日本地誌提要』의 편찬이 시도되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술이 규정되었다. 형세,

36) 山田俊弘, “地質學者, 地誌を書く—日本地理學の近代化, 1888年-1925年,” 『科學史研究』 45 (2006), 64-65쪽.

강역, 군(郡)의 수, 호구 수, 인구, 세액, 현치(縣治) 즉 관제(官制)와 교통 등 군진(軍鎭) 즉 무비(武備), 학교 현황, 소속 촌락 현황, 역참 및 교통로, 항만, 도서, 갑각(岬角) 즉 곳이나 암초 등의 해안 지형, 해협, 암초, 등대, 명산(名山), 하천, 지소(池沼), 온천, 주요 종교 시설, 물산, 광산.

지리의 여러 요소를 단지 나열하여 기술하려 함을 이 목록으로 알 수 있는데, 이는 1875년에 『황국지지』 편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즈음에는 더욱 더 세분화될 뿐, 요소들을 체계화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역시 ‘병렬적 기술’로 특징지어지는, 중국의 전통적 지지인 방지(方志) 편찬 사상의 영향이 강하며, 실제 서술에서는 역사적 기술이 많이 보이는 특색을 보인다.

이후 20년간 이와 같은 서술 양식을 고집하며 진행되다가 『일본지리지』 『大日本國誌』 『安房』 등 중간 단계의 성과만을 내고 결국 무위로 끝나 버린 것이 『황국지지』 편찬 사업이었다. 본 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조선 지리지의 나열적인 서술 양식이 특수한 양상이 아니라 당시 일본에서 지배적인 양식이었음을 이 『황국지지』의 편찬 방침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 국내를 대상으로 했기에 각 지방의 실측 정보에 근거해서 진행될 수 있었고 따라서 구체적인 수치와 최신 정보를 기재할 수 있었던 『황국지지』에 비해, 동 시기 조선 지리지는 실지 정보를 결하고 있었기에 『황국지지』만큼의 정보 제공도 불가능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sup>37)</sup>

정보의 나열을 중심에 두고 역사적 설명을 강조하는 이런 식의 지리지 서술 양식은 그 자체로는 저자의 세계관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조선 지리지에서 일정한 경향을 읽어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 문제의식과 저술 주체라는 면에서 보도록 하자.

37) 『황국지지』를 중심으로 한 메이지 시대 지리지 편찬 사업에 대한 설명은 石田龍次郎, “皇國地誌の編纂—その経緯と思想,” 『一橋大學研究年報 社會學研究』 8 (1966) 참조.

## 2) 일본인의 조선 인식 추이 - 문제의식 및 서술 주체의 변화

### (1) 문제의식의 변화

1867년의 메이지 유신부터 1910년의 한일병합에 이르는 시기 동안에 일본인의 손에 의해 쓰여진 조선 지리지를 보면, 일한 양국의 변화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호관계의 증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 내정의 격변의 추이에 따라 지리지의 관심이 이동한다는 것을 쉬이 알 수 있다. 그러한 관심의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1905년이라는 것은 각 지리지의 서문 등에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메이지유신이 일어나고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1894년까지도 조선 지리지의 근본 문제는 “조선의 지리는 어떠한가?”라기 보다는 “도대체 조선이란 어떤 나라인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일전쟁을 코앞에 둔 1894년까지도 지리지의 서문에서 조선의 중요성에 비해 그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탄식이 심심찮게 보이는 것, 특히 민간의 지리지에서 고대 이래의 한반도의 역사가 비중 있게 등장한다는 것 등은 당시의 문제의식이 미지의 국가에 대한 초보적 관심에 있었음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조선이란 나라에 대한 전통적인 무관심뿐만 아니라 현대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쓰시마 경유의 조선 정보나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등 해방론자(海防論者)의 조선론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직 낯선 것이었을 정황 또한 그러볼 수 있다.

이 시기 조선 지리지의 첫머리에 놓이는 『조선지략』(1875)은 제1절의 표에서 적시했듯이 간세이 연간(1789-1800)에 저술된 서적을 저본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의 상당 부분은 조선의 고대사와 한일관계사에 치중된 것이었다. 이처럼 “조선이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일본 식자의 첫 반응은 주로 조선과 일본의 고전적에 근거하여 그 연혁을 살피는 것이었다. 그

리고 이는 이미 보았듯이 한 세대에 걸쳐 조선 지리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방식이었다.

1905년 전후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와 같은 최초의 문제의식과 저술 방식에 변화가 보인다. 먼저 이민=식민을 주안에 두는 식민 가이드북이라 할 만한 서적들이 출현하여 조선 이민=식민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법·행정 및 풍속 정보 제공, 조선에서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원 및 산업 정보의 제공에 주력했다. 한편으로는 당시 일본의 지리지 편찬 방식의 발전을 좇아 자연 지리와 인문 지리를 구분하여 서술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즉 이때부터 더 이상 미지의 국가가 아니게 된 조선에 대해 “조선의 지리는 어떠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선에 대한 지리학적, 종합적 파악이 일제의 한반도 진출과 더불어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추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다음 항에서 서술 주체 문제를 검토하면서 이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한다.

## (2) 서술 주체의 변화

지금까지 경시되어 왔던, 조선 지리지 저자의 문제에 눈을 돌려 본다. 예컨대 19세기 말 조선의 강역을 논하면서 그 경위도를 정리할 때,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조선 지리지를 동일선상에서 논해 왔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비교와 열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선 지리지가 당시 사회 속에서 동일한 비중 혹은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고 전제해야만 한다. 과연 그런 전제가 가능한 것인가?

먼저 『신찬 조선지리지』(1894)의 저자인 오타 사이지로를 들어보자. 다른 저자들도 그렇지만 오타 역시 자세한 이력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 중의 한 명인데, 현재 파악되는 그의 저작 목록을 간행 연대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文豹一斑』 (1892)
- 『史記列伝講義』 (1892 - 93)
- 『新世語』 (1892)
- 『莊子講義』 (1892)
- 『十八史略講義』 (1893)
- 『唐詩選三体詩講義』 (1893)
- 『新撰歴史字典』 (1894)
- 『新撰朝鮮地理誌』 (1894)
- 『台湾地理誌』 (1895)
- 『日本兒童遊戯集』 (1901)
- 『新撰漢文問答』 (1902)
- 『古今名家尺牘文』 (1908)
- 『新式いろは引節用辭典』 (1910)
- 『中學名詩詳解』 (1911)
- 『受験參考漢文自修書』 (1913)
- 『芝山監物事蹟考』 (1936)
- 『解頤資談』 (1938)
- 『旧聞小録』 (1939)
- 『淳軒詩話』 (1939)

저작 목록만을 봤을 때, 오타의 활동은 『사기 열전』이나 『장자』, 그리고 『당시선』 같은 중국 고전을 쉽게 풀이하고 1894년에는 『신찬 조선지리지』를, 그 다음해에는 당시 일본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만을 해설하는 『대만 지리지』를 펴냈으며 다시 중학용 문학 참고서를 냈고 만년에는 옛 일을 회상하는 문집을 낸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서 떠오르는 그의 이미지는 메이지 시대의 한 문필가일 뿐 외국 지리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기재할 수 있는 지리학적 소양을 갖춘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이다.

1894년과 1910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 지리지(『조선지』 『조선 신지리』)를 펴낸 아다치 리쓰엔 역시 그의 저작 목록을 보면 주신쿠라의 주인공들을 소재로 한 『아코 의사 평론(赤穂義士評論)』(1910)을 내거나, 『무사도 발달사』(1901), 『심학사요(心學史要)』(1899)를 낸 문필가이자 사상(특히 심학) 보급자의 면모가 엿보이는데, 그 역시 오타처럼 『조선지』를 낸 같은 해에 『대만지(臺灣志)』를 내고 있다.

『신편 조선지리지요략』을 낸 마쓰모토 겐도는 어떠한가? 1899년에 『일본 헌법 주석』으로 문필 활동을 시작한 그는 『교육칙어 정해』(1891)나 『일본 충신 미담』(1892), 『한문지남(漢文指南)』(1892)같은 계몽용 도서와 한학서를 잇달아 냈고, 『신편 조선지리지요략』을 낸 1894년에는 『지나 지지 요약』을 내기도 했다. 그 뒤로는 다시 러시아나 청국을 논한 책을 내거나 일본의 역사와 지리에 관한 계몽 도서를 냈다.

이처럼 본 장에서 검토한 시기의 조선 지리지들은 굳이 따지자면 대부분이 지리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라 할 수 있는 문필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근대 초창기의 저널리스트들에 의해 작성된 것들이다. 1889년에 제1권을 낸 『지학잡지』의 여러 성과들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 그나마도 극히 일부만 반영되었다거나, 각 지리지에서 운위되는 여러 내용들이 상호 유사한 것 등은 저자들이 지니는 특색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외가 있다면 아라카와 고로(荒川五郎)의 『최근 조선사정』(1906)과 다부치 도모히코의 『한국 신지리』(1908), 지리연구회가 편찬한 『조선 신지리』(1910) 정도일 텐데, 아라카와의 책은 자연지리에 관한 항목을 결여한 채 저자의 견문과 의견이 주를 이뤄서 오늘날 말하는 지리지 양식에서는 일탈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한국 신지리』와 『조선 신지리』는 산맥과 암석을 중심으로 지질학적 조사 결과를 추가했지만 서술 체재와 내용에서 다른 지리지와 획을 그을 만큼의 실측 조사에 의해 저술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1894년 이후 계속되어온 정보의 정치화, 고토 분지로에서 비롯되

어 『한국 신지리』에서 반영되기 시작한 「지문」과 「인문」의 분류가 발전해 나아가는 도상의 저작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일본이 조선=한반도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와 정보를 가지고 강제 합병에 나서고 이후 식민 통치를 추진했으리라는 기대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오히려 이 시기 일본 지식인들은 현안으로 떠오른 조선이란 나라의 자연과 인문을 두고 당황해 하며 새로이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간간히 들어오는 새로운 견문을 낚은 정보 위에 덧칠하면서 조선의 이미지를 형성해 가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는 이미 제1절의 「표 2」로 예시한 바 있는, 조선 지리지들의 이용 자료 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1절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이 본격적으로 실지 정보를 얻어 조선의 정보를 체계화하고 정교화하기 시작하는 것은 1905년에 통감부가 설치되어 농공상부 등 조선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면서부터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1907년에 농상공부 산림국이 조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하여 러시아 대장성의 조사보고서를 초역한 데서 드러나듯이 일제 강점이 시작될 때까지도 일본 지식인들의 조선 정보는 자족적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울릉도·독도 문제는 이 장의 주 관심사가 아니지만, 이상의 내용을 아울러서 울릉도·독도 문제에서의 지리지 이용 현황을 생각해 볼 때,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한 1905년 이전 조선 지리지의 저자들 중에 문필가적 혹은 저널리스트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특히 많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은 조선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지닌 사람들도 아니었고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으며, 당연히 조선에 대한 그들의 언설은 전 근대 조선과 일본의 서적들에 기대는 바가 컸다. 이는 그들이 저술한 지리지에 담겨 있는 정보란 것이 그 자체로 신뢰할 만한 것, 일련의 논의에 확고한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이기보다는 해체되고 재검토되어 그 정보원(源)과 고전적으로부터의 인용, 동시대 저작 간의 교차 인용이 명확히 밝혀져야 할 대상이자 언설의 집합체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제 4 장 지리지 안의 울릉도·독도 인식의 추이

### 1. 조선 지리지의 울릉도·독도 인식

#### 1) 1876~1905년: 울릉도·독도 호칭의 혼란과 ‘량코 도’의 등장

##### (1) 풍속지 위주의 지리지

근대기 일본의 조선 지리지 편찬과정은 주로 조선의 풍속과 국내 사정에 관한 정보 취득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초기 지리지는 국내 정세와 풍속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리지에서 조선에 관한 정보를 다룬 내용이 보이는 것은 메이지유신 후 얼마 안 되고부터이다. 『朝鮮事情』1집 (소메자키 노부후사[染崎延房]<sup>38)</sup> 편, 1874년 3월)에서 처음으로 조선에 관한 내용이 보이는데, 여기서도 주로 조선의 조의(朝儀)와 각도의 관제, 그리고 풍속을 다루고 있다. 저자가 극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만큼 지리적 관심보다는 이국의 풍속에 대한 관심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소메자키는 『朝鮮事情』 안에 「朝鮮國 細見全圖」(1873)를 부도로 첨부하고 있는데 울릉도를 그린 뒤에 “일본에서는 다케시마(竹島)라고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으며, 독도는 우산도로 표기하여 울릉도 아래 나타냈다.

근대 초기에 일본이 조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중요한 소스 중의 하나는 외국인 저술이었다. 『朝鮮事情』(1876)은 본래 일본이 아닌 외국인

---

38) 소메자키 노부후사(染崎延房: 1818-1886)는 에도 말기에서 메이지 시기에 걸쳐 활동한 극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서 희곡과 신문기사, 소설을 창작했다. 저서로는 「朝鮮國細見全圖」(1873); 『神代道しるべ』(1873); 『義烈回天百首』(1874); 『近世紀聞』(1874); 『朝鮮事情』(1874) 등이 있다.

즉 이 책의 원저자는 프랑스 선교사 샤르르 달레(邏列留馱牟: Claude Charles Dallet; 1829-1878)<sup>39)</sup>이다. 이를 봉베(本部: van Meedervoot Pompe)라는 네덜란드 의사가 번역하고 다시 러시아 주재 특명전권공사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가 번역하였으며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필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순한문으로 되어 있으며 원제는 『高麗洋敎史略』(1874)<sup>40)</sup>이지만 달레는 조선에 와본 적이 없다. 원래는 서양 선교 역사의 성쇠를 밝힐 목적으로 편찬된 것이었으나 거기 기술된 조선의 풍토와 정치·군사 등이 조선을 아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일본이 원서의 서론과 요체만을 뽑아 『朝鮮事情』이라고 이름하여 다시 펴냈다. 따라서 이 책은 메이지 유신 후 팽배한 일본의 정한론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나오게 된 것임을 서문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즉 두 나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 이 책에 실린 자세한 지도가 조선 정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혀 있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조선의 지리와 지질, 기후, 물산, 역사, 왕실, 정부, 정치, 병제, 법률, 학술, 사회, 혼인, 가족, 종교, 인민의 습속, 오락, 가옥, 의복, 풍습, 무역, 외국교제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의 ‘정한’ 즉 양요(洋擾)까지를 개략적이긴 하지만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이 책에는 조선의 경위도가 표기되어 있다. 조선은 북위 33도 15분에서 42도 25분, 동경 122도 15분에서 128도 30분에 걸쳐 있다고 되어 있으며 조선인의 기록에 남북 3천 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용하였다. 이로써 보자면 울릉도가 빠져 있는 것이다.

위의 두 저술 사이에 나온 지리지로서 『朝鮮誌略』이 있다. 이 책은 1875년 2월에 도쿄에서 출판되었는데 도쥬 다모쓰(東條保)가 편찬하였다. 이 책에도 조선의 경위도가 명기되어 있는데 “위선은 적도 북 34도에서 시작되어 43도에 걸쳐 있으며, 경선(經線)은 지나(중국) 북경 편동 8도에서 시

39) 로마교황의 지시로 조선에 와서 선교활동을 하다 병으로 귀국하였다. 조선에서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책을 지었다.

40) 달레가 지은 책의 이름은 『조선 교회사』이다.

작되어 18도에 걸쳐 끝난다. 길이는 대체로 200리, 폭은 16리(里)”라고 되어 있다. 샤르르 달레의 『朝鮮事情』에 경위도가 “북위 33도 15분에서 42도 25분, 동경 122도 15분에서 128도 30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부정확하고 소략한 편이다. 그러나 『朝鮮誌略』의 특징은 일본인 편찬의 지리지 가운데 ‘울릉도’에 관한 내용이 처음 보인다는 점이다. 조선을 8도로 구분했고, ‘도서’ 편목에서 ‘울릉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자산도(子山島) 혹은 궁고(弓高)라는 이름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한다. 강원도 안에 있다. 3년마다 한번 수영(水營)의 관리를 파견하여 이 섬을 검사한다. 수로는 1천 리(里)라고 한다.

이 책의 편자는 울릉도의 이칭으로 자산도(우산도 - 역자)와 ‘궁고’를 거론하면서 이들을 강원도에 소속시키고 있다. 1875년 당시 이 책에는 일본이 울릉도를 ‘다케시마’라 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자산도 즉 우산도가 울릉도의 이칭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궁고’는 ‘키우카우’라고 후리가나를 붙여 놓고 있으므로 글자 그대로 읽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울릉도 성인봉을 ‘궁숭(弓嵩)’, ‘이소다케’라고 표기한 지도가 있던 것으로 보건대, ‘궁고’는 ‘궁숭(弓嵩)’의 오기로 보인다. 3년에 한번씩 이뤄지는 수영의 관리 파견은 수도제를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선의 전적(典籍)을 참고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근대기 일본이 펴낸 지리지의 특징으로 대부분 조선 지도를 수록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는데 『朝鮮地誌』(1881)에도 「朝鮮國全圖」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전도에 울릉도와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고 바다명칭은 대일본해, 고려협(高麗峽), 고려해로 되어 있다. 편자인 사카네 다쓰로(坂根達郎)는 아마구치 현 사족으로 알려져 있고, 제자(題字)를 해준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1842~1917)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본의 외교관으로서 1877년

부터 1878년 8월까지 조선주재 대리공사를 지낸 인물이다. 1880년 4월 일본 정부가 서울에 일본 공사를 상주시킬 때 초대 공사로 부임한 그는 1880년대 초 일본인의 울릉도 무단 입도와 벌목 등으로 인해 양국이 갈등을 겪을 당시 한국에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부사는 이 책이 나올 당시 책의 출판에 간여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책의 강원도 부분에도 도서가 매우 적다고만 했을 뿐 울릉도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강원도의 행정 구역은 주(1주) 부(6부) 군(7군) 현(12현)의 숫자로 표시되어 있고 당시 강원도의 인구는 31만 303명, 가호는 75,960호로 되어 있다. ‘동해’에는 조석(潮汐)이 없어 물이 혼탁하지 않아 벽해(碧海)라고도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른바 태정관 지령은 이들 지리지가 나오는 시기를 전후하여 나왔다. 태정관 지령을 내기 위한 첨부문서에는 “이소다케시마(磯竹島)는 일명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한다. 오키국(隱岐國)의 서북쪽 120리에 있다. 둘레가 약 10리이며 산은 험준하고 평지는 적다.....다음에 일도(一島)가 있는데 마쓰시마(松島)라고 부른다. 둘레는 30정(町) 정도이며, 다케시마(竹島)와 동일 선로에 있다. 오키와의 거리가 80리 정도이다. ....”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다케시마가 울릉도, 마쓰시마가 독도임을 거리관계를 보더라도 증빙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위의 내용은 시마네현이 직접 조사하여 내무성에 올린 것이며, 태정관은 이에 근거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지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지에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호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리정보 습득과정에서 지리지 편찬자가 시마네 현지정보를 참고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근대 초기의 지리지 편찬이 일본의 정한론적 배경과 관련성이 있음은 이미 앞에서 말했지만 이후의 지리지 역시 일본 정부의 관리와 군이 개입되고 있어 이런 정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朝鮮八道誌』(고마쓰 스스무[小松 運] 편, 1887) 역시 제국대학 총장인 와타나베 고키(渡邊洪基)가 제자(題字)하고, 특명 전권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글을 써준 것으로 되어 있어

편찬작업에 있어서의 정부와의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 편자인 고마쓰 스스무는 육군 군의관으로서 조선에 근무하는 동안 이 책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그는 저술을 위해 『상서기문(象胥紀聞)』, 『징비록』, 『고려사』, 『조선부』, 『대전회통』, 『공사촬요(攻事撮要)』 등의 도서를 참고하였고 실제로 지역을 탐사하기도 했다. 그가 보기에 조선은 일본에게 “동양의 정위(鄭衛)에 해당되는 나라로서, 조선의 향배(向背)가 바로 일본의 성패를 결정짓지는 않는다 해도 경중을 재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비쳐졌다. 이에 이웃 일본으로서 조선의 산천과 풍토, 제도와 인정, 고금의 용병, 전수(戰守), 흥망, 성패, 득실의 자취를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 책에 『朝鮮全國略圖』라는 지도가 첨부되어 있는데, 황해, 일본해 등의 호칭은 보이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총론적인 조선의 정세와 지리적 정보가 간략히 기술된 편이고 8도에 관한 내용은 자세한 편이다.

『朝鮮誌略』에는 울릉도·독도와 관련하여 “子山島, 弓高, 竹島” 등의 호칭이 언급되어 있는데 비해, 『朝鮮八道誌』에는 ‘울릉도’에 해당되는 호칭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강원도의 산천을 기술한 월성포와 울진포, 연곡포<sup>41)</sup> 항목에 ‘도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연곡포’ 항목에 보면, “연곡포의 서북에 섬이 하나 있는데 죽산도(竹山島)라 한다”고 하였고, 이어 “초도, 제성도(梯城島), 죽도(竹島)” 등을 동해에 흩어져 있는 섬으로 보았다. 여기 나온 죽산도와 죽도가 어디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다만 죽산도가 우산도의 오기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들 섬 외에도 “형도(兄島), 제도(弟島), 후도(厚島), 저도(猪島), 국도(國島), 천도(穿島), 학도(鶴島), 울도(栗島) 등의 군서(群嶼)”가 거론되고 있는데 모두 함경도와 통하는 해빈 앞에 열 지어 있는, 탄환모양의 작은 섬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朝鮮地誌』(1881)에 나온 ‘벽해’라는 말이 여기서도 벽해로 되어 있지만 ‘팔승’은 ‘팔역(八域)’으로 되어 있다.

---

41) 강릉현에 속한다.



1870년대에서 1880년대 사이의 지리지가 울릉도·독도에 관해 호칭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1890년대부터는 ‘울릉도’에 관한 편목이 출현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수산지의 성격을 지닌 지리지가 출현하면서 조선의 좋은 어업기지인 ‘울릉도’를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朝鮮通漁事情』(세키자와 아케키요[關澤明清]·다케나카 구니카[竹中邦香] 공편, 1893)은 일종의 수산지로서 편찬되었으나 여기에 울릉도에 관한 내용이 보인다.

이즈음 수산지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일본의 어업진출과정과 관련이 깊다. 일본 어민의 조선어장 진출과정은 대체로 3단계로 구분되는데, 제 1단계는 메이지 유신 - 청일전쟁(1868-1894년), 제 2단계는 청일전쟁 - 러일전쟁(1895 - 1904년) 발발까지, 3단계는 러일전쟁 - 한일병합(1905 - 1910년)으로 구분된다.<sup>42)</sup> 『조선통어사정』이 나오던 때는 위의 구분으로 보자면 제 1단계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 일본은 통어규칙과 정부의 권력에 의거하면서 한국의 동해안과 남해안 어장 개방을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sup>43)</sup>

## (2) 수산지의 출현과 ‘독도’기술 등장

『조선통어사정』(1893)은 일본이 조선 어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목적으로 펴낸 지리지이다. 일본이 보기에 조선은 ‘일의대수’한 관계에 있는 만큼 조선의 현황에 대해서도 몰라서는 안 된다고 여긴 일본은 개국하자마자 조선의 어업에 눈을 돌렸다. 일찍이 어업에 눈을 뜬 일본인이 보기에 조선인은 해양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비쳐졌고 이는 조선의 어업권 요구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883년에 일본은 「조일통상

42) 김수희, 『근대 일본어민의 한국진출과 어업경영』(경인문화사, 2010), 16-17쪽.

43) 김수희, 『위 책』, 17쪽.

장정(朝日通商章程)』을 체결, 처음으로 조선과 어업조약을 체결했고 1889년 말에는 이 장정의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조일통어장정(朝日通漁章程)』을 체결했다. 이 장정이 체결됨으로써 쓰시마 근해에서 어업을 하던 일본 어민은 어업세를 납부하고 조선에서의 법적인 어로권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1893년 이전 일본인이 조선해<sup>44)</sup>에서 거둔 어업 이익은 160 - 70만원 정도였으나 이는 조선의 해양 전부가 아닌 일부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허가 구역을 전 구역으로 넓힌다면 그 이익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더구나 조선인은 어업에 서툴기 때문에 어획이 적을 뿐만 아니라 ‘조선해’ 자체가 조류(潮流)와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어류가 풍부하다는 것을 인식한 일본은 “무궁한 보고인 조선해”에서의 어업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 책은 그런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sup>45)</sup> 수산물 이름이 한글로 쓰여 있으며, 해도(海圖)의 오류가 한 둘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조선해 출어의 기원과 연혁, 통어규칙, 그리고 지리, 수산물과 어업 실태, 어획물의 판매와 제조, 정부와 자본가에 대한 바람 등을 싣고 있다. ‘지리’에서는 경상도와 전라도, 강원도, 함경도, 충청도, 경기도를 다루고 평안도는 제외하였다. 부도로 「조선국도」가 실려 있다. 이 책에서 울릉도(蔚陵島)<sup>46)</sup>는 ‘강원도’<sup>47)</sup> 편목에서 유일한 도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즉 강원도 해안에는 좋은 항구가 적고 도서 중 조금 큰 것으로는 오직 울릉도가 있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적혀 있다.

혹은 무릉 혹은 우릉이라고 한다. 본방인은 마쓰시마(松島)라고 한다. 울진에서 동쪽으로 350한리(韓里) 떨어진 해상에 있다. 바람이 좋으면

44) 원문대로 적은 것인데, 지리지에서 조선해라고 한 것은 어업이 허용된 조선의 바다를 모두 의미하는 것이지 동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45) 총론

46) ‘울량토’라고 후리가나가 붙어 있다.

47) 1주, 8부, 6군, 11현으로 되어 있다.

이들에 도달한다고 한다. 옛날에는 우산국으로 칭해졌고 거의 무인도이다. 중세에 조선 정부는 인민을 이주시켰으나 지금은 약간의 호수(戶數)가 있다. 섬에 수목이 풍부하고 주변에 어류가 많지만 암초로 둘러싸여 있어 큰 배는 가까이 갈 수 없다. 가장 작은 어선을 댈 곳이 유일하게 한 곳 있는데 바닷길이 멀어 가장 작은 어선도 이르기가 어려우므로 아직 본방 어민 중 한 사람도 출어를 시도한 자가 없다고 한다.

본도(本道)의 바다는 연안 2-3리(里) 내지 4-5리 사이는 얕아서 깊이가 2-30길[尋]에 불과. 그런데 여기서 먼 바다로 나가면 급격히 깊어져 200-300길이 되며 차차 400-500길로 더해져 1440길에 이른다. 이후로는 깊어서 아직 측량해보지 못한 곳이 있다. 때문에 항해선의 경우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 결코 암초를 만날 염려가 없어 매우 쉬운 노선이지만 어업의 경우에는 연안은 날씨에 따라 파도가 매우 높은데다 먼 바다로 나아가면 고기 종류에 따라 그물이 해저에 닿을 수 없기 때문에 포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때문에 본방 어민이 앞으로 이곳에서 어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점에 주의하여 어구와 어법 같은 것을 잘 선택해야 할 것이다.

울릉도가 여기서 ‘마쓰시마(松島)’로 되어 있다. 울릉도가 마쓰시마로 불린 시기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1876년 무토 헤이가쿠가 개척원을 낼 때 ‘마쓰시마 개척지원’의 마쓰시마’는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1877년 시마네현의 도다 다카요시가 ‘다케시마 도해지원’을 제출했을 때의 다케시마 역시 울릉도를 가리키고 있어 1870년대 울릉도의 호칭은 마쓰시마와 다케시마가 둘다 쓰이고 있다. 이규원이 울릉도에서 발견한 일본인의 표목에는 울릉도가 마쓰시마로 되어 있다. 다만 이 표목은 1869년에 세운 것으로 되어 있으나, 1880년으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sup>48)</sup> 따라서 일련의 이들 호칭으로 보더라도 1870년대 말에서 1880년대

48) 山本修身, 『復命書』『明治十七年蔚陵島一件錄』(山口縣文書館所藏)

초기에는 울릉도에 대한 일본 호칭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두 호칭이 혼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통어사정』에는 울릉도가 육지에서 이틀 길, 어선을 댈 만한 곳이란 곳 있다는 사실 등을 적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산인신문(1894년 2월 18일, 2444호)의 기사와 유사하다. 기사의 연도는 1894년이지만 내용은 1893년 6월에 마쓰에의 사토 교스이(佐藤狂水)라는 자가 오키에서 울릉도로 들어섰던 일을 적고 있다. 여기에 ‘다케시마’와 ‘량코 도’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드디어 어부와 선원 11명으로 배를 갖추 6월 4일(1893년·역자) 도젠(島前)을 출발, 도고(島後) 후쿠우라(福浦)항에서 순풍을 기다렸다. 같은 달 24일에 출발하였다. ....

다케시마는 오키로부터 서북 80여 리의 해상에 고립해 있으며, 배를 달려 50여 리쯤에 하나의 외로운 섬이 있다. 세간에서는 이것을 리랑코도(島)라 한다. 둘레는 모두 약 1리쯤 되고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섬에 바다짐승 해려(海驢)가 서식하여 수 백 마리를 헤아리는데 그들이 우는 소리가 몹시 시끄러우며 근해에는 고래 무리가 떼 지어 헤엄치고 있어 실로 비할 바 없는 고래잡이 어장이다. ....이를 잡으려면 원양어업의 방법으로 증기선이나 대형 범선의 보조를 받아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 섬에서 30여 리 떨어진 곳에 다케시마가 있다. 해류로 말한다면 리랑코 도는 한류와 난류의 경계선이 될 것이다.....이 섬은 팔도 중의 하나인 강원도에 속하는 섬으로 본명은 울릉도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다케시마라고 부른다. 내륙의 울진에서 동쪽으로 350간리(幹<sup>49</sup>)리)(조선의 1리는 우리의 3정 51칸 남짓에 해당)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순풍일 경우 이틀이면 도착한다고 한다. 예전에는 우산국이라 불렸으며 대체로 무인도였으나 근세에 조선 정부가 인민을 이주시켜, 지금은 300여 가구에 달한다. 또한 매년 다소의 이주민이 있어 개척에 종사하고 있다.

---

49) 幹은 韓의 오기인 듯하다.

섬의 둘레는 12-3리이며 섬 전체가 산지여서 평지가 거의 없다. 다만 약간의 계곡이 평지 비슷한 모양을 이룰 뿐이다. 그러므로 경작지는 밭뿐이고 논은 없으며 수목이 가장 풍부한데 그 중에 좋은 느티나무가 있다고 하나, 십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벌목하러 왔기 때문에 해변의 닿기 쉬운 곳은 이미 전부 벌채한 상태지만 아직 산 속에는 간혹 좋은 목재가 적지 않다. 주변 해안은 단애가 이어지고 항만이 적으며 동남쪽에 작은 항구가 하나 있을 뿐이다. 그곳을 도동이라 한다.....

이 신문기사는 『조선통어사정』보다 자세한데, 울릉도에 관한 호칭이 다시 다케시마로 되어 있다. 『조선통어사정』에는 독도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지만, 이 기사는 독도에 대한 내용을 ‘리랑코 도’로 호칭하며 기술하고 있어 오히려 『조선통어사정』보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섬의 둘레가 1리쯤이며 강치와 고래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는 점도 밝혀 독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어종에 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 것은 조선의 전적(典籍)에 나온 삼봉도를 떠올리게 된다.

『조선통어사정』은 『朝鮮誌略』(1875)보다는 울릉도·독도 관련 내용이 좀 더 자세하긴 하지만 산인신문 기사보다는 소략하며, 내용도 주로 어업과의 연관성에 치우쳐 있다. 연안은 날씨가 민감하고 먼 바다는 파도가 높아 포획하기 어려운 고기 종류가 있으므로 어구와 어법을 잘 선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어업과 관련된 정보를 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울릉도에 관해서도 전략적 차원의 논의보다는 어업적 차원의 논의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 (3) 청일전쟁 이후 지리지의 비약적 증가

1894년 청일전쟁의 발발로 인해 조선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자 울릉도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기 시작한다. 이는 지리지의 간

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술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수반한다. 지리지 간행은 1894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여 1894년에만 네 종류의 지리지가 편찬되었다. 이 시기에 나온 조선관계 지리지로는 『朝鮮紀聞』(스즈키 노부히토[鈴木信仁] 편술, 1894년 5월)을 비롯하여 『朝鮮志』(아다치 리쓰엔[足立栗園] 편저, 1894년 초여름), 『新編 朝鮮地誌要略』(마쓰모토 겐도[松本謙堂] 편, 1894), 『新撰 朝鮮地理誌』(오타 사이지로[大田才次郎] 編, 1894년 9월) 등이 있다. 이들 지리지가 전쟁을 전후하여 출간 러시를 이룬 것은 당시의 동북아 정세와 관련이 있다.

『朝鮮志』(1894)에는 청일전쟁 전후의 정세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일본에 있어 조선은 지리적으로는 매우 가까운 [一衣帶水]의 관계이자 역사적으로는 일본에게 있어 ‘보거순치(輔車唇齒)의 관계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외에 지정학적으로는 “동양의 모든 문제가 모여드는 사지(死地)”이자 지뢰밭으로 비쳐졌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앞으로 영국과 러시아간 충돌을 예상하여 이들 틈에서 중요한 지역인 조선의 지리를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지리지는 이러한 목적에서 출간된 것임이 밝혀져 있다. 내용은 주로 교섭사에 치중하여 일한 교섭사뿐만 아니라 러한 교섭사도 다루고 있다. 지도에는 일본해 및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표기되어 있는데, 마쓰시마가 다케시마보다 동남쪽에 더 크게 나타나 있는 한편 본문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기술이 없어 다케시마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지는 알 수 없다.

『朝鮮紀聞』역시 청일전쟁 개전의 이유와 전쟁 시작 후의 추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나라 역사, 지리, 제도, 풍속, 산업의 형세 등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저술된 것으로, 『신찬 조선지리지』 광고에 실릴 정도였다. 주한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의 교열을 거쳐 만들어졌다는 사실로 인해 좋은 정평을 얻어 재판까지 찍었다고 한다. 오토리 게이스케는 지학협회와 관계를 맺고 조선의 지리와 풍속에 관한 여러 책을 수집해온 사람이다.

강원도 부분은 1주(州), 6부(府), 7군(郡), 6도호부, 7수(守), 12현(縣), 3령(令), 9감(監) 체재에, 가호는 67012호, 군정(軍丁)은 10980명으로 되어 있다. 울릉도의 연혁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일명 자산국(子山國)이라 한다. ‘弓嵩(イソダケ)’이라고도 한다(일본이 말하는 바 다케시마가 이것이다). 이 섬은 강원도 안에 있으며 당시 3년에 한번 수영에서 관리 두세 명, 일본 통사(通事) 한 명과 함께 삼척에서 배를 타고 검분(檢分)하러 울릉도로 건너갔다. 경성에서 삼척까지는 600리(里)인데 수로로는 1천 여 리(里)다. 날씨가 좋아도 일본에서는 조선의 제산이 보이지 않는다. 고양이가 많이 이 섬에 사는데 개만큼 큰 것도 있다. 과거 이 섬에 인가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어 본국으로 철수하고 고양이만 남아 번식했다고 한다. 조선인은 늘 이 섬으로 건너오는데 우연히도 전라도 사람이 어업 때문에 이곳으로 건너와 배를 만들어 돌아가는 일이 있다. 섬 안에는 인삼, 전복, 해삼 등이 난다(근래 일본 사람이 이 섬에 건너와 목재를 벌채해 내왔으나 경찰청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연행해갔다).

이 내용은 1875년 『조선지략』의 내용을 일부 인용한 듯하지만, ‘궁고(弓高)’를 ‘궁숭(弓嵩)’ 즉 ‘이소다케’로 적어 놓고, 울릉도의 일본 호칭은 ‘다케시마(竹島)’로 적고 있는 점이 다르다. 수토에 관한 내용을 ‘검분(檢分)’으로 표현하고 있다. 처음으로 일본인 별목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지리지이기도 하다.

『新撰 朝鮮地理誌』(1894)는 청일전쟁 개전의 이유와 전쟁 시작 후의 추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역사, 지리, 제도, 풍속, 산업의 형세 등을 자세히 알아야 하며, 일본의 긴급한 요무는 조선 사정을 자세히 아는 것이라고 하여 편찬 목적이 『朝鮮紀聞』과 다르지 않다. 17종의 도서와 해관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만들어졌음을 밝히고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편찬의

주요 목적이 조선 산천 도읍의 위치와 형세를 알기 위한 데 있는 것이니 만큼 이정(里程)도 조선의 이법에 맞춰 쓰고 있음을 밝혔다. 내용은 대략 지리적 정보와 민업, 인종, 정채, 종교, 풍속 등에 관한 것이며 8도의 강역, 구획, 호구, 전포, 지새, 군현 위치, 기후, 산악, 온천, 하천, 항만, 도서, 도읍, 성비(城陴), 명승지, 풍속, 물산 등을 다루고 있으며 경성에서부터 각지간의 도리(道里)를 기록하고 있다. 부속지도로 「조선지도」가 첨부되어 있는데,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그려져 있으나 마쓰시마가 다케시마보다 더 크게 오른쪽에 그려져 있다.

『朝鮮志』의 부속 지도에 다케시마(竹島)와 마쓰시마(松島)가 그려진 이래 『新編 朝鮮地誌要略』(마쓰모토 겐도[松本謙堂]저, 1894) 부도 「조선 전도」<sup>50)</sup>에도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그려져 있으나 위치상으로는 마쓰시마가 오른쪽에 있어 독도를 가리키는 듯하지만 경위도상으로 볼 때는 131도에 못 미치게 그려져 있어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강원도 부분에 해당 내용이 없어 지도와 대조하여 추론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신찬 조선지리지』(1894)에는 강원도 ‘항만’과 ‘도서’부분에 섬 이름이 나오는데, 월송포, 울진포, 연곡포가 나오고 연곡포 안에 ‘죽산도’가 언급되고 있음은 『朝鮮八道誌』(1887)와 유사하다. ‘도서’부분에 『朝鮮八道誌』와 마찬가지로 “형도(兄島), 제도(弟島), 후도(厚島), 저도(猪島), 국도(國島), 천도(穿島), 학도(鶴島), 울도(栗島) 등의 군서(群嶼)는 함경도에 매우 가까운 해변(海濱) 앞에 있다. 섬이 모두 작으며 땅도 역시 교학(礁确)과 사적(砂磧)만 있다. 기타 초도(草島), 제·성도(柀·城島), 죽도(竹島), 울릉도(鬱陵島), 우산도(弓山島)는 모두 동해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섬들이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조선 팔도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제도와 성도,<sup>51)</sup> 죽도 다음에 ‘울

50) 표지에는 부속지도명이 팔도지도로 되어 있다.

51) 제도와 성도로 분리되어 있는데 제성도의 오류인 듯하다.



릉도'와 '우산도(于山島)'가 새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울릉도와 함께 나온 것으로 보아 于山島는 于山島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우산도는 독도를 가리키는 듯하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없다. 다만 죽도가 따로 나온 것으로 보아 죽도가 독도를 가리킬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우산도가 독도를 가리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지리지 역시 지도를 싣고 있는데 마쓰시마가 다케시마(竹島) 오른쪽에 더 크게 나타나 있어 설명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지리지는 범례에서 이정(里程)을 조선의 이법(里法)에 의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청일전쟁 이후 활발해진 조선 지리지 편찬은 대한제국 정부와 민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인에 의한 편찬과는 달리 조선이 주체가 된 점에서 엄연한 인식의 차이와 유사점이 존재한다. 대한제국 학부는『朝鮮地誌』(1895)를 펴냈고, 현재 역시『大韓地誌』(1899)를 펴내 조선 강역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이를 보급하기 시작하였다.『朝鮮地誌』는 국한문 혼용체의 지리지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지리 교과서로 일컬어진다. 이 지리지는 전국이 23부로 새로 구획된 사실을 언급하고 '울릉도'에 관해서도 언급하기를, "울진에 있으니 둘레가 200여 리인데, 동서는 60여 리오, 남북이 40여 리"라고 하였다. '우산도(芋山島)' 역시 울진에 있는 섬으로 보아 둘 다 울진현에 소속시키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의 호칭을 '울릉도'와 '우산도'로서 표기하고 있는 점이나 둘레는 언급하고 있는 점이 조선인에 의한 지리지로서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대한지지』역시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다. 서문<sup>52)</sup>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지리지가 나온 이유는 기존에 나온 학부의 지지가 소략하기 때문이며, 본국 지지를 먼저 배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다

52) "현재가 학부로 찾아와 본국 지지가 초학자에게 불편하고 국한문 혼용인 데다 소략한 것이 많아 새로 위치와 토산 등 10여문을 덧붙임..." (李圭桓 서문)

른 지리지와 다른 점은 조선의 지리지 기술에 앞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선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막, 고원, 丘, 山, 嶽, 麓, 頂, 峯, 山腹, 阪, 상(峠), 源, 川, 江, 河, 瀧과 瀑布, 湖, 淵, 沼, 海, 洋, 海岸, 島, 群島, 半島, 岬, 崎, 海灣, 내해, 항(港), 해협 등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다. 『대한지지』는 양항(良港) 중 가장 큰 것으로 제주, 거제, 남해, 진도, 강화, 교동, 안면도<sup>53)</sup>와 함께 ‘울릉 제도(鬱陵 諸島)’를 거론하고 있다. 12편 강원도 ‘해만 도서’ 부분에 포구와 섬 이름이 나오는데 아래와 같다.

(월송포 - 역자) 연안에 송도(松島) 사도(沙島) 무로도(無路島) 저도(猪島) 죽도(竹島) 등의 군도(群島)가 나열해 있으나 모두 아주 작은 사적지(沙磧地)요, 유독 울릉도는 동해에 있는 조금 큰 섬이라. 섬 중앙에 있는 하나의 봉우리를 중봉(中峰)이라 이름하니 수림이 울창하고 규목과 향목 등이 유명하다.

이 지리지에서 울릉도는 동해의 섬으로서 등장하고 울릉도 안의 봉우리를 ‘중봉’으로 칭하고 있는데 중봉이 나오는 지리지로서는 처음이지만 독도에 해당시킬 만한 섬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시기에 울릉도에 관해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지리지는 『朝鮮開化史』(쓰네야 모리후쿠[恒屋盛服]저, 1901)이다. 저자인 쓰네야 모리후쿠는 1894년 8월부터 조선에 거주하다가 1895년 일본 공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권고를 받아들여 내각 보좌관으로서 기록편찬관보 사무를 감독해 온 사람이다. 그는 아관파천으로 일본이 조선을 떠나게 되었을 때도 조선에 남아 “시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며” 책을 썼다고 한다. 그가 지리지를 편찬한 목적은 일본의 식민 사업의 실행을 장려하기 위해서이다. 그가 보

---

53) 안면도를 가리키는 듯하다.

기에 조선의 풍물은 “한결같이 쇠망하기 좋은 형상들”이었다. 근세에 와서는 불란서와 미국의 함대 포격, 일본의 강박적 개국, 서세동점의 대 조류 앞에서 조선이 안주한다면 “몇 년 안 돼 일대 활극이 연출되고 인심이 동요될 것”이라고 보았다. 조선은 인종간의 각축장이 되었으므로 “인민은 그 사이에서 진보발달하든가 아니면 멸망멸절할 것인데 지금은 누구도 예언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朝鮮開化史』는 모두 4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정 중 추기(追記)한 것은 ‘因ニ 記ス’라는 4자를 앞에 덧붙였다. ‘울릉도’ 관련 내용은 지리편 제4장 강원도 부분에서 ‘삼척’ 편목 다음에 독립된 편목으로 나온다. ‘강릉’이나 ‘삼척’ 편목에 비해 양적으로 더 많다. 울릉도에 대해 “금강산의 지류가 동해로 들어가 60여 리 떨어진 곳에 우뚝 솟아 있는 섬이 울릉도이다.” “울릉(蔚陵)이라고도 쓰는데 바로 옛날의 우산국이다. 후에 신라로 편입되었다. 별명은 무릉(武陵), 우릉(羽陵)이니, 모두 그 자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크고 작은 여섯 개의 섬이 있다. 그 중 저명한 것을 우산도(일본인은 마쓰시마라고 이름한다)와 竹島라고 한다. 전도의 면적은 약 75방리(方哩:평방마일), 섬 안에 경작할 만한 땅이 많지 않다. 수목은 해변에서 산령(山嶺)에 이르기까지 울창하다. 산의 높이는 4천 영척(英尺:피트 - 역자)으로 해안은 험준하다. 3리(哩) 안 해중의 수심은 6천 영척에서부터 9600영척에 이른다. 주민은 남녀 약 300구, 수 십년 이래로 선장(船匠)과 상고(商賈) 및 어부 농부가 잇달아 왔다. 주거는 해수(海水)가 너무 깊으므로 어산(魚産)이 아직 많지 않으나 해채의 운반이 해마다 2천 짐[荷]을 넘는다. 토질이 비옥하여 비료와 관개가 필요 없다. 다만 나무를 태워 갈아엎어 경작한다. 봄에는 보리와 밀이고, 가을에는 감자와 콩 종류이다. 임산(林産)은 크고 늙은 삼나무 및 각종 보목(寶木)이며 또한 회목(檜木), 향목, 잣나무, 감탕목이 난다”고 하였다.

울릉도 주변의 섬 중에 우산도와 竹島<sup>54)</sup>를 별개의 섬으로 보고 있으며 우산도를 일본인의 마쓰시마(松島)에 비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우산도는 독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울릉도가 아닌 섬으로서 일본이 마쓰시마라고 부를 만한 섬은 독도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竹島’가 울릉도 주변의 섬으로 우산도와 함께 나오고 있으므로 여기서 竹島는 울릉도나 독도가 아닌 다른 섬을 의미하므로 오늘날의 죽도 즉 일본 호칭 죽서(竹嶼)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이 지리지가 나온 시기가 1901년인 점을 감안해볼 때, 이들 호칭을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 41호와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책은 1898년 봄에 시작하여 다음해인 1899년 5월에 탈고했고 서문은 1900년 늦봄에 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칙령이 나오기 전에 이들 내용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울릉도 부속 도서를 여섯 개의 대소도서로 본 것은 이미 1899년 부산해관에 근무하던 서양인 스미스가 보고한 바의 내용이기도 하다. 스미스는 울릉도 부속도서 중 가장 드러나는 것을 우산도와 竹島라고 하였다.<sup>55)</sup>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아 쓰네야 모리후쿠 역시 이 보고서를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울릉도의 부속 도서를 여섯 개로 보던 1901년의 인식은 『韓海通漁指針』(1903)의 단계에 오면 달라진다. 『한해통어지침』은 울릉도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평해군 월송포 남쪽 40여 리 바다 안에 있는 고도(孤島)로서 한인(韓人)은 별명을 무릉 또는 우릉이라고도 적는다. 바로 옛날의 우산국으로 지나인은 이를 마쓰시마(松島)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어진 ‘추기(追記)’에 “세상사람들은 본도(本島)를 대소 여섯 개의 도서가 모여 있는 것으로 보고 혹은 다케시마(竹嶋), 마쓰시마(松嶋)라는 두 섬의 총칭이라고 하며, 심지어는 왕왕 지도 안에서도 이를 병기한 것을 본다. 이와 같

54) 다케시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대로 표기했다.

55) 1899년 9월 23일: 별보: ‘鬱陵島 事況’ (황성신문) “울진의 동해에 한 섬이 있으니, 울릉이라고 한다. 그 부속한 여섯 개의 작은 섬 중에 가장 드러나는 것은 우산도와 竹島이니, 「대한지지」에 울릉도는 옛 우산국이라 하였다.--”

은 것은 실로 큰 오류이다”고 하였다.

이는 『한해통어지침』 저자가 울릉도를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총칭으로 보거나 여섯 개의 도서로 구성되어 있는 종래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저자는 지도에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병기한 것도 오류라고 보고 있다. 저자는 마쓰시마를 울릉도로 보고 있으므로 여기서 언급한 다케시마(竹島)는 독도를 의미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나 일본의 고지도에서는 동해 해역에 있는 두 섬 중 하나를 마쓰시마, 다른 하나를 다케시마로 보아왔고, 이들은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구즈우 슈스케는 이를 부정하고 마쓰시마(울릉도 - 역자) 외에 ‘양코 도(島)’라는 다른 섬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 그렇다면 흔히 통칭하던, 울릉도에 해당하는 마쓰시마의 대(對)로서의 다케시마(독도 - 역자)를 여기서는 독도로서 비정할 수 없게 된다. 구즈우 슈스케가 제시한 ‘양코 도’가 독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양코 도에 대해서는 다시 다룬다.

울릉도·독도·竹島 명칭을 둘러싼 당시의 여러 도서(圖書)를 보면, 적어도 1905년 시마네 현 편입 이전에는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괄호는 실제 저술시기)

1894년	新撰 朝鮮地理誌	울릉도, 亏山島, 竹島
1899년	황성신문	울릉도, 우산도, 竹島
1900년	칙령 41호	울릉 전도, 竹島, 石島
1901년	朝鮮 開化史	울릉도, 우산도, 竹島
1902년	通商彙纂	울릉도, 양코 島(본방인 松島)
1903년(1900년)	韓海通漁指針	울릉도(지나인 松島), 양코 島

위와 같은 기술에 근거해본다면,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 및 죽도(竹嶼 - 역자)에 대한 호칭을 다음과 같이 비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괄호 안은 출전)

울릉도 : 울릉도(황성신문), 울릉 전도(칙령), 울릉도(조선개회사), 울릉도(한해통어지침-松島)

독도 : 우산도(황성신문), 석도(칙령), 우산도(조선개회사-마쓰시마), 양코 島(통상회찬), 양코 島(한해통어지침)

죽도(죽서): 竹島(황성신문), 竹島(칙령), 竹島(조선개회사),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근대기 일본이 1905년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펴낸 지리지에서 독도에 대한 호칭으로 ‘다케시마(竹島)’보다는 ‘우산도’와 ‘양코 島’<sup>56)</sup>를 더 많이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 외에 따로 ‘竹島’라는 호칭이 『조선 개회사』와 『한해통어지침』에 나온다. 이는 ‘죽서(竹嶼)’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 단계에는 아직 ‘죽서’가 아니라 ‘竹島’로 나온다. 이로써 보자면 일본이 조선의 호칭 ‘우산도’를 독도 호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근대기에 들어와서야 ‘마쓰시마’ 호칭이 사라지고 ‘양코 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전후한 시기에 일본이 펴낸 지리지에서는 울릉도 외에 ‘竹島’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竹島’를 독도에 비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두 섬 즉 울릉도와 竹島를 제외한 나머지만한 섬에 대한 호칭 즉 ‘석도’, ‘양코 도’, ‘우산도’ 등의 호칭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또한 이들 호칭을 죽도 즉 죽서에 비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위의 세 호칭은 ‘독도’에 비정할 수 있다. 위의 호칭들을 교차 분석해보더라도 ‘독도’에 비정할 수 있는 논거가 오히려 일본 지리지에 의해 제공되는 셈이다.

『朝鮮開化史』(1901)는 이제까지의 지리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동남제도 개척사 김옥균에 의한 울릉도 개척 및 외국인의 수목 벌채에 관한 내

56) 한국 기록에서는 제국신문 1901년 4월 1일 기사에 ‘양고’라는 섬 이름이 처음 보인다. 그러나 ‘울릉도 동남 삼십리’ 해중에 있는 섬으로 본 것으로 미루어보건대 죽도를 일컫고 있어 명칭에 대한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

용을 다루고 있다.<sup>57)</sup> 『조선 개화사』는 울릉도의 소속에 대하여 “본도가 일본과 관계를 맺은 것은 왜구 이래의 일이 있었던 것과 같다. 가이바라 에키켄(貝原益軒)은 이를 일본의 소속으로 단정했다.”고 하여 가이바라 당시 일본의 소속이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메이지 15-6년 경 일본인 모 공인(工人)을 보내 벌목에 종사시키자 한국 조정이 항의하여 일본이 양보하여 그 소속 논의가 정해졌으나 일본인이 몰래 도항하여 벌목 및 밀무역에 종사하는 일이 그치지 않았다. 화물을 매각할 때 구전은 100분의 2를 관에 납부하고 목재는 선박 한 척당 100량을 내고 공공연히 밀무역을 했다”고 하듯이, 메이지 연간 울릉도가 조선 소속이 된 이래로도 일본이 밀무역을 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다.

울릉도의 이칭에 대한 비판이 『한해통어지침』에서 보였듯이, 지리지에서 울릉도 및 독도에 관한 내용은 그 명칭과 정보에 있어서 점차 정확성을 더해간다. 본래 『한해통어지침』은 『조선통어사정』(1893) 이후 변모된 어업 현황을 소개하여 조선에 출어하는 일본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한 정보서의 성격이 짙었다. 이 책은 1900년에 저술에 착수하여 1903년에 발간되었다. 저자인 구즈우 슈스케(葛生修亮)는 1891년 당시 열여섯 살의 나이에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뒤로 한국에서 “오래도록 한해 통어 실지를 조사하기를 희망해오다가 1899년에야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다. 구즈우는 1899년 2월 초순 부산에서 강원도를 거쳐 원산에 이르는 연안어업을 시찰, 그곳으로부터 경성, 진남포, 평양 등을 돌고 다시 경성을 지나 충청도와 전라도의 각 중요한 시장을 돌아본 뒤 6월에 부산으로 돌아와 조선어업협회에 가입하고, 다시 이 협회의 순람선에 탑승, 해상에서 4도의 연해를 시찰하였

57) “금왕 23년(1886년-1883년의 오류임-역자주) 韓 조정이 김옥균을 동남 제도 개척사겸 포경사로 임명하여 백춘배를 종사관으로 삼아 이 섬의 개척 사무를 담당하게 했으나 다음 해 경성의 변이 있어 이루지 못했다. 그 후 도민 서경수를 월송만호에 차정하여 이 섬의 인민을 번식하게 하고 외국인의 수목 벌채를 금지하게 했다.”고 했는데, 김옥균의 직함은 동남 제도 개척사이다.

다.”<sup>58)</sup> 이 책은 그때의 경험에 근거하여 집필에 착수, 1900년에 탈고한 것이다. 탈고 이후 발간사이에 발견한 오류에 대해서는 ‘추기’를 넣어 정정하였다. 울릉도 부속 도서에 대한 부분도 ‘추기’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이 나온 1903년을 전후로 한국에 왕래한 일본 배는 5천 척을 헤아릴 정도였다. 이 가운데 울릉도에서 어로를 하던 500여 명 중 대부분은 3월에서 6월 사이에 임시로 와 있는 자들이었고 영구 거주자는 30명 내외였다. 당시 울릉도의 한인은 3천 명을 헤아렸다고 한다. 일본이 보기에 조선의 연해는 독점하기에 좋은 어장을 지니고 있으며 통항과 관료상의 편리함을 지닌 어장이었다. 근대기 일본은 인구 증가로 인해 탈출구가 필요하던 차였기에 이때를 기회로 하여 조선의 어업이 일본의 통어권 안에 속한다고 보고 어업 진출을 인구 배출의 한 방편으로 본 것이다. 구즈우 슈스케의 기록으로 보건대, 당시 조선인 인구는 천만 명을 밑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자원과 해산물이 풍부한데도 한인들이 어업을 할 줄 몰라 일본인의 장악을 허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분석에 의하면 조선의 통어 구역에 속하는 4도는 일천 영리(英里:마일 - 역자)<sup>59)</sup>에 달하며, 서식 회유성 어족이 매우 풍부했다. 특히 경상·전라·충청 3도가 어업에 적당한 곳이며 선박 정박에 좋은 항만도 적지 않았으나 특히 강원도가 어업하기에 좋은 지역이었다. 다만 이 지역은 배가 다니기 불편하므로 잠수기 어업을 제외하면 일본에서 출어하는 자는 많지 않다는 사실도 덧붙여져 있다.

‘울릉도’ 편목은 제 3장 ‘연해 지리’의 강원도 부분에 나온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강원도’ 항목에 ‘울릉도’와 ‘양코 島’ 편목을 함께 적고 있는 점이다. 즉 목차에서는 ‘鬱陵島(ヤンコ島)’로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

58) 서언

59) 약 1609km이다.



‘○鬱陵島’와 이어 ‘△ヤンコ島’로 나뉘어 서술되고 있다. 이전의 지리지에서는 언제나 ‘울릉도’ 항목 안에서 독도에 관한 내용이 함께 언급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양코 도’를 따로 두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양코 도’에 대한 일본 인식의 중요도를 말해준다. 여기서 ‘양코 島’는 바로 독도를 의미한다. 5대 도서(제주도, 거제도, 남해도, 진도, 강화도)에 들지 못하는 두 섬, 즉 울릉도와 양코 도가 따로 거론된 것이 이 지역이 차지하는 어업적 중요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앞에 나온 지리지 경향으로 보건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울릉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울릉도의 옛 이름은 우산국이며 지나인은 마쓰시마(松島)라고 부른다고 했다. 흔히 울릉도가 여섯 개의 대소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속설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특히 지도에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병기한 것은 큰 오류라고 보았다. 마쓰시마를 울릉도의 호칭으로 보고 있고 양코 도를 따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여기 나온 다케시마가 독도의 호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지도에 이들 두 섬 이름이 항상 병기되었다는 사실은 지리지와 지도상의 표기가 일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1903년의 시점에 울릉도 호칭이 ‘마쓰시마’로 굳어졌고 ‘양코 도’가 독도의 호칭으로 전화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지만, 한편으로는 1905년의 편입 시점에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한 사실이 역사성을 무시한 절차였음을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구즈우는 대두의 생산액이 4~500석에 이르며 동(桐)은 일본에서 마쓰시마동(松嶋桐)<sup>60</sup>이라고 칭해질 정도로 귀중히 여겨진다는 점도 적었다. 이 마쓰시마동에 관한 기록은 『最新 朝鮮地誌』(1912)에 다시 등장한다. 울릉도의 산물에 대한 기록도 이전 지리지에 비해 자세하여, 느티나무, 오동나무, 소나무, 백단, 어류 및 전복, 해서류, 우뭇가사리, 산비둘기, 용출수가 등장

60) 마쓰시마동이라는 말 자체도 울릉도의 일본식 호칭이 고래로 마쓰시마였음을 말해준다.

한다. 『朝鮮開化史』에 나온 가이바라 에키켄의 ‘속도(屬島)’설, 김옥균 개척사, 수목 별채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자료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한해통어지침』에는 최근 일본인의 거주 현황이 소개되어 있다.

“본방인은 2~3년 이전에는 그 수가 거의 300명에 달했으나 한때 본방 정부에서 퇴거 명령을 내림으로 해서 조금 감소하여 올해 봄에는 140~50명이 거주하는 데 불과하다고 한다. 이들 본방인은 대개 돛토리현에서 직접 도항한 자들로서 목재 및 대두, 우뭇가사리 수출을 영업으로 하는데, 순전히 일본형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다. 그 안에는 술과 담배, 종이, 기름과 기타 일용 생활에 필요한 잡화점이 있고, 간혹 두 세 개의 요리점을 열기도 하고 매춘부가 와서 살고 있기도 하다고 한다.”

이로써 보면, 1903년 경 울릉도에 대한 일본의 호칭으로는 ‘마쓰시마(松島)’가 정착된 듯이 보인다. 1903년 지리지에 울릉도가 ‘마쓰시마’로 기술되게 된 데는 수로지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수로지는 지리지의 출현보다 앞서 1883년부터 출현하는데<sup>61)</sup> ‘울릉도’에 대하여 ‘울릉도, 일명 마쓰시마’라고 표기한 경우가 많았고 ‘Dagelet island’를 병기한 경우도 많았다. 이전에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주로 ‘다케시마’로 호칭했었는데 수로지에서 울릉도를 ‘일명 마쓰시마’로 호칭하게 되자,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할 즈음에는 ‘마쓰시마’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로써 ‘다케시마’가 독도의 명칭이 된 것이다.

일본 에도시대에는 독도를 주로 ‘마쓰시마’로 호칭했었으나 편입 당시에는 예전 울릉도 호칭이던 ‘다케시마’로 바뀌었고, 편입 이전 수로지에는 ‘리앙쿠르 열암’ 즉 ‘양코 도’로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1886년의

---

61) 『수로잡지』 16호; 41호

『寰瀛水路誌』 역시 독도에 관한 명칭으로 ‘우산도’ 내지 ‘다케시마’ 대신에 ‘양코 도’라는 지명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양코 도(島)’는 ‘리앙쿠르 열암’의 일본식 호칭이다. 수로지와 달리 지리지에서는 ‘양코 도(島)’가 『韓海通漁指針』(1903)에 처음 보인다. 이 책에는 울릉도와 독도 관련 항목을 분리·기술하여 앞에서 언급했듯이, 울릉도에 대해서는 ‘○ 울릉도’로, 이어 독도에 대해서는 ‘△ 양코 島’라고 하여 각각 다른 기호를 넣어주고 있다. 이는 양코 도가 울릉도의 속도임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그 내용을 인용해본다.

(양코 도는 -역자) 울릉도에서 동남방으로 약 30리(里), 우리 오기국 서북에서의 거리와 거의 같은 리 수만큼 떨어져 있는 무인의 섬이다. 맑은 날 울릉도 산봉우리 높은 곳에서 이 섬을 볼 수 있다. 한인과 우리나라 어부들은 이를 양코라고 부른다. 길이는 거의 10여 정(町)이며 연안의 굴곡이 매우 많아 어선을 정박시켜 풍랑을 피하기에 알맞다. 그러나 펄갸 및 음료수를 얻기가 매우 곤란하다. 지상에서 수 척(尺) 사이를 파더라도 쉽게 물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 이 섬에는 해마(海馬)가 매우 많이 서식하고 있다. 근해에는 전복, 해삼, 우뭇가사리 등이 풍부하다. 수 년 이전 야마구치 현 잠수기선이 유망함을 믿고 출어한 자가 있었으나 잠수할 때 무수한 해마(강치 -역자)가 떼를 지어 방해하였다고 한다. 음료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족스레 영업할 수 없어 돌아갔다고 한다. 당시 계절상 아마 5-6월이 해마의 해산기에 해당되므로 특히 방해를 받지 않았는가 한다. 또한 부근에 상어잡기에 좋은 어살이 있다. 수년 전부터 5-6월 경이 되면 오이타현에서 상어잡이배(鰲繩船)가 잇달아 출어하는 경우가 있다. 작년 봄에 같은 곳에서 귀향한 어부에게서 들으니, 출어한 적은 2-3회에 불과하므로 아직 충분한 성과를 얻었다고 하기 어렵지만, 매년 상당한 어획이 있어 종래의 경험상 그 어살의 상태, 상어류 서식 모양 등으로 관찰하건대 앞으로 자못 유망한 어장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이 섬은 영업하

는 자에게는 아직 충분히 탐험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윗글로 보건대, 울릉도에서 독도간의 거리가 동남방으로 30리 떨어진 곳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일본 오키국에서의 거리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사실도 적고 있다. “한인과 우리나라 어부들은 이를 양코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는 『軍艦新高行動日誌』 1904년 9월 25일 일지에 “리양코루도 암, 한인은 이를 독도라고 쓰고 본방 어부들은 생략하여 양코라고 호칭한다...”<sup>62)</sup>고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 책은 출간 연도는 1903년이지만 서문은 1900년으로 되어 있어 이미 1900년 전후로 저자의 인식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독도를 일러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모두 ‘양코’라고 부른다고 한 사실은 ‘양코’라는 호칭이 1900년을 전후하여 정착했으며 조선에서는 ‘독도’라는 호칭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한국에서 독도에 관한 호칭은 1899년까지만 해도 우산도, 1900년 칙령에서는 석도, 그리고 1904년을 전후해서는 독도로서 등장한다. 『한해통어지침』의 언급에 의거한다면, 1900년을 전후하여 조선에서도 ‘양코 도’라는 호칭이 알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1901년 4월 1일 제국신문의 기사이다. 여기에 ‘양고’라는 섬 이름이 처음 보이는데 이 ‘양고’가 “울릉도 동남 삼십리 해중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30리를 조선의 이정으로 본다면 독도가 아닌 죽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30리가 위의 『한해통어지침』에서 말한 “울릉도에서 동남방으로 약 30리”라고 한 내용과 관계가 있다면, 제국신문의 30리는 300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독도를 가리키는 말이 되지만 한국의 신문에서 일본의 리수로 말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양고’를 독도로 볼 경우, 이 섬을 일본

62) 두 개의 암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東嶼, 西嶼로 호칭하고 있다.

이 얻었다고 한 점은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는 맞지 않는 점이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나온 자료 중에 일본 외무성이 낸 『通商彙纂』(1902년)이 있는데 이 안에 부록으로 「韓國 鬱陵島事情」이 있다. 『通商彙纂』은 외무성 통상국이 각지의 영사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간행한 것이며, 「韓國 鬱陵島事情」은 울릉도 경찰서 주재소의 경부 니시무라 게이조(西村圭象)가 부산 영사관의 시데하라 기쥬로(幣原喜重郎) 영사가 올린 1902년 5월의 보고서를 이용하여 다시 보고한 것이다. 「韓國 鬱陵島事情」은 울릉도의 지세와 한인의 상황, 선박 정박장, 일본 재류민의 개황, 상업과 어업 현황, 교통과 기후, 전염병 등에 대하여 신고 있으며 조합 규약을 함께 신고 있는데 그 안에 아래와 같은 구절이 있다.

울릉도는 강원도 울진에서 40리(里) 떨어진 앞 바다에 있는 고도로 서 둘레가 9리 반정도, ..큰 배를 정박할 만한 좋은 항구가 없고..겨우 도동과 저동에 두 세 개의 작은 만이 있을 뿐..과거에는 많은 수목이 있었으나 지금은 도민이 번식함에 따라 해안 부근은 일체 벌목하고 개척하여 농작지가 되었다. テッセミ島(죽도 - 역자)는 와달리 앞바다에 있는데 본방인은 이를 竹島라 속칭한다. 둘레가 30정(丁) 정도로 후박나무와 해장죽이 무성하지만 음료수가 없으므로 이주한 자가 없다고 한다.

또한 정석포(亭石浦) 해상에 쌍촉석(雙燭石)과 도목(島牧:섬목 - 역자)이라는 도서가 있는데 둘레가 20정이다. 본방인은 이를 관음도라 칭하며 그 산허리를 관음갑(觀音岬 - 간논미사키)이라고 하며 그 사이를 관음의 세토(瀬戸)라 불렀다. 또 쌍촉석은 세 바위가 높이 솟아 있으므로 삼본(三本)이라는 이름이 있다. 나머지 주변 해안에는 여러 개의 험한 바위가 있으나 명칭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직 광안(光岸:광암의 오류 - 역자)<sup>63)</sup>

63) 구암(龜岩, 굴바우, 구바위)이 한자화되는 과정에서 광암(光岩)으로 되었다는 설이 있다.

의 앞 면에 다와라지마(倭島)라는 것이 있으나 매우 작은 섬이다.

이 글에서 등장하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는 뗏섬(죽도 - 역자), 쌍축석, 도목(섬목 - 역자), 관음도, 다와라지마, 굴바위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울릉도 지명으로 나리산(羅里山), 추산(錐山), 나리동(羅里洞) 등이 나오며, 섬 안에서 가장 큰 내로는 남양천(南陽川), 대하천(臺霞川), 우복(遇伏), 죽암(竹岩) 등의 이름이 나온다. 이 보고서(1902)와 『한해통어지침』(1903)에 보인 지명을 대조해보면, 울릉도 이외의 지명으로서 뗏섬과 竹島, 양고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902년 보고서에서는 ‘뗏섬’이라 표기하고 이를 일본에서는 竹島라고 한다는 사실을 함께 적어 현지의 지명인 뗏섬이 처음보이는 것과 동시에 ‘竹島’를 ‘다케시마’가 아니라 ‘죽도’로 읽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 외에 여기 나오는 울릉도 지명은 아래와 같다.

道洞, 遇伏洞, 中嶺, 通龜尾, 窟巖, 山幕谷, 香木洞, 新村, 千年浦, 天府洞, 亭石浦, 乃守田, 砂工南, 沙洞, 新里, 間嶺, 南陽洞, 水層洞, 臺霞洞, 玄浦, 光岩, 羅里洞, 昌洞, 竹岩, 臥達里, 苧洞

이 보고서는 1906년 오쿠하라 헤키운이 『竹島及鬱陵島』를 쓸 때도 참고가 되었던 자료로 보인다. 마을 이름과 호수 및 인구, 나무 종류 등의 자세한 기술이 오쿠하라의 기록과 유사한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오쿠하라의 기록에는 일상조합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요시나미 오토지로(由浪乙次郎)가 조합장, 가타오카 기치베(片岡吉兵衛)가 부조합장으로 되어 있고 『통상회찬』에는 1901년 “8월 경에 조합장이 하타모토 기치조(畑本吉造), 조합 부장(副長) 가타오카 기치베(片岡吉兵衛) 등 12명이 의원으로 모두 조합원의 선거로 선출된다”고 하고 있어 서로 부합되는 사실이 많다.

어업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본도(울릉도 - 역자)의 여기는 예년 3월부터 9월 사이로 전복, 미역, 김, 석아 등 몇 종류에 지나지 않고...어업자의 대부분은 구마모토의 아마쿠사(天草), 시마네의 오키, 미에(三重)의 시마(志摩) 지방에서 도래한 자들로, 한인 어부는 전무한 모양이지만 매년 전라도 삼도(三道) 지방에서 다수의 어부들이 와서 해안에 만생한 약아(若芽:미역)를 채취한다. ..또한 이 섬의 정동 약 50해리 떨어진 곳에 3개의 소도가 있는데 이를 량코 도(島)라 하며 본방인은 마쓰시마(松島)라고 한다. 이곳에 다소의 전복이 있으므로 본도에서 출어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이 섬에 음료수가 없으므로 오래도록 출어할 수 없고 4-5일간 지나 본도로 돌아온다.

이 보고서에 나온 ‘량코 도’는 『한해통어지침』(1903)에 나온 ‘울릉도(지나인 마쓰시마), ‘양코 도’ 호칭보다 앞선 것이며, 『통상회찬』은 독도의 호칭으로서 량코 도와 마쓰시마를 둘 다 거론하고 있다. 이로써 보더라도 1902년 당시 ‘양코 도(량코 도)’는 일본의 고유 호칭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일본인은 마쓰시마라고 한다는 사실을 병기하여 오히려 전래되어 오던 고유 호칭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수리지에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 호칭이 대부분 리양코루도 열암 즉 ‘양코 도’로 되어 있고 ‘마쓰시마’는 울릉도의 호칭으로 굳어져가고 있던 점을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다.

‘양코 도’에 대해서는 『最新 韓國實業指針』(1904)에 다시 나온다. 13장 ‘수산’편에서 중요한 연해 어업지를 소개하는 가운데 강원도 안에 먼저 나오는 것이 ‘울릉도’이고 그 다음이 ‘양코 도(島)’이다. 다만 이때 ‘양코 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다루어진 것이 아니라 울릉도 항목에 병렬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울릉도에 대해서는 “무릉 또는 우릉이라고 한다. 옛날 우산국(于山國)으로 본방인과 지나인은 이를 마쓰시마(松島)라고 한다. 월송포의 남쪽 40리 해상에 있다”고 하였다. 산물과 한인 호수 및 일본인 거주자에 관한 기록이 『한해통어지침』과 대동소이하다.

‘양코 도(島)’에 대해서는 “울릉도와 우리 오키섬 중간 30리(里) 해상에 있다”고 하였다. 『한해통어지침』에는 독도가 울릉도에서 30리 떨어진 곳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울릉도와 오키섬 중간 30리 해상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해통어지침』을 전사하다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양코도’에 관해 기술한 내용은 『한해통어지침』을 요약해놓은 듯, 무인도라는 점, 빨감과 음료수가 없는 점, 근해에 전복과 해삼, 우뭇가사리 등이 나며 상어가 많지만 해마(海馬) 무리에 방해받아 좋은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최신 한국실업지침』의 편자인 이와나가 시게카는 조선협회 주사주임이었다. 이 책에는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山座門次郎)의 글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의 서문이 실려 있어 일본 정부의 식산정책 및 러시아와의 경쟁관계가 반영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은 이미 한일의정서를 체결, 러일전쟁 수행에 필요한 모든 군사적 요충지를 조선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조치해놓고 러시아와 이익을 다투던 때이다. 일본은 한반도의 운명이 일본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반드시 러시아보다 먼저 일본이 조선을 차지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있었다.<sup>64)</sup>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일본은 조선에서의 실업 개척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실업지침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으므로 나오자마자 수요가 많아 1904년 10월에 이미 3판에 육박할 정도였다.

지금까지의 지리지가 주로 울릉도와 독도 관련 내용만을 담고 있었던 데 비해, 이 시기가 되면 죽서(竹嶼) 즉 죽도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지리지가 출현하기 시작한다. 1904년 이전 지리지에서는 울릉도와 죽도, 마쓰시마를 함께 언급하여 오늘날의 죽도에 해당되는 명칭을 일본에서는 주로 竹島라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후로는 죽서(竹嶼)로 언급

---

64) 야마자 엔지로 서문



되고 있다. 『韓國地理』(야즈 쇼에이[矢津昌永]저, 1904)에서는 ‘도서’ 부분에서 울릉도에 대해 “강원도 연안에서 80해리(浬), 우리 오키 서북에서 140해리 떨어진 곳에 鬱陵島(松島)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것이 같은 지리지 안에서 ‘처지’항목에서는 다시 “울릉도는 일명 마쓰시마로 칭한다. 본도의 해안에서 80리(里)<sup>65)</sup>, 오키 서북서 140리 바다가운데 고립되어 있다...섬 둘레는 18리로 거의 반원을 이룬다.<sup>66)</sup> 섬 중앙은 북위 37도 30분 동경 130도 53분이다.”고 하였다.

앞에서는 울릉도가 강원도 해안에서 80해리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던 것이 여기서는 80리(里)로 되어 있다. 해리를 잘못 옮긴 듯하다. 울릉도의 둘레를 18리로 보았고 울릉도 경위도가 보인다.

이 지리지에는 ‘죽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울릉도를 설명하고 난 뒤에 “이 섬의 동쪽에 죽서(竹嶼)가 있다”고 하여 ‘죽서’라는 말이 지리지로서는 처음 보인다. 그리고 ‘죽서’에는 강조점이 놓여 있다. 앞서의 지리지에서는 竹島로 표기되어 있던 것이 ‘竹嶼’로 되어 있는 것은 울릉도에 대한 전래의 일본 호칭 竹島가 ‘다케시마’로 읽히고 있는 것을 의식하여 의도적으로 다르게 호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죽서 외에 독도에 비정할 만한 다른 호칭, 즉 양코 도라든가 우산도를 함께 언급하지 않아 여기서 말한 ‘죽서’가 현재의 죽도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독도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양코 도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죽서가 독도를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울릉도를 ‘松島’로 표기한 점에 비추어보면 ‘마쓰시마’의 대가 되는 ‘다케시마’가 과거 독도 호칭이던 사실을 의식, 죽도를 竹嶼로 다르게 표기한 것이므로 죽서는 죽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5) 앞의 도서편에서는 해리로 나왔다. 뒤이은 ‘오키 서북서 140리’도 140해리의 오기로 보인다.

66) 수로지의 기술내용과 유사하다.

## 2) 을사늑약 이후 지리지 서술의 변화

### (1) 침탈대상으로서의 조선과 울릉도

1905년 한국은 을사늑약으로 인해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 조선을 보호국으로 한 이후의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시각을 변화하기 시작했다. 1905년 이전에는 미개한 조선을 개발해야 한다는 개발론적 시각이 우세했다고 한다면, 1905년 이후에는 조선을 일본 관도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조선에 대한 노골적인 침탈론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리지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韓國新地理』(다부치 도모히코[田淵友彦], 1905)<sup>67)</sup> 역시 이런 인식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 다부치 도모히코는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로 한국이 일본의 관도에 들어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인식을 지니고 이 책을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뿐만 아니라 “화태섬(사할린 - 역자)과 함께 만주의 일부 같은 것을 종래 다른 나라처럼 여겨 연구하고 가르쳐왔던 것을 이제는 본방 범역(範域)의 일부로 볼 필요가 있음”<sup>68)</sup>을 역설한 것은 그러한 인식의 표출이다. 체재 면에서 보면, 지리지는 1905년을 기점으로 하여 구성방식이 지문 지리와 인문 지리, 그리고 각도 지리지인 처지(處地)로 바뀐다. 이전의 지리지도 내용상으로는 지문 지리와 인문 지리 및 각도 지방지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목차상으로는 여전히 총론과 지세, 풍토, 각도 지리의 체재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05년부터는 형식면에서도 지문 지리와 인문 지리, 처지(處地)의 체재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67) 1905년 초판 이래 1908년 4판까지 나왔다.

68) 『한국 신지리』서문

울릉도에 관한 내용은 1편 ‘지문 지리’ 안 해안선 도서(島嶼) 부분에 마양도와 함께 언급되어 있는데 일본해 안의 섬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3편 ‘처지’ 강원도 부분에 다시 나오는 ‘울릉도’는 춘천, 철원, 삼척, 죽변동, 장전진과 함께 하나의 편목으로 성립되어 있다.

울릉도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경위도가 나온다. 『韓國地理』(1904)에서는 울릉도 중앙의 경위도가 북위 37도 30분 동경 130도 53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부치는 “북위 130도 45분 내지 53분, 동경 37도 34분내지 31분 사이에 위치”한다고 보아 경위도를 뒤바꿨으며, 『한국지리』의 경위도와도 약간 다르게 되어 있다. 울릉도의 위치는 “평해군 월송포 남쪽 40여 리 떨어진 해중에 있는 고도(孤島)로서 면적은 500사방 리<sup>69)</sup> 정도”로 되어 있다. 『한국 신지리』 역시 중봉의 높이, 지질, 대두 산출액, 느티나무, 송도동, 산비둘기, 이주민의 가호, 가이바라 에키켄의 속도설 등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 개화사』와 『한해통어지침』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들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코 島’ 즉 독도에 대한 내용은 ‘울릉도’ 안에 들어가 있다.

본도에서 동남방 약 30리(里), 우리 오키국과 거의 중앙에 해당되는 곳에 무인의 섬이 하나 있다. 속칭 이를 양코 도(島)라고 한다. 길이는 거의 10정(町) 남짓이다. 연안의 굴곡이 매우 많아 어선을 정박시키기에 알맞다고 하지만 빨감과 음료수를 얻기가 매우 곤란하다. 땅을 파더라도 수척(尺)사이에서 쉽게 물을 얻지 못한다. 이 섬에는 해마(海馬)가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또한 해산이 풍부하다고 한다.

이 역시 『한해통어지침』(1903)의 내용과 유사하다.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리지 기술은 편찬자가 이전의 지리지를 답습하되 편찬자의 인

---

69) 사방 5리의 오류인 듯하다.

식에 따라 취사선택하거나 추가하는 형태를 띠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코 도’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대부분의 지리지에 적어도 1905년 편입 이전까지는 ‘양코 도’ 즉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든 이후에는 조선 개발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침탈론적 시각에서 적극적인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개발론을 일본의 국권 신장과 연결시켜 논하고 있으며, 지리지도 이 차원에서 편찬되고 있었다. 일본이 국권을 신장하려면 조약관계의 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인의 이주를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조선은 일본에게 보고라 할 만큼 각 부문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나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주를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조선의 사정을 잘 알아 이주 방침을 정하고 나아가 조선에 대한 대요와 사정을 익혀두어야 한다. 『最近朝鮮事情』(1906)은 이런 취지에서 편찬되었다. 이 지리지의 편자인 아라카와 고로(荒川五郎)는 중의원 의원으로서 “직접 한국 내지를 답사하여 그 지리와 풍속, 정치, 산업을 시찰하여” 책을 펴냈다. 특히 그는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조선의 지리적 정보만을 알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조선인의 습성과 사고방식, 최근의 정치형세, 내각구성, 정당관계, 동학당의 난, 정한론, 보호국화 과정, 산업 현황 등 조선의 내부 사정을 알고자 하였다. 그는 특히 조선의 어업에 관해서는 강치가 주요한 자원임을 지적하였고, 조선의 어업 종사자가 적으므로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진장이라고 보았다. 3장에서 이 지리지가 식민의 의의와 중요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듯이, 식민 가이드북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긴 하지만 주로 풍속과 제도에 치우쳐 있고 울릉도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다.

위와 같은 침탈론적인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은 자국의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정보도 이용하고자 하였다. 『韓國誌』(1905)는

러시아 대장성이 조사하여 편찬한 것인데 일본 농상공부 산림국이 이를 초역하여 『韓國誌』로 다시 냈다. 이는 일본의 식산에 뜻 있는 자들이 참고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내용은 주로 수산, 임업, 광업, 상업 등 생산과 관련된 내용 및 지방자치제도와 도로, 교통상태, 풍속 등을 소개하고 있어 일본이 당시 조사한 내용을 보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여행보고』(호리우치 야스키치[堀内泰吉]·다케나카 세이이치[竹内政一], 1906) 역시 조선의 내부 사정을 자세히 소개한 기행적 성격의 지리지이다. 이 단계에 오면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보기 시작하였으므로 지리지에서 특히 산업부분이 자세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실업기관으로서 교통기관과 금융기관, 세관까지를 다루는 가운데 식민화정책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일본이 한국 식민지화의 정당성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를 지리지를 통해 확립해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고래로부터의 독립국가로서의 조선을 의심한다든지,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화한 과정이 러시아와 영국의 거부로 인한 것이라든지, 문명이 개화되지 못한 미개한 국민상태임을 강조하는 식으로 의도를 지닌 채 지리지를 펴냈다. 이 때문에 지리지의 내용 구성이 식민지로서의 한국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듯한 인상을 받는다. 1906년 당시 조선의 인구는 남자 530만 여자 520만, 합계 1천 50만 정도<sup>70)</sup>였는데 일본에서는 해마다 5 - 60만 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으므로 해외 식민지 개발이 중요한 상황이었다.

울릉도는 1906년 이전까지는 강원도 울도군 소속이었으나 1906년 9월 24일에 울도군(鬱島郡)이 강원도에서 경상남도로 이속됨으로써 울릉도 역시 경상남도 관할이 되었다.<sup>71)</sup> 당시 울릉도 인구는 남자가 1916명, 여자가

70) 장지연의 『대한 신지』에는 남자 31,035,00, 여자 2,717,508명 총 5,821,008명으로 되어 있다. “총산을 2천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조사가 불확실하여 빠지거나 은폐한 것이 많을 뿐 더러”라고 하여 2천 만이 아니라고 한다. 두 기록 간 오차가 너무 크므로 다른 기록과의 대조가 필요하다.

71) 『各觀察道案』第1冊, 光武 10年 4月 29日條 報告書號外, 指令 第3號, 『구한국관보』 3570호 부

1116명, 가호의 수는 614호로 되어 있다.<sup>72)</sup>

일본이 지리지 체재를 지문 지리와 인문 지리로 구성하는 방식은 당시 한국인의 지리지 편찬에도 영향을 준 듯하다. 장지연의 『大韓新地誌』(1907) 역시 같은 구성방식인 것으로 보아 다부치의 『韓國新地理』체재를 모방한 듯한데,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 장지연은 당시 조선 인구가 2천만으로 계산되지만 580여 만 명에 불과한 것은 조사가 정확하지 않아서이며 또한 서북 간도로 이주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대한 신지지』에 의하면, ‘울릉도’는 경상남도의 ‘해만과 도서’ 편목에 실려 있는데 울릉도가 행정구역상의 편제변화로 인해 ‘울도’로 되어 있다. 울도의 위치는 북위 130도 45분에서 35분, 동경 37도 34분에서 31분으로 되어 있다. 다부치의 『한국 신지리』에 경위도가 뒤바뀌어 있는 것이 여기서도 답습되어 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다부치의 기술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다부치의 ‘울릉도’ 관련 내용은 주로 일본에서 부르던 호칭, 산물, 수목 벌채, 일본인 거주 현황, 러시아와의 벌목경쟁과 일본인의 도벌금지 및 퇴거 등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장지연은 ‘울릉도’에 대하여 우리나라 고문헌의 기록을 참조하여 쓴 것이 많다. 날씨가 맑으면 봉머리 수목이 보인다는 사실, 지증왕 때 우산국이 복속한 일, 조선조의 쇄환정책, 숙종조의 안용복 사건 등에 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울도’에 대하여 본래는 강릉군 동해의 섬임을 밝히고 있다. 다부치가 일본의 시각에서 썼다면 장지연은 한국의 시각에서 썼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즉 독도에 관한 내용만 보더라도 다부치가 ‘양코 도’라고 호칭한 데 비해 장지연은 ‘우산도’라는 고유 호칭을 사용하였다. 또한 “우산도는 울도의 동남에 있다”고 하여

록(광무 10년 9월 28일 금요일) 칙령 제49호

72) 1906년 9월 26일: 잡보: ‘鬱島戶口’ (『황성신문』)

‘울도’를 설명하는 속에서 우산도를 언급하고 있어 우산도가 독도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장지연은 독도에 강치와 해산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 내용이 비교적 소략하지만, 동해안의 도서로서 천도(穿島), 난도(卵嶋), 저도(苧島, 苧島)<sup>73)</sup> 승도(僧島) 등의 소도서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섬에 관한 일본인의 기술이 처음 보인 것은 1887년의 『朝鮮八道誌』인데, 거기에는 이들 섬이 강원도 연곡포의 소도서로서 소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초도, 제성도(梯城島), 죽도(竹島)와 함께 형도, 제도, 후도(厚島), 저도, 국도, 천도(穿島), 학도, 울도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 다른 지리지<sup>74)</sup>에는 이름만 언급되어 있던 것이 『大韓新地誌』에서는 좀 더 부연되어 있다. 이들 섬은 흡곡(통천 - 역자) 주변의 소도서를 가리키는 듯하다.

흡곡의 천도(穿島)는 둘레가 300여 보요 구멍이 있어 남북을 통하니 파도가 세며, 또한 난도(卵嶋)와 저도(苧島), 승도(僧島) 등 7개의 소도가 있고 그 북쪽은 시중대(侍中臺)이니 순찰사 한명회가 오를 때 재상에 임명 되는 명이 마침 갔기에 (시중대라-역자) 이름한 것이니 8경 중의 하나이다.

위에서 장지연이 기술한 저도, 난도, 승도 등에 관한 기록이 최초로 보인 것은 『신증 동국여지승람』인데, 통천군의 ‘산천’ 편목에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sup>75)</sup>

난도(卵島) - 군의 동해 가운데 있는데 물길이 50리이다. 사방에 석벽이 우뚝 서 있고 서쪽의 한 길만이 바닷가로 통해 그 물가로 겨우 고깃배 하나를 댈 수 있다. 해마다 3-4월이 되면 바다의 날짐승들이 무리로 모여들어 알을 낳아 기르기 때문

73) 『세종실록』 「지리지」의 강원도 간성군 통천군에는 猪島로 되어 있다.

74) 『新撰 朝鮮地理誌』 (大田才次郎 編, 1894); 현재, 『大韓地誌』(1899)

75) 『신증 동국여지승람』 제45권/강원도(江原道)/통천군(通川郡)

에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저도(猪島) - 고을의 남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물길이 5리이다.

황도(荒島) - 고을 남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물길이 2리이다.

사도(沙島) - 고을의 남쪽 바다 가운데 있으며 물길이 3리이다.

송도(松島) - 고을의 남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물길이 4리이다.

위의 내용으로 보건대, 『조선 팔도지』나 장지연의 『대한 신지지』에 나온 기술은 모두 『신증 동국여지승람』을 답습하여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 (2) 울릉도 항목의 구체화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기 몇 년 전부터는 특정 분야에 관한 정보를 실은 지리지가 출현하기 시작한다. 이른바 『韓國水産誌』로 대표되는 수산지가 그것으로 이 역시 지리지의 일종이다. 『한국 수산지』는 한국의 수산현황을 조사하여 어업 관계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어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농상공부 수산국에서 발간한 것이다. 통감부와 협의하여 조사원을 파견, 자료를 수집하여 만들었다는 서문으로 알 수 있듯이, 통감부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다. 1908년에 1집이 출판되어 총 4집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12도 연해의 어업사정, 외국인의 어업, 포경업, 수산행정, 지리정보 등을 다룬 것이며 다수의 사진을 실고 있다. 울릉도에 관한 내용은 2집(1910년)에 실려 있는데 이전까지 나온 지리지 중에서 가장 자세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는 일본에 의한 조선 강점을 전후하여 조선에 대한 일본의 사전 조사가 활발해져 많은 정보를 입수했으며 이것이 지리지의 편찬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울릉도에 관한 내용은 세 곳에서 보인다. 하나는 1집의 7장 ‘연안’의 ‘도서’ 편목이고, 다른 하나는 울릉도에 관한 사진 설명에서이며, 다른 하나는



경상남도 지리지 부분에서이다. 우선 ‘도서’ 편목의 ‘울릉도’ 설명을 보면,

강원도 먼 바다에서 40여 리(里) 떨어진 곳에 위치한 鬱<sup>76</sup>陵島(강조점 있음·역자) 폭원(幅員)은 약 5리(里) 사방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큰 섬이다. 본도는 별명이 마쓰시마(松島)라고도 한다. 중앙에 하나의 산이 우뚝하며 높이는 3208 영척(英尺), 험준한 바위가 우뚝한 것이 마치 거치(鉅齒)같다. 멀리서 바라보면 푸른 소라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다. 섬 전체에 수목이 울창하여 좋은 목재가 풍부했으나 외국인들이 남벌한 결과 근래에는 감소한 데다 전과 같은 모습은 없다. 섬은 주변이 깎아지른 절벽이라 오르기 어려우나 곳곳에 약간의 자갈해안이 있어 파도가 조용한 날에는 여기에 배를 댈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한편 ‘독도’에 대하여, 1집 7장 ‘연안’ 중 ‘동해’ 부분에 나오는데, ‘竹島(Liancourt rocks)’로 표기되고 그 위치가 나온다. 수로부고시 제 2094호에 의하면, 일본 혼슈 북서안(北西岸) 오키 열도 북서쪽에 있는 독도의 위치는 1908년 측정에 의하면, 오키 열도 북서 약 80리(浬)에 있으며 두 섬 중 東嶼(女嶋)의 위치는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인 것으로 되어 있다.

사진에 관한 설명에서는 울릉도에 대하여

일본해에 떠 있는 하나의 고도로서 울창한 숲을 지니고 있으며 진귀한 목재가 많아 예로부터 이름이 알려졌다. 지금은 대부분 벌채되긴 했지만 쓸 만한 재목이 남아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섬 주위는 대개 험준한 벼랑으로 오르기 어렵다. 특히 섬 전체에 배를 매어두기에 적당한 곳이 없긴 하지만 경치가 매우 뛰어나다. 해상에서 바라보면 가장 훌륭한 것은

---

76) 罫로 되어 있는데 ‘울’의 오류이므로 고쳤다.

북쪽 해안의 추산이다. 온 산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높이가 800척이나 되는 원추형 산이다. 그래서 추산이라 이름 붙여진 것인데 여기 실린 사진은 그 고개의 일부를 촬영한 것이다. ....

라고 되어 있다.

또한 울릉도에서의 일본인이 원래는 별목을 목적으로 도래했으나 지금은 어업이 주가 되었으며 어업은 오로지 오징어잡이라고 하였다.<sup>77)</sup>

이상의 설명을 보면 모두 ‘도서’로서의 울릉도를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행정적인 설명은 편목을 달리하여 나온다. 울릉도에 관한 행정·지리 정보는 2집 3장 ‘경상도’의 남도 ‘울도군’ 편목에서 다루고 있는데, “동해의 한 고도(孤島) 울릉도를 군으로 했다. 울릉도는 무릉도 혹은 우릉이라고도 한다. 원래 강원도에 속해 울진현 소관이었다. 군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이와 동시에 교통관계상 강원도에서 나누어 본도로 편입시켰다.”고 하여 울릉도의 연혁이 먼저 소개되고 있다. 울릉도가 울도군으로 된 시기가 거의 10년이나 늦게 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울릉도는 북위 37도 36분내지 32분, 동경 130도 47분내지 54분 사이에 위치하며 반원형을 이루고 있다. 그 폭원은 동서남북 모두 서로 대등하며 가장 긴 거리는 2리(里) 28정(町)정도, 주회(周回)는 약 18리(浬)이다. 가장 높은 지점은 3230척(呎)으로 중앙부에서 점점 남쪽으로 편재해 있다...”라고 했다. 그 이하는 ‘도서’ 편목의 설명과 유사하다. 울릉도의 위치와 지세에 관한 기술이 같은 지리지 안에서의 ‘도서’ 편목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이전의 지리지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 수산지에는 울릉도의 여러 지명이 나타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표적인 울릉도의 지명인 도동, 통구미, 남양동 등이 적혀 있고 20여

---

77) 『한국수산지』 2집

개 부락이 3면으로 구분되어 소개되어 있다.<sup>78)</sup> 울릉도의 지명에 대해서는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1882)와 부속 지도에 주로 나타나 있었을 뿐 일본인의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참고로 1882년부터 1910년 사이의 한국 자료에 나타난 울릉도 지명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sup>79)</sup>

羅里洞 道洞 通九味洞 龜岩洞 沙洞 石門洞 長興洞 天府洞 台霞洞 平里洞 鶴圃洞 亭洞 玄圃洞 古船昌 南陽洞 石圃洞 新興洞 玉泉洞 沙工里 雄通浦 山幕谷 臥達里 香木洞 古船昌 南面 北面 西面 광암리 구암 말바 위쥬사골 대방위\*

『한국 수산지』 2집에 기록된 지명은 아래와 같다. 원문을 현대어 표기로 하여 적기로 한다.

南面 - 亭洞(모동), 都洞, 沙洞(사동), 玉泉洞(옥천), 新里(신리), 長興洞(장흥동)  
 西面 - 通龜洞(동기미), 石門洞(석문), 南陽洞(남양동), 窟巖洞(글바위), 南西洞(남서동), 鶴浦洞(학포동), 臺霞洞(대가동)  
 北面 - 玄圃洞(현포동), 新村(신촌), 光巖(광암), 錐山(쥬산), 昌洞(창동), 竹巖(죽암), 亭石浦(정석포)

이들 지명에서 특이한 것은 지명을 한자로 쓰고 괄호에 한글로 써 넣은 것이다. 그리고 한자 지명 옆에 일본어 후리가나를 달아 놓아 발음을 써

78) 1907년에 발간된 오쿠하라의 『竹島及鬱陵島』에도 울릉도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도동, 저동, 와달리, 천부동, 죽암동, 신촌동, 현포, 창포, 대하동, 남양동, 통구미, 장흥동, 옥천동, 사동이 나와 있다.

79) 김기혁, 『울릉도 독도 고지도첩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조선 지리지자료』(1910)

놓고 있는 점 역시 특이하다. 한자 옆에 붙인 후리가나를 일부 한글로 옮겨 보면 아래와 같다.

- 亭洞 - 모시계
- 沙洞 - 아래계사
- 南陽洞 - 고우리켄
- 玄圃洞 - 가몬사키(검은사키 - 역자)
- 錐山 - 송곳산
- 昌洞 - 에이센차
- 竹巖 - 라바오(라바위 - 역자)
- 亭石浦 - 청포동

亭洞(모동)이 모시계, 사동이 아래계사, 현포동이 가몬사키, 추산이 송곳산, 창동이 에에센차, 죽암이 라바오, 정석포가 청포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들 한자의 뜻을 한글로 풀어 놓은 것이다.

아울러 『韓國水産誌』 2집에는 여러 사진이 실려 있는데, 위에 보인 울릉도 관련 지명 역시 일본어로 아래와 같이 풀어놓았다.

亭洞(모시계), 南陽洞(고우리켄), 錐山(송곳산)

또한 “학포동은 과거 소황토포, 대하동도 옛 이름은 황토포로 칭했다. 이곳은 본도(本島) 서북각의 서남측에 있으며 이 섬 북서각에 황토금말(黃土金末)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북면에 속한 죽암, 정석포 등 일대를 총칭하여 천부동(天府洞)이라 하는데 대개 문서상[成冊上]의 마을 이름으로 죽암, 정석 등은 그 일 부락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부락의 옛 이름을 소개하여 유래를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위의 사례로 볼 때 일본이 당시 울릉도 지명을 쓸 때 고유의 한글 지명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것들을 문서상으로 표기하기 위해 다시 한자로 써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자로 된 표기는 대개 고유 호칭을 훈차 혹은 음차한 것이다. 저동을 모시개로 푼 것이나, 추산을 송곳산, 현포를 검은사키로 풀어놓은 것은 바꿔 말하면 울릉도에서 불리던 고유의 한글지명이 있었으며 일본이 이들 고유한 호칭을 표기하기 위해 한자음을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호칭의 성립과정을 ‘돌섬’의 ‘석도’ 표기와도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즉 ‘석도’ 호칭의 경우, 한자 호칭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돌섬’이라는 현지 지명이 먼저 있었고 이를 문서에 표기하는 과정에서 석도로 성립된 것이다. 이런 용례는 1900년을 전후한 대한제국 칙령 반포의 상황에서 ‘돌섬’ 혹은 ‘독섬’이 ‘석도’로 기재되는 과정을 추론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지만 지명에 관한 것은 본고의 주제가 아니므로 더 이상 다루지는 않겠다.

1910년 당시 울릉도의 관아는 나리동<sup>80)</sup>에 있던 것이 도동으로 옮겨졌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 지리지에서 중요한 것은 울릉도 주변도서에 대한 언급이다.

가장 큰 것은 북동측에 있는 죽서(竹嶼)로서 최고점은 424척(呎), 이 다음으로는 북방 즉 본도의 북동쪽 끝부분에 접한 서항도(鼠項島)이다. 북쪽 해안 약간 중앙에 궁형의 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바위가 있는데 공암이라 이름 붙였다. 매우 눈에 띈다....<sup>81)</sup>

여기 나온 서항도는 부속지도인 「울릉도 전도」에는 ‘서정도(鼠頂島)’로 되어 있다. ‘도항(島項)’을 잘못 전사하여 ‘도(島)’가 ‘서(鼠)’로, ‘항(項)’이

80) 태하의 오류인 듯하다.

81) 『한국수산지』 2집 3장 경상도 울도군

‘정(頂)’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도항 역시 섬목의 한자식 표기이다. 또한 이 수산지에 나오는 ‘죽서’는 오늘날의 죽도를 말한다.<sup>82)</sup> 이로써 ‘죽도’가 일본에서 점차 ‘죽서’로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수산지는 “수로지에서 기술한 바에 의하면, 수심을 재려 해도 거의 직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저울추가 바닥에 닿지 않는다<sup>83)</sup>고 한 것으로 보아 연안의 경사가 급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하여 수로지를 원용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수산지는 일본과의 교통관계에 대해서도 수록하고 있는데, 울릉도는 호키 국경에 이르는 곳이 가장 가깝고, 순풍이면 하루 반 만에 도항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울릉도에서 부산까지는 177리(浬), 죽면까지는 70리(浬), 호키까지는 186리(浬)로 보았다.

울릉도의 호구에 대해서는 1909년에는 섬 전체에 902호가 있으며 인구는 4995인, 이 중에 남자는 2742인, 여자는 2253인이라고 하였다. 1904년 기록에는 울릉도 가호가 85호, 260인, 1905년 말에는 110호, 366인이었음을 밝히고 1910년에는 792호, 4629인으로 급증했다고 보았다. 이는 원래 종래의 통계가 완전하지 못한 데 기인하지만 이주자로 인해 증가하게 된 것도 사실이라고 보았다. 이렇듯 인구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 울릉도의 물산이 풍부하기 때문임도 지적하였다.

울릉도민의 주 생업은 농업이고 어업은 채조(採藻)에 머무르지만 최근에는 일본 거주자에게 배워 중등 이하의 농민들이 오적어(오징어 - 역자)를 경영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당시 울도군의 보고에 의하면, 어업을 겸했던 자가 480호, 2095인(남자 1337, 여자 758)으로 이는 섬 전체 주민의 과반수에 달한다.

일본인 현황을 보면, 1909년 말 현재 224호 768인인데, 남자가 410인, 여자가 358인이다. 대부분 시마네현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도 오키섬 사람

82) 2집 사진에는 죽도로 표기되어 있어 호칭에 혼란을 겪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3) 1907년 『조선 수로지』를 말한다.

이 가장 많다. 의사와 증매상, 잡화상, 어업, 선원, 목수, 벌목꾼, 기타 각종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일찍부터 자치단체를 조직했으므로 대부분 기관을 갖추고 있었다. 소학교는 이미 1906년에 개교되었다. 오쿠하라가 1906년에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일본인은 1906년에 300명을 웃돌고 있었으며 학교는 임시 교사가 폭풍으로 인해 폐교된 상태였고, 자치단체인 일상조합을 두어 운영하고 있었다. 초기 일본인의 울릉도 도래 목적은 벌목과 제재가 주 목적이었으나 1903년 이래로는 근해의 오징어 서식의 풍부함에 눈을 떠 채주자가 증가하였다. 울릉도의 이원(利源)은 예전에는 삼림이었으나 이미 다 고갈되었고 1910년 당시는 해산물이 중요 이원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해산물은 오적어가 제일 많고 기타는 김과 미역, 우뭇가사리[天草], 전복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건대, 수산지인만큼 수산업에 대한 기록이 자세함을 알 수 있다.

오적어의 어기는 5월에서 11월까지의 7개월간, 성어기는 6월경부터 9-10월 사이이며 섬 사람들이 잡기 시작한 것은 3년 전부터인데, 1910년 당시는 매우 많아졌다고 한다. 김과 미역은 울릉도민이 채취해왔지만, 최근에는 일본인도 채취에 종사하되 일본인은 미역 채취를 도민과 공동으로 할 뿐 단독으로 종사하는 일은 없다고 보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체로 울도군의 일반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우뭇가사리와 전복은 일본인 채포에 위임했고 울릉도민은 이에 종사하는 자가 없었다. 일본인은 잠수기 또는 갈고리로 채포하는데, 잠수기는 부산에서 빌려온다. 종전에는 매년 두대 또는 3-4대를 사용했으나 근래에는 수확이 감소하여 한 대를 사용하는 데 머물고 있다는 사실도 적었다. 울릉도 거주자에 따르면, 수산물 어종이 수 종에 불과하여 일상 식탁에 오르는 것은 오적어뿐이고 기타는 잡어에 불과하다고 했다. 어선은 울릉도 사람이 소유한 보통 범선 30척, 해조류 채취에 사용하는 작은 배 200척, 일본인 소유의 보통 어선 120척, 모두 350척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듯 일본 강점을 전후하여 울릉도에서의 수산업은 일본인에 의해 거의 독점된 상태였고 극히 일부만이 조선인에 의해 행해지고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병합 전후 지리지에는 몇 가지 변화가 보인다. 첫째로는 행정 구역상의 큰 변화로, 1독부 13도 체제가 된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리지는 조선의 위치를 명기할 때 일본과의 관계 안에서 언급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제국의 보호국으로서 아세아 동부의 반도이다...위치는 동경 124도 39분에서 동경 130도 42분에 이르며, 북위 33도 7분(제주도의 속도 깃프왈도)에서 시작되어 북위 43도 2분에서 끝난다.  
(조선잡지사 편, 『최근 한국요람』, 1909)<sup>84)</sup>

우리 대일본제국의 영토가 된 조선의 위치는 우리 일본 본주의 거의 서쪽에 해당,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가늘고 길게 대륙에서 돌출해 있는 반도입니다. 즉 동에는 일본해, 서쪽으로는 황해, 남으로는 조선해협을 사이에 두고 우리 서해도의 북방인 이키(壹岐), 쓰시마(對馬) 두 섬과 서로 마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 신지지』, 아다치 리쓰엔[足立栗園], 1910)

‘울릉도’ 명칭이 1910년 『최근 조선요람』에는 ‘울릉기(鬱陵崎)’<sup>85)</sup>로 되어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또한 이 시기 지리지의 대부분은 한일병합의 시말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안과 항만을 논할 때는 러일전쟁을 언급하고 있다. 통감부가 설치된 후 1907년 7월 24일 한일 신협약이 체결된 뒤에 일본은 경성에 통감부, 지방에는 종전의 관찰부 외에 이사청을 두어 통치하기 시작했다. 1909년 7월에는 일본은 한국정부로부터 사법 및 감옥사무를 위탁받아 통감부 정치를 확대하면서 경찰권마저 장악하였다. 그리하여 부

84) 1909년에는 『최근 한국요람』이었는데 개정판에서는 제목이 『최근 조선요람』으로 바뀌었다.

85) 앞 책, p. 399.



산 이사청이 경상도 남부와 동부, 강원도 동부를 관할하고 원산 이사청은 강원도 동북부를 관할하게 되었다. 『조선 신지지』(1910)는 그간의 변화를 잘 기록하고 있다.

『조선 신지지』 3장 ‘지세와 도서’에 의하면, 울릉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강원도 동방 해상 80리(里) 즉 오키도 서쪽 140리 해중에 울릉도라고 하는 하나의 큰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둘레가 18리(里)나 되고 섬 전체가 산을 이루어 수목이 울창하여 목재가 많이 납니다. 연해에는 어류가 많이 납니다. 이 섬은 마쓰시마(松島)라고도 하는데 우리 구 막부시대에는 밀항자가 있어 한때 소동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이 섬의 동쪽에 작은 竹嶼(다케시마)라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울릉도의 위치와 둘레, 옛 이름을 기록하고 있으며, ‘죽서(竹嶼)’에 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죽서’라고 한 것으로 보아 오늘날의 죽도(竹島)를 이르는 듯하지만 다른 기록에서는 대부분 ‘竹島’로 쓰고 있는데 비해 여기서는 후리가나가 ‘다케시마’로 되어 있어 독도를 말하는 지 확실하지 않다.

### 3) 1911~1945년: 울릉도 지명의 세분화와 ‘양코 도’ 호칭의 정착

#### (1) 병합 후에도 ‘리양코루도’호칭 잔존

1910년 일본은 조선을 강제 병합하면서 더 이상 개발대상이 아닌 침탈 대상으로 인식한다. 이에 지리지에서 ‘척식’이 편목으로 포함되고 조선의 행정구역 및 지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最近 朝鮮要覽』(조선잡지사 편, 1910)은 다른 지리지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중요한 조약 및 법령을 싣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3도로 구획을 나누었고 조선에 있는 총

호수는 2,333,087명(한국인), 37069명(본방인), 인구는 9,781,671명(한국인), 126,432명(본방인) 인구 총계는 991,652<sup>86)</sup>명으로 보았다. 그러나 울릉도에 관한 내용은 없다. 본래 이 지리지는 한 해 먼저 나온 『最近 韓國要覽』의 개정판이다. 서명에 1909년에는 ‘한국’이 붙어 있던 것이 1910년에는 ‘조선’ 되어 있다.

1910년에 통감부에서는 『韓國通覽』을 펴냈다. 지리 농업, 공업 등 산업 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산’과 ‘공업’ 사이에 ‘척식 사업’에 관한 편목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재정과 금융기관, 금리, 물가, 공업 소유권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편목 등 경제 관련 편목이 눈에 띄게 많은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통감부 소속 관서 및 직원, 한국정부 직원, 한국정부에 고용된 일본관리 등을 다루고 있어 통치를 위한 정보획득에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지방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어 울릉도에 관한 내용도 싣고 있지 않다.

『朝鮮誌』(요시다 히데사부로[吉田英三郎], 1911)는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제자(題字)하고 백작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가 서문을 써서 식민정책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속지도로 「朝鮮誌附圖」가 실려 있다. 이때부터 ‘경찰’과 ‘사법’ 등의 편목이 처음으로 보이며 이들 편목은 이후의 지리지에도 대부분 나타난다. 울릉도에 대해서는 13장 경상남도 ‘울도군’에서 다루고 있는데 자세한 편이다. 우선 울릉도의 연혁을 기술한 뒤에 기후, 주민, 산업, 가호 등을 기술하고 있는데, 울도군이 울릉도 일원을 관할하며, 무릉 또는 우릉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도 적었다. 울릉도가 부산에서 170리(浬), 강원도 울진현에서는 80리(浬) 떨어져 있으며 동서의 거리는 5리(里), 남북으로는 4리, 넓이[廣袤]는 9평방 리로 되어 있다. 성인봉, 도동항, 수목 벌채 상황, 경지 정보 삼림 면적, 시마네현

86) 원문이 불명확하여 마지막 숫자는 알 수 없다.

사카이항에서 매일 오는 증기선 현황 등을 신고 있으며, 육상 교통이 불편한 점, 상점이 없이 물물교환 위주로 경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어업이 유망하고 어업인 대부분이 강원도 연안과 경상북도 이주자인 점, 무학자가 다수이며, 농업이 주로서 감자와 옥수수를 혼식한다는 점을 적고 있고, 해산물의 종류와 임산 등의 내용까지 기술하고 있어 1905년 이후 증가된 정보를 반영하여 수록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울릉도 소속이 1907년 강원도에서 경상남도로 이속한 뒤 오늘에 이른다고 했는데 1906년의 오류인 듯하다. 조선인 호수는 1040여 호, 인구는 6400인, 일본인은 300여 호 1100여 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지리지에서 특이한 것은 ‘도동’에 관해 아래와 같이 따로 기술하고 있는 점이다.

섬의 남쪽에 있는 유일한 소항구이다. 수심은 5길 정도이지만 만 안이 협소하고 암초가 많으며 파도가 거칠어 배를 묶어두기에 편리하지 않다. 군청 소재지로서 내지인은 주로 이곳에 거주한다. 호수는 130호, 인구는 650명이다.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하여 1년의 어획고는 15 - 6만원이다. 군청 외에 학교와 조합, 우편소, 순사 주재소, 소학교가 있다.

『最新 朝鮮地誌』는 1912년 당시 경성에 세운 일본인 출판사 일한서방이 편찬한 지리서로서, 조선이 병합되자마자 단독으로 된 조선 지리지의 필요성을 느껴 준비에 착수하여 2년에 걸쳐 나온 것이다. 이 지리지 역시 체제는 자연 지리와 인문 지리, 각도 지리로 구성되어 있다. 1편 ‘자연 지리’ 10장 ‘도서(島嶼)’ 부분에 섬 이름을 열거한 뒤에 유명한 섬을 다시 쓰고 있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울릉도 - 거문도 - 신미도(身彌島) - 가도(椴島)이다. “일본해에는 울릉도, 려도(麗島), 마양도(馬養島) 등의 소도가 있다”고 한 뒤,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보인다.

이 중에서 저명한 것에 대해 기술하자면, 울릉도는 내지인이 소위 마쓰시마(松島)라고 하는데 강원도 평해군 월송포에서 동북으로 40여 리(里) 떨어진 바다 가운데 있는 하나의 고도이다. 동서가 5리(里), 남북이 4리로 면적은 대략 9평방 리이다. 중앙에 솟아 있는 하나의 봉우리를 성인봉이라고 한다. 해발 약 1700척(尺)이다. 남별한 결과 과거 같은 모습은 없고 약간의 수목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 나오는 느티나무는 내지에서는 마쓰시마동(松島桐)이라 불리면서 진귀한 나무로 여겨지고 있다. 이 (울릉도 - 역자) 부근에 일본해전으로 이름이 알려진 로크(rock-역자) 리양코루도가 있다.

『韓國新地理』(1905)에도 ‘마쓰시마동’, ‘양코 島’라는 호칭이 나왔지만 ‘로크 리양코루도’란 호칭이 지리지에 나온 것으로는 수로지를 제외하면 이것이 처음이다. ‘로크 리양코루도’는 ‘리양쿠르 락스’를 이르는 것으로 리양코루도 열암이라고도 한다. 일본은 이를 줄여서 ‘양코 도’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울릉도 부근에 일본해 해전(海戰)으로 이름이 알려진 로크 리양코루도가 있다”고 한 것은 울릉도 부근의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 기술은 독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1905년에 독도는 이미 일본 자국령으로 편입되었으므로 한국 지리지에서 등장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위의 기술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한국 지리지에서 이 섬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다루어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로크 리양코루도’는 1894년 일본 해군성 수로부에서 발행한 『朝鮮水路誌』에서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島), 독도를 리양코루 열암’이라고 한 이래, 대부분의 지리지에서 울릉도를 ‘마쓰시마’, 독도를 ‘리양코루도 열암’ 혹은 ‘다케시마(竹島)’로 기술하고 있었으므로 독도를 가리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조선의 ‘도서’ 편목에 서술되어 있는 이 내용은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 현으로 편입한 뒤에도 여전히 ‘조선의 섬인 울릉도에 부속된 도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다만 1912년 당시에는 울릉도가 경상남도 소속인데 여기에는 강원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 지리지에는 조선의 위치가 “극동은 울릉도 동단 동경 130도 54분, 극서는 압록강구 신도의 서단 동경 124도 13분, 극남은 제주도 남단 북위 33도 12분, 극북은 함경북도 북단 북위 42도 2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이 당시 조선의 극동을 동경 130도 54분으로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크 리앙코루도’를 언급한 것, 그리고 1905년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새로 명명했으면서도 독도의 호칭을 ‘로크 리앙코르도’라고 기술한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준다. 하나는 조선 지리지에 표기된 경위도가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영토 범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기술이 바로 독도를 고유영토로 보는 인식의 희박함을 말해준다는 점이다. 이 책의 교열을 맡았던 조선총독부 관리 우에다 이치로(上田駿一郎)는 1909년에 학부 편집관, 1911년에는 조선총독부 촉탁, 1915년에는 조선총독부 편수관으로서 『(공립보통학교 교원) 강습회강연집』(1911년)의 「朝鮮地理」 부분을 담당하는 등 조선 지리 분야 연구에 관여해 온 인물이므로 이 책 편찬에 조선총독부가 깊이 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어 나온 『朝鮮開拓誌』(하라다 히코구마[原田彦熊]·고마쓰 덴로[小松天浪] 공저, 1913)는 각 도에 관한 지지를 수록하고 있지 않아 울릉도에 대한 내용도 실려 있지 않다. 지리지로서의 대략을 기술하고 있지만 기업가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에서 편찬된 책이므로 내용이 주로 산업 부분에 치우쳐 있다. 다만 울릉도에 대한 내용은 수산업에서 언급되어, 경상도 안에 소속된 어업 근거지로서만 기술되는 데 머물고 있다. 뒤이은 박은식의 『韓國通史』(1915)는 일본인 편찬이 아닌 지리지인데도 울릉도 내용이 소략하다. 본래 지리지라 아닌 역사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따라서 한국 역사서의 내용을 요약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sup>87)</sup>

## (2) 행정구역의 재편과 울릉도 지명변화

울릉도와 독도 관련 지리지는 한일병합 이후 행정구역상의 편제 변화로 인해 많은 변모를 겪는다. 울릉도의 행정관할은 1906년에 강원도에서 경상남도로 이속되었다가 다시 1914년에는 3면 9개동으로 재편되어 경상북도로 이속되는 변화를 겪는다. 조선 총독부는 자치행정의 기초를 확립한다는 미명 하에 법규를 제정하는 한편 지방행정 구역의 일람을 만들고자 하여 신규 군·면·리의 명칭을 변경하는 작업을 한다. 이때 그 명분은 “신구 명칭의 변경에서 생기는 당분간의 불편은” 있겠지만 “장래 행정상의 진보에 수반, 크게 편의함이 있을 것”<sup>88)</sup>에서 구하였다.

『新舊 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 名稱一覽』(오치 다다시치[越智唯七] 편, 1917)은 이런 명분하에 나온 것이다. 이 일람에 의하면, 울릉도의 행정구역은 1913년에 조선총독부령 111호에 의해 변경 근거가 성립되며 그로써 울도군이 경상남도 소속에서 경상북도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변경된 제도는 1914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었다. 행정구역 재편 후 울도군은 3면 9개동으로 편제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경상북도-울도군(면수 3, 동수 9) 남면 도동

-서면(3) 남서동: 경남 울도군 서면 남서동, 구암동

태하동: 경남 울도군 서면 태하동, 학포동, 태하동<sup>89)</sup>

남양동: 경남 울도군 서면 통구미동,<sup>90)</sup> 석문동, 남양동,

서면, 남면 장흥동 일부

87) “울릉도는 삼척 해중에 있으니 둘레가 100여리 되는데 옛날 고 우산이란 왕의 나라요 강원도에서의 거리가 800리더라, 수목이 무성한 고로 큰 재목이 많으며 복숭아 열매는 굵기가 큰데 같으며 고양이는 개와 같이 큰 것이 많고 또 어산(魚山)도 많더라.”

88) 『新舊 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 名稱一覽』 서문

89) 한자로는 台霞洞으로 되어 있다.

90) 通龜味洞에서 通九味洞으로 바뀌어 있다.

-남면(3) 저동: 경남 울도군 신흥동, 저동 일부

도동: 경남 울도군 남면 도동, 저동, 사동 각 일부

사동: 경남 울도군 남면 옥천동, 사동, 장흥동 일부

-북면(3) 현포동: 경남 울도군 북면 현포동, 평리동

나중동: 경남 울도군 북면 나중동<sup>91)</sup> 일부

천부동: 경남 울도군 북면 천부동, 석포동, 나리동 일부

이 외에도 이 자료에 의하면, 조선의 동서의 넓이는 70리 내외, 좁은 곳은 40여리, 남북으로 가장 긴 곳은 190리, 짧은 것은 150리 내외로 되어 있다. 경위도는 동경 124도 18분(극서 압록강 삼각주 서단)에서 시작하여 130도 54분(극동 울릉도 동단), 북위 33도 12분(극남 제주도 남단)에서 43도 2분(함경북도 북단)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朝鮮地誌資料』(조선총독부, 54책)는 필사본으로 되어 있다. 일제가 통치를 위해 1909년에 전국 지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울도군이 경상남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아 1906년 이후 1914년 이전 자료로 볼 수 있다. 일본이 1910년부터 조선 지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 1914년에 마무리 했다고 하므로 1914년 이후의 자료로도 볼 수 있다.

지명은 한자와 언문을 병기하고 있어 한자화하기 전 순우리말 지명을 알 수 있다. ‘비고’를 붙여 이칭(異稱)내지 그 마을의 소속관계를 밝히고 있다. 울릉도에 대해서는 5권 경상남도 부분에 울도군이 들어가 있되, 남면과 서면, 북면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산명과 계(溪)명, 천(川)명, 치(峙)명, 동(洞)명으로 세분하여 신고 있다.

지명을 적어보면, 남면의 동명은 도동, 사공리, 저동, 주사곡, 신흥동, 내수전, 와달리, 사동, 내평전, 옥천동, 장흥동, 신리, 연화동이다. 서면의 동명은 석문동, 남양동, 구암동, 나팔등(嶺), 학포동, 마암, 산막곡, 태하동, 향

91) 한자로는 羅重洞으로 되어 있는데 나리동의 오류인 듯하다.

목동이고, 북면의 동명은 현포동, 응통포, 평리동, 신촌, 광암, 나리동, 알봉, 추산, 천부동, 고선창, 석포동, 죽암으로 되어 있다. 이들 지명은 순한글 지명을 음차 혹은 훈차하여 한자화한 것이다. 이 밖에 약 100여 종의 토산물 이름이 실려 있다.

이 지리지에서 한자화된 지명 가운데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나온 ‘석도’와 관련된 어문학적 시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朝鮮地誌資料』 16 ‘전라북도’편에 들어 있는 지명들이다. 이 자료에는 한글을 그대로 음차내지 훈차하여 한자화한 것이 무수히 많다. 그 중에서도 ‘돌’ ‘독’의 한글을 ‘石’ ‘獨’으로 한자화한 것과 관련지을 수 있는 것을 들어보면, 선돌 → 立石里, 독매들 → 獨山坪, 독보들 → 石湫坪, 독보 → 石湫, 선독거티 → 立石坪, 독정이 → 石亭坪, 독다리 → 石橋坪, 독골재 → 石洞峙 등의 표기화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독보 → 石湫, 독골재 → 石洞峙 등에서 보듯이 ‘독’을 ‘石’으로 표기한 것이 있는가하면 독매들 → 獨山坪의 경우처럼 ‘독’을 ‘獨’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다. 이런 용례는 바로 대한제국 칙령에 나온 ‘석도’가 ‘독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논거가 된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펴낸 지리지도 돌섬 → 석도, 독섬 → 석도 → 독도로의 전화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最新 朝鮮地理』(후지타 게이타[藤戶計太] 저, 1918)는 요시다 에이사부로(吉田英三郎)의 『朝鮮誌』 이후의 최근 정보를 조선 여행자와 경영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흑룡회 회원인 후지타가 펴낸 지리지이다. 저자는 행정구역 개정 후 최근 지리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존 문헌을 참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 관민에게서도 질정(質正)을 받아 펴내는 방식을 취했다. 지명의 칭호는 언문에 일본 가나를 붙이고 조선 독음(讀音)을 부기했음이 범례에 나오듯이 ‘鬱陵島(울릉도)’라는 형태로 되어 있다.

울릉도는 경상북도의 도서로서 유일하게 거론되는 지명으로 나오며,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 호구는 371호, 인구 1231명, 조선인은 호구



1403에 인구 8392명으로 되어 있다. 편목으로 ‘울릉도’를 따로 두어 설명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 속해 있으며 무릉, 우릉으로 불린다는 점, 3개 면으로 되어 있다는 점, 1884년 개척사 이규원이 도장을 두고 개간시킨 점, 1901년<sup>92)</sup>에 울도로 개칭한 사실 등이 수록되어 있다. 울릉도와 부산과의 거리는 177리(浬), 포항과는 150리(里)<sup>93)</sup>, 울진과는 80리(浬)<sup>94)</sup>, 호키와는 186리(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서남북의 거리 등을 비롯하여 기타 내용은 『朝鮮誌』와 유사하다.

『朝鮮誌』의 내용에 덧붙여 울릉도의 부락은 남면이 가장 많고 서면, 북면 순이며 교통은 울진군 죽변만에서 오는 것이 편하다는 사실을 추가하였다. 각 동의 호구 수와 인구 수를 적었다. 1918년의 일본인은 도동(736명)에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조선인은 사동(1073명)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新舊 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 名稱一覽』에서는 나중동으로 되어 있던 것이 『最新 朝鮮地理』에서는 나리동(羅里洞)으로, 태하동은 새하동(璽霞洞)으로 되어 있다. 성인봉 해발이 1800척(尺)이며 정상은 미륵산이라고 부른다는 사실도 적었다. 사당은 만호(萬顛)<sup>95)</sup> 김환(金丸)의 통인(通引)과 관기(官妓)를 제사지내는 곳으로 춘추 두 번 지낸다고 한다. 울진 만호가 김환 등 70인을 데리고 나온 사실을 잘못 기록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최신 조선지지』(조선금만주사 편찬, 1918)는 상편에는 일반지리 정보를, 하편에는 지방지를 실고 있다. 교과용 참고서로 활용하기 위해 낸 것으로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과 농상공부의 협조를 받아 펴냈다. ‘울릉도’는 경상북도에서 다루고 있는데, 조선의 최동단에 있는 섬으로 북위 37도 36분내지 32분, 동경 130도 47분내지 54분 사이에 위치하는

92) 1900년의 오류이다.

93) 원문에 里로 되어 있는데 浬의 오류인 듯하다.

94) 현재 울진 죽변에서 울릉도간 거리는 216.8킬로미터 약 540여 리이다.

95) 萬戶의 오류인 듯하며, 김환은 남호 혹은 남희의 오류로 보인다.

것으로 되어 있다. 강원도 울진에서는 해상 약 90해리(浬), 부산과는 180해리, 마쓰에와는 180해리 떨어져 있다고 보았다. 동서남북이 모두 폭이 같다고 보고 있으며, 최장 거리는 2리 28여 정, 둘레는 약 10리(浬)라고 보았다. 남동쪽에 도동이라는 하나의 작은 만이 있지만 풍량이 조금만 세도 배를 정박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다른 지리지 내용과 대체로 유사하다. 도청 외에 경찰서, 우편소, 공립소학교가 있다고 한 것으로 보건대 요시다의 『朝鮮誌』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최신 조선지지』는 특이하게도 일본인의 도래 내력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다. 일본인이 다수 울릉도에 온 것은 1896년 경이며, 주로 벌목과 제재를 목적으로 왔으나 물품 교역 등을 통해 정주 기반을 계획했으며, 해마다 도래자가 급증하여 통치기관이 필요해져 일상(日商)조합을 조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적고 있다. 그 후 러시아의 도래로 일본인이 감소했으나 1902년 오징어 서식이 풍요함을 알게 되자 매년 정주자가 증가하게 된 연혁도 적혀 있다. 이런 내용은 『韓國水産誌』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新編 朝鮮地誌』(히다카 유시로[日高友四郎], 1924)에는 울릉도가 경상북도 소속으로 되어 있다. 이 지리지는 홍문사(弘文社) 사주의 의뢰로 편찬된 것인데 조선총독부 남작 사이토 미노루(齋藤 實)와 정무총감 시모오카 슈지(下岡忠治)가 제자(題字)한 것으로 되어 있어 조선총독부가 관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리지 역시 편찬 목적은 조선의 무궁한 개발 전망을 강조하여 일본인의 이주를 장려,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있었다. 또한 기존의 조선 지리지에 보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도 주요한 편찬 목적 중의 하나였다. 즉 “종래 간행된 조선 지지가 지도와 면적, 해안선 기타 지지(地誌)의 기초라 할 만한 부동(不動)의 숫자에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조선 총독부 임시 토지조사국의 조사보고에 기초하여 편찬”한 것이다.

이 지리지 역시 기존의 지리지와 별 차이는 없다. 1편 자연지리 해안편에 “도서는 강원도 울진 동쪽 약 35리(里)에 울릉도가 있는 외에 특기할 만한 도서는 없다.”고 했고, ‘도서’편에는 동해안에는 울릉도와 마양도를 제외하면 거의 거론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3편 지방지에서 울릉도가 나오는데, 연혁에 대하여 “본도(本島)는 무릉 혹은 우릉이라고 한다. 원래 강원도에 속해 울진현(지금의 울진군) 소관이었으나 교통 관계상 강원도에서 갈라져 경상남도로 편입되었다가 다시 경상북도로 편입되었다”고 하고 있다. 위치에 대해서는 “본도(本島)는 조선의 최동단으로 동경 130도 47분 내지 55분, 북위 37도 27분 내지 33분 사이에 위치하며, 면적은 4방리(方里) 정도로 해안선의 길이는 10리 26정이다. 지세는 섬의 최고점은 983미터이며 중앙부에서 조금 남동으로 치우쳐 있다.”고 적었다.

“섬 안을 구획하여 남면과 서면 북면 3면으로 나누었다. 호구는 176호, 631인, 조선인은 1446호, 8225인, 중국인이 1호, 4인 있다”고 보았다. “주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며 근래 내지인 거주자에게 배워 중등(中等) 이하의 농민은 모두 오적어를 잡기에 이르렀다”고 한 것은 『最新 朝鮮地誌』(1918)의 내용과 유사하다.

이렇듯 일본에 의한 병합 후 나온 지리지를 보면 대체로 조선 총독부 주관 하에 편찬되거나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총독부가 주관하여 편찬된 지리지는 조선의 시정 경영과 일본인 발전 상황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통계표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행정구역상의 변화를 적고 있는 것도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이다.

『朝鮮地誌資料』(1 - 42, 연대 미상) 역시 행정구역상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지리지에는 ‘지방 행정’이 별도의 편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朝鮮要覽』(1923, 1924, 1926, 1933)은 조선 통치의 개요, 최근의 조선인 생활 개황, 지지에 관한 사항 변화를 기술하고 있다. 통계표를 덧붙여 구체

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울릉도·독도에 관한 내용은 없다. 1923년판은 먼저 지형과 지세, 기후, 호구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조선요람』에 의하면, 조선은 남북 길이가 가장 긴 것은 210리이며 동서로는 가장 넓은 곳이 라도 90리를 넘지 않으며, 동경 124도 11분부터 130도 56분 23초에 이르며<sup>96)</sup>, 북위 33도 6분 40초에서 43도 36초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14312만 리인 것으로 되어 있다. 15장에서 수산업을 다루고 있으나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내용은 없다.

『朝鮮地誌資料』(조선총독부 임시조사국, 1919)는 연도 미상의 『朝鮮地誌資料』보다 뒤에 펴낸 것으로 보이는데, 1권으로 되어 있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에 근거하여 따로 펴낸 것이다. 이 책 1쪽 제1표 ‘조선반도 극단 경위도(極端經緯度)’에는 조선의 극동을 경상북도 울릉도 죽도에 두고 동경 130도 56분 23초로 했다. 이 경우 도서를 포함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여기서 말하는 죽도는 현재의 竹島를 가리킨다. 제 3표 ‘도별 극단 경위도’에 울릉도의 위도는 동경 130도 56분 34초로 되어 있는데 이는 죽도의 동쪽 끝이 된다. 제 7 「도서」 ‘도서의 위치 명칭 및 둘레와 면적’ 편목에 울릉도가 나오는데 경상북도 소속으로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경상북도 울릉도 안에 울릉도와 죽도, 관음도가 들어가 있는데, 울릉도는 서면과 북면 남면에 걸쳐 있으며, 죽도는 남면에, 관음도는 북면에 소속되어 있다. 울릉도의 면적은 4,700방리<sup>97)</sup>, 최고 높이는 983.6미터, 죽도의 면적은 0.016 방리(方里),<sup>98)</sup> 최고 지점의 높이는 105미터,<sup>99)</sup> 관음도의 면적은 0.011 방리(方里), 최고 지점의 높이는 107미터로 되어 있다. 관음도의 면적이 보이는 것으로는 이 지리지의 처음인 듯하다. 『地方行政區域名稱一

96) 동경은 현재의 죽도를 포함하는 경도이다.

97) 현재 울릉도의 면적은 72,897,360㎡로 되어 있다(울릉군 홈페이지 참조)

98) 0.001469㎡이다. 현재 죽도의 면적은 207,868㎡로 되어 있다.

99) 현재는 해발고도 106미터로 되어 있다.

覽 부 - 경찰서 관할구역』(구 한국지방 행정구역 명칭일람)은 1912년부터 1932년에 걸쳐 지방행정구역의 명칭을 수록한 것이다. 1912년도 판에는 울릉도가 경상남도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1924년판에는 경상북도로 되어 있다. 1932년판에는 부록으로 경찰서 관할구역을 실었는데 울릉도 경찰서는 울릉도 남면에 있으며 울릉도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다. 1912년부터 32년 사이 울릉도 행정구역상의 변화는 별로 없었으며 다만 초기에 보이던 지명이 후대로 올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변화라면 변화이다.

【표 4-1】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부-경찰서 관할구역』에서 울릉도의 소속 및 지명 변화

연도	구역명(소속)	지명
1912년판	울도군 (경상남도)	남면:도동, 저동, 신흥동, 옥천동, 장흥동
		서면:통구미동, 석문동, 남양동, 남서동, 구암동, 학포동, 태하동
		북면:현포동, 평리동, 나리동, 천부동, 석포동
1924년판	울릉도 (경상북도)	남면: 저동, 도동, 사동
		서면: 남양동, 남서동, 태하동
		북면: 현포동, 나리동, 천부동
1929년판	울릉도 (경상북도)	남면: 저동, 도동, 사동
		서면: 남양동, 남서동, 태하동
		북면: 현포동, 나리동, 천부동
1932년판	울릉도 (경상북도)	남면: 저동, 도동, 사동
		서면: 남양동, 남서동, 태하동
		북면: 현포동, 나리동, 천부동

### (3) 독도의 이칭, 난도(卵島)

이 시기를 전후한 지리지에서 ‘독도’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지리지가 드문 가운데, 독도를 가리키는 듯한 언급을 한 책이 있다. 나카이 다케노신

(中井猛之進)은 1919년에 낸 『울릉도 식물조사서』에서 울릉도를 조선의 최동단, 경위도를 동경 130도 47분 40초에서 130도 55분으로 보았으며, ‘부속한 죽도(竹島)’의 동단은 130도 56분 10초, 북위 37도 27분 44초에서 37도 33분 31초에 달한다고 적었다. 여기서 죽도는 오늘날의 죽도를 가리킨다. 울릉도 최고봉인 ‘상봉’은 해발 920미터<sup>100)</sup>이며 날씨가 맑은 날 서쪽지방 강원도의 산자락을 볼 수 있다고 하여 울릉도에서 강원도의 육지가 보인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다.

이 기록에서 독도에 해당시킬 만한 호칭으로는 ‘난도’가 있다. “또한 비가 내리기 전 날씨가 맑을 때는 동남방 바다 멀리 희미하게 난도(卵島)가 보인다”고 했는데, 여기서 난도는 그 정황으로 보아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날씨가 맑을 때, 동남방에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섬은 독도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난도를 ‘다마고시마’<sup>101)</sup>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조선의 호명 경위와 비슷하다. 다만 『신증 동국여지승람』 강원도/통천군(通川郡) 부분에 적힌 ‘난도’는 일본의 ‘다마고시마’의 의미와 비슷하긴 하지만 독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나카이<sup>102)</sup>는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울릉도를 조사한 도쿄대 교수로서 울릉도의 식물뿐만 아니라 많은 조선의 식물을 조사하여 일본식 이름을 붙인 사람이다. 그는 울릉도라는 명칭이 성립하게 된 요인을 도쿄제국대학교 교수 쓰보이 구메조(坪井九馬三)로부터 제공받아(1918년) 기술하였다. 쓰보

100) 나리동 봉우리는 900미터, 미륵봉은 800미터라고 적어 성인봉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 1933년 9월 17일자에는 성인봉은 983미터, 미륵봉은 900미터로 되어 있다.

101) 『신증 동국여지승람』 강원도 통천군 난도(卵島)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고을 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물길이 50리이다. 사면으로 석벽이 깎아 서고 서쪽의 한 길만이 바닷가로 통하며 그 물가에 겨우 고깃배 하나를 댈 수 있다. 해마다 3, 4월이 되면 바다의 새들이 무리로 모여들어 알을 부화하고 기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호명 경위가 일본의 다마고시마와 상통한다.

102) 나카이 다케노신(1882-1952)은 일본의 식물분류학자로 도쿄대 교수, 국립과학박물관장을 역임했다.

이 구메조의 설에 따르면, 『일본지리지』에 게재되지 않은 오키의 부속 도서로서 난도(다마고시마)라는 바위섬이 있다고 하였다. 이 다마고시마에 대하여 “바위섬이며 강치 산지라 하고 외국에서 만든 지도에 나오는 Liancourt 또는 Hornet은 이 바위섬을 일컫는 것이”<sup>103)</sup>라고 한 것으로 보건대, 난도는 독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쓰보이나 나카이가 말한 다마고시마는 둘다 독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키의 부속도서로서 언급한 다른 두 섬 즉 마쓰시마와 다케시마 가운데 독도를 가리키는 것은 보통은 다케시마였다. 일본 후쿠우라에서 “해로로 약 100리 4정 남짓”<sup>104)</sup> 떨어진 곳에 있는 다케시마는 독도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쓰보이는 일본해 서부에 세 개의 섬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마쓰시마, 다케시마, 다마고시마로 보았다. 이 가운데 마쓰시마는 우리나라의 울릉도, 다케시마는 죽도, 그리고 다마고시마를 독도에 비정하였다. 따라서 그의 주장에 의하면, 오늘날 독도의 명칭으로 되어 있는 다케시마는 다마고시마로 불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마고시마를 다케시마로 부르는 데 비판적인 쓰보이는 독도 명칭인 다마고시마를 잘못하여 죽도 명칭인 다케시마로 해군에 가르쳐준 것이 결국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게 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즉 그는 1905년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명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시간이 지나 소관 현칭이 이 남칭(濫稱)을 정명(正名)으로 공인했다고 들었는데 이는 과연 사실인가. 무릇 지명과 같은 것은 소속 지방의 고로(古老)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일개 무인(武人) 또는 무학(無學)의 지방 관원 등이 마음대로 명명할 문제가 아니란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알고 있을 것이라 소생은 생각한다.

103) 坪井九馬三, “竹島에 대하여,” 『歴史地理』 56권 1호(1930)

104) 『일본지리지』 권 50 오키

쓰보이의 말대로라면 지역의 호칭은 그 지방사람이 가장 잘 아는 법이다. 그러나 일본은 편입 당시 현지민의 호칭을 무시하고 지방 관리가 함부로 명명해버린 것이다. 1905년 영토 편입 결정에 앞서 시마네현은 오키 도사에게 ‘다케시마’라는 명칭에 대하여 물은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오키도사는 아래와 같이 회답하였다.

원래 조선의 동쪽 해상에 마쓰시마와 다케시마 두 섬이 존재함은 일반에게 구전되는 사실로, 종래 이 지방에서 나무하고 농사짓던 자들이 왕래하던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통칭하지만 실은 마쓰시마로서, 해도로 보더라도 명료한 유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도(新島)를 놔두고 다른 것을 다케시마(竹島)에 해당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래 잘못 칭해온 명칭을 다른 데로 돌려 다케시마(竹島)라는 통칭을 이 신도에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sup>105)</sup>

즉 히가시 분스케는 시마네현의 지역민들이 울릉도를 다케시마, 독도를 마쓰시마로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울릉도의 호칭은 다케시마가 아니라 마쓰시마가 맞다고 주장하였고, 종래 마쓰시마로 불리던 새섬 즉 독도에 대한 호칭을 다케시마로 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쓰보이는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 (4) 시정(施政) 위주의 지리지

『朝鮮十三道誌』(야나기가와 쓰토무[柳川勉] 편, 1934?)는 일본의 조선 시정 25년을 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35년 전후로 출판된 듯하다. 조선은 “북으로는 소련과 경계, 서북은 만주와 인접, 서방은 바다 건너 지나의

105) 시마네현 내무부장 호리 신지의 ‘다케시마’ 명명에 대한 의견에 대해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가 보낸 회답서신(을 서 152호)



산동강소를 가리키고 있고, 일본은 이상 3국과 서로 인접하는 중요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 지리지에서 중요한 것은 울릉도가 역사적으로 조선의 속령임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때로는 무인도였고 때로는 해적의 근거지였으나 “경장 19년(1614년 - 역자) 이래 전후 3회에 걸쳐 일본과 소속 문제로 몇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메이지 17년(1884년 - 역자) 도장을 두었고 명치 37년(1904년 - 역자)에 울릉군이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1907년(1906년의 오류 - 역자)에 경남 관찰이었다가 1914년에 다시 경상북도 소관이 되었으며 1915년에 울릉으로 개칭한 사실도 적었다. 울릉도는 “강원도 근변에서 동북 해상 76리(湮)에 있는 섬으로 면적은 속도(屬島)를 포함하여 4.73방리(方里), 서·남·북면 3면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구는 11,852명, 소학교 2개, 보통학교 1개, 수산물이 주요 산물이며 어획고는 101,346원, 수산 제조 액은 77,900원, 금융조합 한 개, 조합원 수는 902인, 대여료는 149,700원이며 근래에는 농림업도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울도군으로 된 사실은 언급하고 있으나 ‘울릉’으로 잘못 칭하고 있고 연도에도 오류가 보인다.

1930년대 중반이 되면 조선 지리지는 조선에서의 시정 결과를 밝혀주려는 성격이 강하다. 『朝鮮現勢便覽 1 - 5』(조선총독부, 1935 - 1939) 역시 조선의 현재 상황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에 앞서 면적과 경위도 등에서 조선과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 화태, 관동주, 남양 군도 등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보를 함께 실었고, 국내 각 지방의 위도도 밝혔다. 인구 통계에 있어서는 조선인과 일본인, 외국인 등에 관한 통계를 함께 실고 있는 등 대부분의 기술이 통계에 근거하고 있다. 『朝鮮風土記』(오노 기요시[小野 清], 1935)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걸 보면, 이 시기 지리지의 대체적인 경향인 듯하다.

『朝鮮事情』(조선총독부, 1933) 역시 이런 경향을 반영하듯이 총설 다음에 보이는 항목은 ‘교통’이다. 철도 현황과 도로, 토목, 항만, 항공, 전기, 통

신까지를 다루어 조선에서의 교통현황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사업’ 항목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식민통치의 안정으로 인해 관심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다룬 내용은 주로 경제 분야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며, 재만(在滿) 조선인의 개항도 다루고 있다. 교통에 대한 중시는 『半島の近影』(1936)에도 나타나 철도노선을 그린 「조선 교통 약도」가 부도로서 첨부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간략하고 풍속화보를 주로 담고 있다.

『朝鮮大觀』(호쵸 료에이[北條亮英], 1938)은 앞부분에서는 조선 역사와 문화, 한일 양국간의 역사적 관계를 다루고 뒤에서 한일병합을 다루고 있다. 병합 전의 역사와 통감정치시대, 그리고 병합을 다룬 뒤에 총독 정치를 언급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독정치를 다시 총독 별로 구분하여 적고 있다. 지리지에 관한 내용은 「현세편」에서 다루는데, 토지와 기후, 호구, 행정과 지방행정, 교육, 사법, 경찰, 위생, 군사, 교통, 수운, 체신, 재정, 금융, 산업, 무역, 사회교육, 문화시설까지 망라하여 인문 지리적 정보도 수록하고 있으나 울릉도·독도 관련 내용은 없다.

일본은 패망하기 직전까지도 지리지를 펴냈는데 바로 『朝鮮事情』(조선총독부, 1944)이 그것이다. 총설에서 “극동의 안전을 영원히 보호할 필요에서 메이지 43년(1910년 - 역자) 드디어 완전히 병합, 조선의 인민은 황국 신민으로서 천황의 수무(綏撫)하에 놓여 총독이 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듯이 이 지리지는 병합의 정당화로 시작하고 있다. 도별 지리지인 경상북도에서 울릉도를 소개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렇듯 조선 지리지는 시기별로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체재나 편목면에서도 변화가 보인다. 우선 호칭을 보더라도, 지리지의 울릉도·독도 호칭은 수로지의 호칭과는 매우 다르다. 울릉도 호칭만 하더라도, 1875년의 『조선지략』에서는 자산도, 궁고, 다케시마(竹島)라는 호칭을 열거했으나, 1894년의 『조선기문』에 오면 자산국, 궁송, 다케시마(竹島)로 바뀐다. 그러나 이 사이에 나온 『조선팔도지』(1887)에서는 ‘울릉도’라는 호칭은 보이지

않고 대신에 ‘죽산도’와 ‘竹島’<sup>106)</sup>라는 호칭만이 보인다. 죽산도는 ‘연곡포’를 설명할 때 나오고 ‘竹島’라는 호칭은 동해에 흩어져 있는 섬 이름을 열거하는 가운데 보인다.

울릉도의 이칭을 소개한 것은 『조선통어사정』(1893)이다. 울릉도의 이칭으로 무릉, 우릉을 소개하고 이어 일본에서는 ‘마쓰시마’라 부른다는 사실도 적었다. 그러나 『조선기문』(1894)에서는 울릉도 호칭이 ‘다케시마’로 되어 있고 이후로는 ‘울릉도’와 ‘다케시마’, ‘마쓰시마’가 함께 언급되는 지리지가 많다. 지리지에서 울릉도를 ‘다케시마’ 및 ‘마쓰시마’와 혼용하고 있는 것은 19세기 후반 지리지에서 시작하여 19세기 말까지 지속된다. 1901년 『조선개회사』에 이르기까지 울릉도의 이칭으로서는 ‘다케시마’가 계속 사용되다가 1903년 『한해통어지침』의 단계에 이르면 울릉도 이칭으로 ‘마쓰시마’가 등장하고 이후로는 줄곧 ‘마쓰시마’로 표기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수리지에서 1880년대부터 줄곧 울릉도를 ‘일명 마쓰시마’로 지칭하던 것과 대조적인 양상이다. 1894년의 『朝鮮志』의 부도에는 울릉도가 ‘마쓰시마’로 되어 있는데, ‘다케시마’는 마쓰시마의 왼쪽에 나타나 있다.

반면에 ‘독도’를 가리키는 호칭이 지리지에 등장한 것은 1894년의 『조선지』와 『신편 조선지지요략』의 지도에서인데 이들에게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로 각각 나타나 있고 위치가 맞지 않아 어떤 것이 독도에 해당되는지는 알 수 없다. 『신찬 조선지리지』(1894)에는 ‘우산도’로 되어 있으며, 『조선개회사』(1901)에도 ‘우산도’로 되어 있다. 우산도는 주지하듯이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 고래의 호칭이다. 이 ‘우산도’라는 표기가 일본인이 펴낸 조선 지리지에서는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인이 펴낸 조선 지리지에서 독도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많이 쓰인 것은 ‘리양코루도 열암(Liancourt rocks)’의 일본식 표기인 ‘양코 島’이다. ‘양코 도’와 함께 보인 또

106) 竹島를 반드시 ‘다케시마’로 읽어야 하는지 의문이므로 원문 그대로 썼다.

다른 독도의 호칭은 ‘마쓰시마’이다. 이는 예전부터 일본이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독도를 ‘마쓰시마’로 불러왔던 데 연유한다. 그러나 1912년의 『최신 조선지지』에는 독도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다시 ‘로크 리앙코루도’가 등장한다. 즉 ‘리앙코루도 열암’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여 자국영토로 편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1912년의 지리지에서 ‘리앙코루도 열암’이라는 호칭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은 이 섬의 소속에 관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일본에서 독도 호칭의 비밀관성을 보여주는 예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고유의 호칭이 부재했음을 보여주는 일례이기도 하다.

| 표 4-2 | 울릉도 독도 호칭

연도	서명	울릉도 독도 관련 호칭(*)	독도 호칭	비고(**)
1875	東條 保	朝鮮誌略	子山島, 弓高, 竹島(일)	
1881	坂根達郎	朝鮮地誌	없음	조선전국도
1887	小松運	朝鮮八道誌	竹山島(*) 竹島(*)	조선전국략도
1893		조선통어사정	무릉, 우릉, 松島(일)	
1894		朝鮮紀聞	子山國, 弓嵩(이소다케), 竹島(일)	
1894		朝鮮志	竹島·松島(*)	지도**
1894	松本謙堂	新編 朝鮮地誌要略	鬱陵	지도
1894	大田才次郎	新撰 朝鮮地理誌	울릉도, 다케시마, 弓山島(*)	마쓰시마 (지도) 조선지도**
1895	학부	朝鮮地誌	울릉도 芋山島(*)	
1899	현채	大韓地誌	울릉 제도	
1901	恒屋盛服	朝鮮開化史	울릉도, 蔚陵, 우산국, 무릉, 우릉	우산도, 마쓰시마 (일) 죽도
1903	葛生修亮	韓海通漁指針	울릉도, 무릉, 우릉, 우산국, 마쓰시마(일)	양코 도 죽도
1904	矢津昌永	한국지리	울릉도(松島), 일명 마쓰시마	죽서

| 표 4-2 | 울릉도 독도 호칭(계속)

연도		서명	울릉도 독도 관련 호칭(*)	독도 호칭	비고(**)
1904	岩永重華	최신 한국실업지침	무릉, 우릉, 우산국, 마쓰시마(지나)	양코 島	
1905		한국 신지리	울릉도	양코 島	
1907	장지연	대한신지리	울도	우산도	
1910		한국수산지	울릉도, 마쓰시마(별명), 무릉도, 우릉도		울릉도 전**, 서향도, 죽서
1910	足立栗園	조선 신지리	울릉도, 마쓰시마		죽서 (다케시마)
1911	吉田英三郎	朝鮮誌	무릉, 우릉		조선지부도**
1912	일한서방	最新朝鮮地誌	울릉도, 마쓰시마(일)	로크 (rock) 리양코루도	
1915		한국통사	울릉도		
1917		新舊 對照 朝鮮全道府郡面 里洞 名稱一覽	울도군		
1918		最新朝鮮地誌	울릉도		
1918	藤戶計太	最新朝鮮地理	울릉도, 무릉, 우릉, 울도		
1924	日高友四郎	新編 朝鮮地誌	울릉도		
미상		朝鮮十三道誌	울릉		
1944	조선총독부	朝鮮事情	蔚陵島	없음	

\* 는 울릉도 호칭인지 독도 호칭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거론된 지명을 의미함

\*\* (비고)는 지도 수록 여부 및 나타난 지명을 의미함

## 2. 일본 지리지의 울릉도·독도 인식

### 1)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 분리

일본 지리지 편찬의 역사는 조선 지리지 편찬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므로 조선 지리지가 편찬되던 시대에는 일본 지리지 역시 함께 출판되었다. 오히려 시기적으로는 일본 지리지가 앞서 나왔던 것으로 보이며, 조선 지리

지는 이 일본 지리지의 체재를 답습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체재 면에서 보자면 양국의 지리지의 차이가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 다만 편목 면에서는 양국의 역사 혹은 지리적 차이에 기인하는 구성상의 변화가 보인다. 여기서는 일본 지리지 가운데 조선 관련 내용을 다룬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 지리지로서 근대기에 처음 보이는 것은 『日本地誌提要』 1-8 (1874 - 79)이다. 보통 일본 지리지 체재는 도별(道別)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도별로 다루고 있는 편목은 강역/형세/연혁/군 수(郡數)/호수/인구/전포(田圃)/조세/현치(縣治)/군진(軍鎭)/학교/해로/산악/광산/폭포/항만/갑각(岬角)/해협/도서/암초/신사/물산 등이다. 이들 편목의 이름은 조선 지리지와 동일한 것도 있으나 다른 것도 있다. 일본 지리지에만 고유한 편목명으로는 ‘신사’나 ‘군진(軍鎭)’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일본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편목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지역은 크게 간토(關東), 오우(奧羽), 주부(中部), 긴키(近畿), 주고쿠(中國), 시코쿠(四國), 규슈(九州)로 나뉘고 다시 이들 지역이 세분화된다. 1910년을 전후해서는 지리지에서 이들 지역 외에 홋카이도, 화태, 대만, 조선, 남양 제도 등이 기타 지역으로 포함되기도 한다.

『日本地誌提要』에서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보이는 것은 권 50 ‘隱岐’에서이다. 이 지역의 ‘도서’편목에는 다음의 도서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다.

- 島津島 : 지부군(知夫郡) 지부리(知夫里) 남쪽 2정에 있다.
- 松島島 : 일명 시마야마(島山). 아마군(海士郡) 도요타무라(豊田村)에 속한다. 나카지마(中島)의 동쪽은 18정이다.
- 大森島 : ○ 혼슈의 속도이다. 지부군에 45, 아마군에 16, 스키군(周吉郡)에 75, 오치군(穩地郡)에 43, 합계 179, 이를 총칭하여 오키의 소도라 한다.
  - 또 서북 방향으로 마쓰시마(松島)와 다케시마(竹島) 두 섬이 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오치군 후쿠우라항에

서 마쓰시마(松島)에 이르는 해로는 약 69리(里) 35정(町)<sup>107)</sup> 다케시마(竹島)에 이르는 해로는 약 100리 4정,<sup>108)</sup> 조선에 이르는 해로는 약 136리 30정<sup>109)</sup>이라고 한다.<sup>110)</sup>

즉 이 지리지는 오키의 도서로서는 시마즈시마(島津島), 마쓰시마(松島), 오모리시마(大森島)를 대표적인 것으로서 들고 있다. 이 가운데 오모리시마는 ‘혼슈(本州)의 속도(屬島)’로서 지부군(知夫郡)에 45, 아마군(海士郡)에 16, 스키군(周吉郡)에 75, 오치군(穩地郡)에 43, 합계 179개의 섬이 있는데 이를 총칭하여 오키의 소도라고 하였다. 오키의 속도로서 거론한 마쓰시마(松島)는 “일명 시마야마(島山)로서 아마군 도요타무라에 속한다”고 하였으므로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독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모리시마의 서북방향에 있다고 기술한 ‘마쓰시마’이다. 여기 기술된 ‘마쓰시마’와 ‘다케시마’는 그 거리관계를 보더라도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들 내용이 일본 지리지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일본의 영토로 본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일본은 이 두 섬을 오모리시마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언급하여 오모리시마의 속도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이 두 섬을 일본 영토로 인식했다면 속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

『日本地誌略摘解』(고노 미치오[河野通雄], 1879) ‘隱岐國’ 편목에 보면, 바다 가운데 ‘마쓰시마’와 ‘다케시마’가 있다고 하였다. 일본 지리지 중에는 ‘오키’ 편목 안에 ‘마쓰시마’와 ‘다케시마’ 즉 울릉도와 독도를 기술한 지리

107) 129.6km이다.

108) 185.4km

109) 253.4km이다.

110) 「又西北に方リテ松島竹島ノ二島アリ。土俗相傳テ云フ。穩地郡福浦港ヨリ松島ニ至ル。海路凡六拾九里 三拾五町。竹島ニ至ル。海路凡百里四町餘。朝鮮ニ至ル海路凡百三拾六里三拾町」

지가 있는가하면 언급하지 않은 지리지도 있다. 또한 언급했다 할지라도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있다. 『改正日本地誌要略』(오쓰키 슈지[大槻修二], 1889)<sup>111)</sup>은 권5 「中國」에서 ‘山陰道’와 ‘山陽道’를 다루고 있는데, 이 안에서 ‘오키’의 4군(郡)을 설명하는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를 언급하고 있다.

즉 “이 지역(오키국·역자)은 일본해 가운데 서쪽에 있는 절해의 섬으로 그 서북 해상에 마쓰시마(松嶋)와 다케시마(竹嶋)라는 두 섬이 있다. 서로의 거리가 거의 100리 정도로 조선에서는 울릉도(蔚陵嶋)라 칭한다. 근래 그 나라의 속도로 정해졌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여기서 마쓰시마(松嶋)와 다케시마(竹嶋) 두 섬을 거론하면서 울릉도라 칭한다고 했는데,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중 어느 것이 울릉도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기술한 내용이 『日本地誌提要』의 내용과 유사하고 거기 나온 거리관계로부터 추론해본다면, 여기서 말한 ‘마쓰시마’는 ‘독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속도로 정해졌다”고 하면서 두 섬을 함께 거론한 것은 두 섬을 모두 조선의 속도로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日本地理』(마에바시 다카요시[前橋孝義], 1889)는 5편 「山陰道誌」 8 ‘隱岐國’ 부분에서 ‘산물’ 등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부속 도서’에 대해서는 “시마즈시마(29町), 마쓰시마(1里 9町)가 있는데 도젠에 속한다. 오모리시마(25町)가 있는데 도고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는 앞의 『日本地誌提要』에서 나온 세 섬에 관한 내용을 답습한 것일 뿐 울릉도·독도 관련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이 두 섬을 부속도서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日本地理志料』권44 (무라오카 료스케[郵岡良弼], 1902-3년) ‘隱岐國’ 부분에도 앞에서 나온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오키국 전반에 대한 설명 가운데, “오키는 4군을 관할하는데 지부, 아마, 스키, 오치가 그것이다.... 『隱岐古記』에 이르기를, ‘혼슈(本州)는 4군인데 도젠(島前), 도고(島後)로 나뉜다. 속도는 대소 179개이다. 따로 마쓰시마(松島)와 다케시마(竹島)가 있는데,

111) 6책으로 초판은 1886년에 나왔다.



마쓰시마(松島)는 오치군(穩地郡) 후쿠우라와의 거리가 69리 35정, 다케시마(竹島)는 100리 4정 떨어진 곳에 있다. 조선과는 136리 30정 떨어져 있다. 저들은 울릉도(鬱陵島)라 부르는데, 이는 우리나라말의 우류만(宇留萬)을 번역한 것이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日本地誌提要』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거기에는 없던, 『은기고기』의 인용문 “울릉도는 우리나라말의 우류만(宇留萬)을 번역한 것이다”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다케시마(竹島)’를 울릉도라 부르게 된 연원을 일본어 ‘우류만’에서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조선의 울릉도를 일본어 ‘우류만’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일본어 ‘우류만’을 조선어 ‘울릉도’로 번역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문장의 선후 맥락을 보면, ‘우류만’이 ‘울릉도’로 번역되었다는 것이므로 지명의 역사적 연원이 일본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두 섬을 오키의 속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조선 영토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울릉도에 대한 일본 고래의 명칭인 ‘다케시마’가 1902 - 3년 시점에도 여전히 쓰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1870년대 이후부터 1905년 이전의 일본 지리지에서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를 다룬 내용은 주로 ‘오키’ 지역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온다. 그러나 이는 오키 지역이 조선의 울릉도와 가장 근접하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이지 영토의 귀속이 일본에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본문에 언급된 ‘속도’ 부분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2) 편입 후 독도, 일본 지방지에 수록

1905년 2월 22일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의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한 이후의 지리지 상의 변화는 어떠한가? 『大日本地誌』(야마자키 나오키타[山崎直方]·사토 덴조[佐藤傳藏] 공편, 1903 - 1915) 권6 「中國」 ‘隱

岐國'(1907)에는 지형, 면적, 군도 등에 관하여 기술하는 가운데 독도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조금 길지만 인용하기로 한다.

오키 군도(群島) 서북해상 약 85리(浬) 떨어진 곳에 하나의 고도가 있는데 다케시마(竹島)라고 한다. 종래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았으나 메이지 38년(1905년-역자) 2월 2일<sup>112)</sup> 이후 버젓이 일본의 판도에 들어왔다.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다. 본도는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하며 他計甚麼 혹은 舩羅島라고도 한다. 섬은 하나의 좁은 수도(길이 약 320미터, 폭은 대략 100미터, 깊이는 약 5길)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대치한 두 개의 주도와 그 부근에 퍼져 있는 여러 개의 소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암초는 대체로 편평(扁平)하지만 상부만 겨우 물 위로 드러날 뿐이다. 주도는 모두 험준한 바위섬으로 해풍이 항상 불어 전면이 깎였으며, 섬 위에는 한 그루의 수목이 없고 겨우 잡초만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연안은 모두 깎아지른 절벽으로 거의 오를 수 없고 곳곳에 기형의 동굴이 있어 해표(海豹) 무리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 섬에 음료수는 전혀 없으므로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다. 다만 매년 4-5월 경부터 7월까지 해표가 많이 이곳에 군집하므로 어부들이 자주 가서 이 부근에서 출어할 뿐이다. 섬 부근은 수심이 깊으나 그 위치가 하코다테를 향해 있어 일본해를 항행하는 선박의 항로에 해당하므로 매우 위험하다고 한다. 본도는 서기 1849년 프랑스선박 리앙쿠르 호(Liancourt)의 발견으로 그 칭호를 선박이름에서 취해 리앙코토 암이라고 칭했고 그 후 1855년 영국 군함 호넷 호(Hornet)는 이 섬을 호넷 열도(列島)라고 이름 붙였다.

이 지리지의 내용은 1886년판 『寰瀛水路誌』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고 있다. 위의 기술로 보건대, 지리지 상으로는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으로 한

---

112) 22일의 오류

사실보다 독도를 자국령으로 영토편입한 사실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영토이름을 ‘다케시마(竹島)’라고 정해 일본의 판도에 넣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름의 연혁이 프랑스 선박과 영국의 호넷 호에서 따온 것이었음도 아울러 인용하고 있다. 독도를 일본이 자국령으로 편입한 이후인데도 관련 내용을 일본 지리지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조선 지리지에서도 다루고 있다. 1910년의 강제병합 이후 펴낸 지리지인 『最新 日本地理資料』(이하라 다다시[井原儀], 1911)에도 조선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2편 ‘지방지’ 안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이 지리지에는 과거 ‘일본의 지세’ 등으로 기술되던 편목명이 ‘제국의 지세’로 바뀌어 있어 제국주의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구성은 1부 일본 본부, 2부 대만지방, 3부 10주 지방, 4부 남화태, 5부 조선으로 되어 있어 ‘일본 본토’도 지방지 안에서 다루지고 있다. ‘독도’를 1부 ‘일본 본부’의 ‘주고쿠(中國) 지방, 오키’ 안에서 언급하고 있어 자국령으로 편입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오키도(隱岐島): ..오키는 도젠과 도고로 이루어진다. ..그 북서쪽 약 85리(浬)의 일본해에는 조선의 울릉도(松島) 가까이 다케시마(竹島)가 있다. 오키에 속해 있는데 일본해전의 격전장이었다.

여기서 다케시마는 독도를 말한다.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다루고 있으나, 다케시마는 일본 오키의 속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극동은 울릉도(마쓰시마)의 동단으로 동경 130도 54분으로 되어 있다.

울릉도에 대해서는 ‘조선의 도서’ 편목에서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동해안(일본 해안)... 도서의 수는 매우 적다. 가장 현저한 것으로는 울릉도(소나무와 삼나무 숲이 있으며 세속에서 마쓰시마(松島)라고 칭하는데 근해에 고래와 울늬수, 해삼으로 얻는 수익이 많다. 사카이와 부산

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는데 서로의 거리는 각각 약 180리[浬]이다)가 있을 뿐이다.

『島根縣誌』(1923)는 한 장(章)을 따로 두어 ‘다케시마(竹島)’ 즉 독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제 5장 竹島

오키 서북 약 85리(浬), 이와미국 하마다에서 150리(浬), 조선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50리(浬) 떨어진 곳에 있다. 조선에서는 독도(獨島)라 한다. 일본해 가운데의 작은 섬으로 조선 울릉도와 함께 일본해를 동서로 횡단하는 해저 산맥상에 위치하는데 그 부근은 수심이 매우 깊다. 동서 두 개의 주도(主島)와 그 주위에 늘어서 있는 여러 개의 소도(小島)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하나는 둘레가 15정, 높이 380척, 다른 하나는 둘레가 10정, 높이는 226척이다. 두 섬을 합해 둘레가 1리(里) 남짓이다. 하나의 좁은 수도(길이 180칸, 폭 56칸, 수심 5길)를 사이에 두고 마주 대하고 있다. 주도(主島)의 둘레는 경치가 빼어나며 동굴이 많아 해표(海豹)와 해러(海驢)군의 서식지이다. 전부 거의가 불모의 암석으로 되어 있고 해풍 때문에 한 그루의 나무도 없다. 남쪽에만 겨우 잡초가 자란다. ...정박지가 없다. 항해자의 좋은 목표가 되지만 음료수가 없다.

.....다케시마(竹島)는 일본해 항로에 해당하며 서기 1849년 즉 우리 가에이(嘉永) 2년 프랑스선박 리앙쿠르 호가 발견한 이래 리앙코토 암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본현에서는 이를 량코 암이라 속칭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쿠가와 시대에는 울릉도를 다케시마라 하고 량코 암을 마쓰시마라 지칭했다. 그런데 메이지에 들어와 우리 해군 수로부가 편찬한 수로지에서 잘못하여 울릉도를 마쓰시마라고 적음으로써 원래의 마쓰시마 즉 량코 암을 다케시마라 전칭(轉稱)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현의 해안지방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구칭대로 울릉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는 일이 오히려 상례(常例)이듯이, 다케시마는 동명이도(同名異島)의 모습을 드러내 간간히 피차 혼잡을 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1903년 호키의 나카이 요자부uro가 이 섬(량코 암)에서 어업을 기도하여 일장기를 세웠다. 다음해인 1904년에 각 방면에서 경쟁자가 남획하여 여러 가지 폐해가 생겼다. 이에 나카이 요자부uro는 이 섬을 조선 영토라고 생각하여 상경하여 농상공부에 말해 조선 정부에 대해 청원을 하려 했다.<sup>113)</sup> 우연히 우리 해군 수로부도 이 량코 암의 소속을 확실히 하고자 일한 양국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니, 일본 쪽이 10리(里) 가깝고 또한 방인(邦人)으로서 이 섬 경영에 종사한 이상은 일본령에 편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나카이는 량코 도(島)의 영토 편입 및 대하원을 내무와 외무, 농상무 3성에 제출, 3성은 시마네 현청의 의견을 구해 각의에서 영토 편입을 결정, 그 명칭을 다케시마(竹島)라 명하게 되었고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했다. ..

『島根縣誌』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사실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춰 영토 편입 경위를 기술하고 있다. 이 글 뒤에 시마네 현 고시 40호도 실고 있다. 윗 글에는 일본에서의 호칭, 독도의 지형, 거리관계, 메이지 시대의 호칭 혼돈경위가 나와 있다. 이 지리지는 조선의 명칭이 ‘독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일본에서 다케시마로 부르게 된 원인이 수로지에서 울릉도를 마쓰시마로 잘못 칭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시마네 현 지방에서는 여전히 울릉도를 ‘다케시마’라 부른다는 사실을 적고 있다. 더구나 나카이 요자부uro가 “이 섬을 조선영토라고 생각하여 상경하여 농상무부에 말해 조선 정부에 대해 청원을 하려 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은 섬의 소속이 조선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단서이다. 그러나 이 지리지는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의해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런 사실이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로 인해 일본인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된

113) 『시마네현지(島根縣誌)』의 이 내용에 관해 한일 양국간의 논쟁에서 일본 정부는 이 사료의 기술을 편자(編者)의 오해였다고 정리했다.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강치 출어자가 울릉도를 근거지로 하고 있으며 나카이 요자부호가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를 차려 강치 포획에 종사해온 사실도 거론하였다. 강치의 호칭은 해표(海豹)와 해려(海驢)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 어느 것이 강치에 해당되는 지는 알 수 없다. 부속 지도에서는 오키와 다케시마(독도)까지를 포함하여 선으로 그어 울릉도와 분리시켰다.

『最新 日本地理資料』(다카하시 마사루[高橋勝], 1926) 역시 ‘조선 지방’을 따로 다루되 ‘지문’ 편목에서 조선의 경위도를 적고 있다. 조선총독부의 『조선지리지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나 울릉도·독도 관련 내용은 조선 지방에도, 일본의 판도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帝國行政區畫便覽』(1901년 초판, 1923년, 1929년 개정 17판)은 일본 행정구역과 외지로서 홋카이도, 화태, 대만, 관동국, 남양청, 조선의 관할구역명을 함께 게재하고 있다. 이 자료는 행정구획상의 구분을 목적으로 해서인지 지명만 간단하게 열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독도는 시마네현 오키국 안의 스키군(周吉郡), 오치군(穩地郡), 지부군(知夫郡), 아마군(海土郡)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 조선의 관할구역을 명시한 부분에 경상북도가 나오는데 이 안에 울릉도의 행정구역을 남면, 북면, 서면 3개면으로 구분하여 그 안에 총 9개의 동 이름을 넣고 있다.

그러나 같은 자료가 1929년 판에 오면 시마네현 오키지청의 관할구역 안에 사이고초(西郷町), 도고초(東郷町)가 들어가 있음은 물론 다케시마(竹島)가 들어가 있어 일본의 관할구역임을 명시하고 있다.

『日本地理風俗大系』10권(1930)의 ‘주고쿠(中國) 지방’에는 ‘오키도(隱岐島)’ 편목에 울릉도·독도 관련 기술은 없으나 독도에 관한 사진을 실고 있으며 사진에 대한 설명에서 영토 편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 병합 이후 일본 지리지를 보면,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기술에 있어 울릉도는 조선 영토에서, 그리고 독도는 일본 영토 부분에서 다루는 일이 많아졌

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출간된 일본 지리지 중 『概觀日本地誌』(상권)(야마모토 구마타로 [山本熊太郎], 1930 - 31년) 6장 ‘주고쿠(中國) 지방’의 ‘오키(隱岐) 지방’에는 울릉도·독도 관련 내용이 실려 있지 않다. 『日本地理大系』(1931)와 『新日本地誌』(山本熊太郎, 1937 - 1939) 제 4권 「近畿 中國篇」(1939) 4절 ‘지방지’에도 ‘오키(隱岐)’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울릉도나 독도에 관한 내용은 없다.

오히려 ‘다케시마’에 관한 내용은 일본 전국 지리지에서보다는 지방지나 지방사지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나왔던 『島根縣誌』(1923)에서 ‘다케시마’를 다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島根縣史』9(1930) 역시 울릉도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島根縣史』는 ‘다케시마 사건’이라는 편목을 두어 19세기의 밀무역사건을 다루는 가운데 울릉도로서의 ‘다케시마’를 언급한다. “여기서 다케시마사건이라고 할 때의 다케시마는 시마네 현에 속한 다케시마(즉 리앙코르도 암초)의 서북쪽에 있는 울릉도(蔚陵島)의 일을 가리키지만 이는 표면상의 일로서 실은 대만 남양 지방으로 가서 외국인과 무역을 한 것으로...”라고 하여 울릉도의 옛 지명인 ‘다케시마(竹島)’를 언급하되 1905년 편입 때 명명한 ‘다케시마’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다케시마 일건’이 사실은 울릉도에서의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한 경위와 전국에 내려진 도해금지령에 대해 적고 있다.

『隱岐島誌』(1933) 역시 3편에서 ‘다케시마(竹島)’ 편목을 넣어 일본 영토로서의 독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위치와 지세, 기후, 생물, 어업, 연혁, 다케시마(竹島) 탐험 등에 대해 적고 있다. 지방지로서는 가장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하마다의 역사를 다룬 『濱田町史』(1935) 역시 ‘다케시마(竹島)사건’ 즉 울릉도 쟁계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新日本地誌』(1937 - 42) 제 6권 ‘외지(外地)’편에는 대만과 조선, 관동주, 남양 군도가 일본의 외지에 속한다. 이 가운데 11장 ‘조선 지방’에 보

면 ‘울릉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런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기가 되면 그동안 일본 지리지 안에서 한 셋트로 기술되던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는 자취를 감추고, 대신에 자국 영토로 여기는 ‘다케시마’ 즉 독도에 관해서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이 울릉도는 조선 영토로서, 그리고 ‘竹島’ 즉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로서 분리하여 다루되 다케시마가 자국영토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현대에 들어 전국 지리지에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지방지 차원에서만 계승되고 있다. 『日本地誌』16권(일본지리지연구소, 1977)을 보면, 지역의 성격, 본토와의 격리성, 수산업, 관광, 도시 등에 대해 기술하고는 있으나 ‘독도’ 관련 언급은 없다. 반면에 고카무라 지방을 다룬 『五箇村誌』(아베 마사루[安部 勝] 편, 1989)는 여전히 ‘다케시마’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4장 ‘다케시마(竹島: 독도)’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북위 37도 9분,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한 동서 두 개의 섬과 수십 개의 암초로 구성된, 면적 0.23 평방킬로의 무인도”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1988년 현재까지도 이 섬의 귀속문제가 한국과 미해결인 채라고 주장하고 있다. 『五箇村誌』에서는 1905년의 시마네 현 고시를 ‘태정관 포고’라고 칭하고 있는데 정부적 차원의 조치였음을 밝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리지는 일본 영토로 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가운데, 울릉도를 예전에는 ‘우루마의 섬’으로 불렀으며 1887년대 말부터 오키도민들이 다케시마(독도 - 역자)에서 어렵에 종사, 1903년 나카이 요자부로가 다케시마에 어사를 구축, 다음 해에 편입 대하원을 신청, 정부가 1905년 이 섬을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현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한 경위를 적고 있다. 이후 1939년 고카무라 의회에서 다케시마(竹島)를 고카무라 구역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하여, 오오아자(大字) 구미(久見)의 일부로 만들었으나 그 후 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대장성 관리로 옮겨가 국유재산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적었다.



일본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에 비정되는 호칭 및 표기의 유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표 4-3 | 일본지리지 안의 울릉도·독도 호칭 표기

연도	편저자	서명	발행처	울릉도/독도 비정 호칭
1874-79	地誌課	日本地誌提要	東京	竹島/松島
1886	大槻修二	改正 日本地誌要略	大阪	松嶋/竹嶋
1902-3	村岡良弼	日本地理志料	東京	松島(울릉도, 宇留萬)/竹島
1903-15	山崎直方, 佐藤傳藏	大日本地誌	東京	없음/竹島(他計甚麼, 舩羅島, 리양코토 암, 호넷 열도)-오키소속
1911	井原儀	最新 日本地理資料	東京	울릉도(松島)/竹島-오키소속
1923	島根懸教育會	島根縣誌	松江	없음/竹島(독도, 리양코 암)-오키소속
1926	高橋勝	最新 日本地理資料	東京	없음/없음
1930	仲摩照久	日本地理風俗大系 10	東京	다케시마(독도) 사진 수록
1929		帝國行政區畫便覽	東京	없음 /다케시마
1930-1	山本熊太郎	概觀日本地誌 (상권)	東京	없음/없음
1930	島根縣 편	島根縣史 9	島根	없음/다케시마(리양코르도 암초)
1933	島根縣 隱岐支廳 편	隱岐島誌	島根	/다케시마
1937-42	山本熊太郎	新日本地誌	東京	울릉도/없음
1977	日本地誌 研究所	日本地誌 16		없음/없음
1989	安部 勝 편	五箇村誌	島根縣	없음/다케시마

### 3. 수로지의 울릉도·독도 기술

#### 1) ‘울릉도 일명 마쓰시마, 독도 리앙코루도 열암’으로 기술

수로지 발행에 앞서 나온 것은 수로잡지이다. 일본이 발행한 『수로잡지(水路雜誌)』에는 여러 해양정보를 담고 있어 그 가운데 영토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수로잡지』제16호(해군수로국, 1879 편집, 1883발행)<sup>114)</sup>는 조선의 동해안을 기술하면서 ‘마쓰시마(松嶋)’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 나온 마쓰시마는 울릉도를 가리킨다. 일본 함대가 와서 직접 실측하여 북위 37도 48분 동경 130도 32분<sup>115)</sup>에 소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해군이 조사한 시기는 1878년 6월로 되어 있다. 일본인이 이곳 울릉도에 와서 (조선 - 역자) 주민들이 작은 어사를 지어 고깃배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림지도에는 울릉도와 주변의 북정서, 竹嶼, Boussole Rx, 호루 암 등이 나타나 있고 울릉도 그림에는 ‘일본 명칭 松島’라는 말이 병기되어 있다.

『수로잡지』 제41호(해군수로국, 1883년 7월 간행)에 기록된 ‘울릉도’ 부분을 보면, 제목이 ‘鬱陵島(一名 松嶋)’로 되어 있다. 울릉도는 오키에서 서쪽으로 140리(里), 조선에서는 약 8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섬으로 경위도는 북위 37도 22분, 동경 130도 57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러시아의 측량임을 밝히고 있다. 일본함대의 조사를 인용한 『수로잡지』 16호에 나온 경위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또한 『수로잡지』 41호에는 울릉도 외에 ‘죽서(竹嶼)’에 관한 기록도 보인다. 죽서(竹嶼)에 대하여 “조선인은 이를 죽도(竹島)라 부른다”고 주석을 붙였으며 본문에서는 이 죽도가 울릉도 근해에서 가장

114) 위 기사는 1878년 아마기함의 조사에 근거하여 1879년 3월에 수로국에서 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로잡지』16호의 발행시기는 1883년으로 되어 있다.

115) 울릉도에서 2리 되는 곳의 경위도는 북위 37도 32분 45초, 동경 130도 49분이었다. 현재의 죽도를 가리키는 듯하다.

큰 섬이며,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7련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죽서의 북방 약 5련 되는 곳에 하나의 서(嶼)가 있고, 북쪽으로 두 개의 동굴이 나란히 있으며, ‘호-루 암’이라는 바위가 북쪽해안에 있다고 하였다. 호루 암은 현재의 공암을 말한다. 근해의 수심은 대체로 350길 이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보았다. 16호와 마찬가지로 그림지도가 첨부되어 竹嶼(Boussole Rx)와 북정서(北亭嶼)도 함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죽도라 부르는 명칭은 본래 죽도(댓섬)였으며 ‘죽서’는 일본의 호칭임을 알 수 있다.

수로잡지인데도 불구하고 울릉도의 산물에 관해서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섬 안의 조선인 거주인은 104인이라고 했는데, “봄가을 두 계절 사이에 이 섬에 와서 새로 어선을 만들어 구선과 바퀴 육지로 돌아간다”고 했다. 1883년은 개척령이 내려진 다음해로 울릉도에 처음 이주민이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정착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100명이 안 되었다. 따라서 이때 일본인들이 목격한 조선인들은 개척민이 아니라 임시로 와있던 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당시에는 주로 전라도 등지의 사람들이 배를 만들기 위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수로지로 볼 수 있는 것은 1883년에 나온 『寰瀛水路誌』이다. 이 수로지는 일본 해군 수로국이 편찬한 세계 수로지로서 4편 「朝鮮東岸」, 「朝鮮東岸及諸島」에서 ‘리양코루토 열암(リヤンコ-ルト列岩)’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다. 여기서 ‘리양코루토 열암’은 독도를 말하는데, 이 수로지는 ‘독도’를 조선 동안에 있는 섬으로 보고 그 안에 넣은 것이다. 독도를 ‘리양코루토 열암’으로 표기한 수로지로서는 처음인데<sup>116)</sup>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 리양코루토 열암

이 열암은 1849년 불국선 리양코루토 호가 처음으로 이를 발견, 선박

116) 지도에는 1855년 「중정 만국전도」에 보이고 1867년 가쓰 가이슈의 「대일본연해략도」에도 ‘리양쿠르도 록’이라는 호칭이 나온다.

명을 따서 리양코루토 열암이라 이름 붙였다. 그 후 1854년 러시아 프리깃도형 함대 파루라스(팔라다 - 역자)호가 이 열암을 ‘메네라이’와 ‘올리부차’ 열도(列島)라고 칭했고 1855년 영국 영국함대 호넷 호가 이 열암을 탐험하여 ‘호넷’ 열암이라 이름붙였다. 이 함대의 함장인 포르시스가 말하기를, 이 열암은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5분되는 곳에 위치하며 아무 것도 나지 않는 두 개의 암서로서 새똥이 항상 섬 위에 쌓여 있어 섬의 색깔이 이 때문에 희다. 북서 미서(微西)에서 남동 미동(微東)에 이르는 길이 모두 합쳐 약 1리(里)로 두 섬의 거리가 4분의 1리임은 틀림없다. 하나의 초막이 있어 이를 서로 잇고 있고 서서(西嶼)는 해면상의 높이가 410척<sup>117)</sup>이고 형태는 사탕막대 같다. 동서(東嶼)는 비교적 낮고 정상이 평평하다. 이 열도 부근은 수심이 자못 깊지만 그 위치는 하코다테를 향해 일본해를 향해하는 선박의 직수로에 해당되므로 매우 위험하다.

이 『寰瀛水路誌』는 해군 수로부 발행으로 1886년에 2권 2판으로 다시 나왔다. 이 수로지의 4편 「朝鮮東岸」 ‘朝鮮東岸及諸島’ 부분에 ‘일본해’에 이어 ‘리양코루토 열암’과 ‘울릉도’를 다루고 있는데, 내용은 1883년판과 유사하다. 여기에도 동도와 서도가 동서(東嶼), 서서(西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울릉도에 대해서는 “울릉도 일명 松島(서양명 다줄렛, 해군 해도 제 95호, 제 141호, 제 169호, 영국 해군 해도 제 2459호를 참조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울릉도가 “오키에서 북서 4분의 3 서쪽 약 140리(里), 조선 강원도 해안에서 약 80리(里) 떨어진 바다 가운데 고립해 있다”고 하여 『수로잡지』 41호의 기록과 거의 같다. 다른 내용도 비슷하다. 경위도에 대해서는 “그 중앙은 바로 북위 37도 30분, 동경 130도 53분이라”고 했으므로 『수로잡지』의 기술과는 약간 다르다.

이 『寰瀛水路誌』는 죽도에 대하여 ‘竹嶼’라 하고 ‘(서양명 보츠루 암)’이라고 주석을 붙였다. “이 서(嶼)의 남서 미남(南西微南) 2분의 1서(西)로 북정

---

117) 약 124미터이다.

서(北亭嶼)가 있다”고 했다. 현지명 북저바위를 이르는 듯하다. 울릉도에 “춘하 계절에 조선인이 이 섬에 와서 조선형 배를 만들고 이 배를 타고 본국에 돌아간다”고 한 것으로 볼 때, 개척령 이후의 이주민과는 별도로 조선(造船)을 목적으로 울릉도에 일단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던 상황이 증명된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도명 혼란이 근대기에 들어 수십 년간 지속되는 가운데 점차 울릉도는 ‘마쓰시마’로, 독도는 ‘다케시마’로 정리되어 가는데, 그 계기를 통상 1894년 일본 수로부의 『조선 수로지』 간행으로 본다. 그러나 울릉도를 마쓰시마로 표기한 용례는 『수로잡지』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그 후 『환영 수로지』 등을 비롯한 수로지에도 이어졌다. 다만 『조선 수로지』가 울릉도에 대해 “울릉도(일명 松島)”라고 기재한 후 1900년대에 간행된 지도에는 ‘鬱陵島(松島)’라는 식으로 울릉도와 마쓰시마가 병기되는 형식이 대세를 이루었다.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嶋)로 표기한 것은 수로지뿐만 아니라 지리지에서도 보였다.<sup>118)</sup>

1894년의 『조선 수로지』에 수록된 지도에 울릉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조선의 위치는 “북위 33도 15분에서 42도 25분, 동경 124도 30분에서 130도 35분까지”로 보고 있는데, 이는 1894년의 『신찬 조선지리지』의 기술과 동일한 것이다. 이 경위도만으로 보면 울릉도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 경위도 기술은 1894년 이전의 수로지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동 시기의 지리지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이채롭다. 『조선 수로지』는 4편 「朝鮮東岸」의 ‘朝鮮東岸及諸島’에 독도 관련 내용이 먼저 나오고 나서 울릉도 관련 내용이 나온다. 독도에 관한 내용은 ‘리양코루토 열암’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寰瀛水路誌』 기록과 거의 유사하다. 『조선 수로지』에서 ‘울릉도’에 관한 내용의 제목은 ‘鬱陵島(一名 松島)’로 되어 있다. 죽도에 대해서는 ‘竹嶼’로 표기했고 “(이 섬은 울릉도 동빈[東濱]에서 7련되는 곳에 있다)”고 하

118) 1886년판 『개정 일본지리지요략』에 울릉도를 松嶋로 적고 있다.

여 지금의 죽도임을 말해주고 있다. ‘죽도’의 이칭인 ‘보츠투’ 즉 ‘부술 락스’인 점도 병기하고 있다.

1897년의 『일본 수로지』 4권에는 울릉도·독도 내용은 없고 지도만이 실려 있다. 이어 1899년의 『조선 수로지』 역시 이전의 수로지와 크게 다른 내용은 없고, ‘리앙코루토 열암’ 다음에 울릉도가 나온다. 즉 독도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환영 수로지』와 같으나 단락이 나뉘어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 열암은 1849년 불국선 리앙코루토 호가 처음으로 이를 발견, 선명을 따서 리앙코루토 열암이라 이름 붙였다. 그 후 1854년 러시아 프리깃 토형 함대 파루라스호가 이 열암을 ‘메네라이’와 ‘올리부차’ 열도(列島)라고 칭했고 1855년 영국 영국함대 호루네토 호가 이 열암을 탐험하여 ‘호넷’ 열암이라 이름 붙였다. 이 함대의 함장인 포르시스가 말하기를, 이 열암은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5분되는 곳에 위치하며 아무 것도 나지 않는 두 개의 암서로서 새똥이 항상 섬 위에 쌓여 있어 섬의 색깔이 이 때문에 희다. 북서 미서(微西)에서 남동 미동(微東)에 이르는 길이 모두 합쳐 약 1리로 두 섬의 거리가 4분 1리임은 틀림없다. 하나의 초막이 있어 이를 서로 잇고 있다.

- 서서(西嶼)는 해면상의 높이가 410척이고 형태는 사탕막대[糖塔]같다. 동서(東嶼)는 비교적 낮고 정상이 평평하다.
- 이 열도 부근은 수심이 자못 깊지만 그 위치는 하코다테를 향해 일본해를 향해하는 선박의 직수로에 해당되므로 매우 위험하다.

또한 1894년판 『조선 수로지』에는 울릉도에 관해 ‘鬱陵島(一名 松島): 해군 해도 제54호, 제95호를 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1899년 2판은 ‘鬱陵島 一名 松島:해도 제 21호, 제95호를 보시오’라고 되어 있다. 지도가 실려 있으나 울릉도와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이때의 해군 수로부장은 기모

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로 되어 있는데 기모쓰키는 후일 나카이 요자부로로 하여금 ‘독도’에 대해 신청을 하게 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1904년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에서의 강치잡이 경쟁이 심해지자 이 섬을 독점적으로 대하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전전하며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이때 기모쓰키는 해군 수로부장으로 “이 섬의 소속은 확실한 증거가 없고 특히 한일 양국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면 일본 쪽으로 10해리 정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일본인 중에 이 섬 경영에 종사하는 이가 있는 이상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해주었다. 일본쪽으로 더 가깝다는 말에 힘을 얻은 나카이는 마침내 내무·외무·농상무 세 대신에게 ‘리양코 섬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시마네현 고시 40호에는 독도의 경위도가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으로 되어 있는데, 1902년 10월 미국 수로부 고시 43호<sup>119)</sup>에 나온 경위도와 같다. 시마네 현 고시가 미국 수로부 고시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오쿠하라 헤키운의 『竹島及鬱陵島』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08년 8월 4-5일에 일본 수로부가 군함 마쓰에를 파견하여 측정한 바에 의하면, 동도의 위치는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로 되어 있다.<sup>120)</sup> 일본의 실측에 의해 정보가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1907년 수로지가 간행되기 이전인 1904년에 일본은 니타카 함대를 독도에 파견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독도’라는 명칭과 ‘리양코 도’라는 명칭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 ‘독도’라는 명칭은 그동안 수로지에서는 보이지 않던 명칭이다.<sup>121)</sup> 이들 명칭은 1905년 편입 당시에 정한 ‘다케시마’와 1907년 『조선 수로지』에 보인 ‘다케시마’ 호칭 사이에 보인 것이라는 점

119) 奥原碧雲, 『竹島及鬱陵島』 30쪽.

120)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東京: 古今書院, 1966), 5쪽.

121) 니타카 함의 1904년 9월 25일 『행동일지』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마쓰시마에서 리양코루토 암을 실제로 본 사람으로부터 들은 정보에 의하면, 리양코루토 암을 한국 사람들은 독도라고 쓰며 우리나라 어부들은 리양코 도라고 부른다.”

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 땅으로 편입하기 직전까지도 독도에 대한 명칭을 단일화하지 못한 채 혼란을 겪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 2) 독도 호칭이 ‘竹島(Liancourt rocks)’로 변화

1907년에는 『朝鮮 水路誌』(제2개판)와 『日本水路誌』가 둘 다 간행되었다. 『일본 수로지』(제4권, 제1 개판, 1907)에서는 4편 ‘本洲北西岸’에서 ‘독도’를 다루고 있는데, 제목이 ‘리양코루토 열암’에서 ‘竹島(Liancourt rocks)’로 바뀌어 있다. ‘다케시마’가 전면에 나오고 리양코루토 락스는 괄호 안에 영어로 들어가 있어 1905년 시마네현의 편입 때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한 정황이 반영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iancourt rocks)’가 병기되어 있다는 것은 고유 호칭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기본적인 설명은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즉 오키 열도의 북서 약 80리(浬)에 위치하는 군서(群嶼)로서, 둘레가 약 2리(浬), 동서의 두 섬(嶼)과 여러 개의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섬으로 되어 있다. 이는 『조선 수로지』의 내용과 흡사한 것이다. 또한 이 『일본 수로지』는 “매년 6-7월경 해표(海豹) 사냥을 위해 본방 어부들이 도래함으로써 메이지 38년 시마네 현 소관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어 편입 사실과 강치 호칭이 ‘해표’임을 보여주고 있다. 울릉도에 관한 내용은 없고, 지도에도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1907년의 『조선 수로지』는 이전 수로지에 새 자료를 보완하여 개편되었다. 이 수로지의 특징은 이전 수로지에 비해 ‘독도’ 관련 내용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5편 「일본해 및 조선동안」에 독도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일본해(Japan sea)’ 다음에 ‘竹島[Liancourt rocks]’가 나온다. 동 시기 『일본 수로지』와 마찬가지로 1905년 시마네현의 편입 때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한 상황이 반영되어 ‘竹島’가 먼저 나온다. 그러나 편입 이후인데도 조선 수로지에서 독도에 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실고 있다는 사실은 수로



지 자체가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보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용에 있어서도 『조선 수로지』가 독도에 관한 일반적 설명 외에 섬 위의 평지, 담수, 위치 등의 편목을 두어 따로 설명하고 있어 이전의 수로지에 비해 좀 더 자세하기 때문이다.

1849년 불국선 리앙코루토 호가 처음으로 발견하여 Liancourt rocks라 칭했다. 그 후 1854년 러시아 함대 파루라스호가 이 열암을 ‘Menalai and Olivutsa rocks’라 불렀다. 한인(韓人)은 이를 독도(獨島)라 쓰고 본방 어부는 량코 島라고 한다.

이 섬은 일본해상의 하나의 소 군서(群嶼)로서 오키국 도젠에서 대략 80리(浬), 울릉도에서 대략 50리(浬)에 위치한다.....

위의 내용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독도(獨島)’를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 1904년 군함 쓰시마의 일지에 ‘독도’가 언급된 것을 반영한 것인 듯하다. 또한 이제까지의 수로지에서는 울릉도와 양국 즉 조선 및 일본과의 거리관계를 언급했는데 여기서는 독도가 일본 오키와 조선의 울릉도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다. 독도가 “오키국 도젠에서 대략 80해리, 울릉도에서 대략 50해리에 위치”한다고 하여 오키에서보다 울릉도에서 더 가깝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기모쓰키 수로부장이 1904년에 나카이와의 대화에서 독도가 일본 쪽으로 10해리정도 더 가깝다고 했으니, 이는 해군 수로부의 조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자의적인 의견이라 할 수 있다.

### 3) 동도·서도 호칭의 등장과 이칭

수로지에서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독도의 두 섬 즉 동도와 서도에 관한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환영수로지』에서는 ‘동서(東

嶼), ‘서서(西嶼)’로 되어 있던 것이 『조선 수로지』에서는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로 되어 있다. 1907년의 『조선 수로지』보다 한 해 먼저 저술된 『竹島及鬱陵島』<sup>122)</sup>에는 ‘동서’와 ‘서서’로 되어 있다. 현재 한국에서 두 섬에 대한 호칭으로는 주로 ‘동도’와 ‘서도’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조선 수로지』에 보인 ‘동도’와 ‘서도’ 호칭이 전래되던 한국 호칭이 반영된 결과 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동도’와 ‘서도’라는 호칭이 가장 먼저 보인 수로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조선 수로지』는 수로지로서는 처음으로 독도가 강치 서식지임을 밝히고 있다.<sup>123)</sup> 매년 여름이면 ‘토도(강치 - 역자)’사냥을 위해 울릉도에서 도래하는 자들이 수십 명에 이르며, 이들이 섬에 작은 가옥을 짓고 매회 약 10일정도 머문다고 전해들은 사실을 기록하였다.<sup>124)</sup> 서도에 물골이 있다는 사실도 적었다. 독도의 경위도를 “북위 37도 0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으로 적고 있는데, 이는 1902년 미국 함대 ‘뉴욕’호의 조사 결과와 같은 숫자이다. 참고로 밝히면, 1883년 『환영 수로지』에 기록된 독도 경위도는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5분”으로 되어 있다.

『조선 수로지』(1907년)에서 밝힌 울릉도에 대한 기록은 ‘鬱陵島 一名 松島[Dagelet island]’라고 하여 ‘마쓰시마’뿐만 아니라 ‘Dagelet island’도 병기되어 있다. 내용은 전반적으로는 『환영 수로지』와 비슷하지만, 울릉도의 인구 숫자를 적은 점이 다르다. “한인(원문대로)<sup>125)</sup> 주민은 메이지 37년(1904년 - 역자) 12월 말 조사에 의하면 호수가 85호, 인구는 260, 그 중 남자가 175, 여자가 85명 있다. (메이지 - 역자) 38년(1905년 - 역자) 6월 말에는

122) 출판은 1907년이지만 저술 시기는 1906년이다.

123) 지리지 가운데는 1903년 『한해통어지침』에 보인다.

124) “섬 위에는 가옥을 건축할 만한 땅이 매우 부족하며, 메이지 37년 11월 군함 쓰시마가 이 섬을 실사할 때는 東島에 어부용 작은 집이 있었으나 풍랑으로 인해 심하게 파괴되었다고 한다. 매년 여름이면 토도사냥을 위해 울릉도에서 도래하는 자가 수십명에 이른 적도 있으며 그들은 섬 위에 작은 가옥을 짓고 매회 약 십일간 임시로 거주했다고 한다.”

125) 일본인을 잘못 쓴 듯하다. 당시 울릉도 인구는 5천명 이상을 헤아린다.

호수가 110, 인구는 366, 남자는 219, 여자가 147로 증가했다.”고 되어 있다.

이 수로지에 따르면, 울릉도 중앙은 북위 37도 30분 동경 130도 53분에 위치하며 높이 3208척(呎)되는 봉우리가 있다고 한다. 섬의 북동해안에 竹嶼[Boussole rock]를 남남서 4분의 1 서(西) 약 2와 4분의 3리로 바라보는 곳에 수심 2척(呎)내지 3척의 바위가 하나 있다는 사실도 적혀 있다. 울릉도 체류중인 일본인에 관해서는 “벌목꾼, 목수, 어부, 선원 및 증매상이 가장 많고 기타 제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메이지 38년(1905년 - 역자) 6월 말에는 그 수가 약 230인”이라고 하였다. 수로지인데도 섬의 현황을 자세히 적고 있어 토지와 건강관계, 생산물의 종류, 그리고 강치와 포획관계, 전복 채취, 섬에 서식하는 조수, 목재, 수출입품 등에 관해서까지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당시 활발히 편찬되던 지리지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자세한 기술 자체가 울릉도가 일본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것이다. 1908년 8월 4-5일 해군 수로부 실측에 의하면, 독도의 두 섬 이름이 동도는 여도(女島)로, 서도는 남도(男島)로 되어 있다.<sup>126)</sup>

1911년의 『일본 수로지』 제6권에는 지도가 실려 있는데 울릉도는 그려져 있으나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울릉도’ 제목은 ‘鬱陵島 一名松島 [Dagelet island]’로 되어 있어 1907년의 『조선 수로지』와 같다. 내용은 “용추 곳 동북동 4분의 3 동쪽 약 71리(浬)에 있는 둘레 22리의 반원형 섬으로 섬 전체가 많은 뾰족한 원추형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로 시작하여 섬 중앙부는 “북위 37도 30분, 동경 130도 52분되는 곳에는 높이 3230척의 봉우리(羅里山)가 하나 있는데 우뚝하게 솟아 있다”고 되어 있어 나리산 명칭이 등장한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한국 수산지』(1910)에서 말한 최고봉의 높이가 같은 것으로 보아 중봉을 이르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나리산으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또한 이 수로지는 ‘죽서(竹嶼)’와 ‘삼형제암’<sup>127)</sup>을 언급하

126) 川上健三, 앞책, 5쪽.

고, 삼형제암 중 중앙에 있는 가장 큰 바위의 높이는 357척(呎)이며, 일본인은 이 열암을 ‘삼본다테[三本立]’라고 한다는 사실도 적었다. 공암, 추산, 황토금말(黃土金末), 간령말(間嶺末), 사공남말(沙空南末) 등의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는 『한국 수산지』에도 나온다.

쌍정초(雙頂礁)에 대해서도 언급하여 “죽서(竹嶼)의 정상에서 북으로 10도 동쪽 1리(浬) 반 되는 곳에 있다. 수심은 반 길과 4분의 3길(尋)로, 날씨가 안 좋을 때는 파도가 인다”고 하였다. 쌍정초는 울릉도 현지에서 지금도 쌍정초라 불린다. 이미 조선이 일본에 병합된 후이므로 조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던 정황을 반영하듯, 일본 수로지인데도 조선인과 일본인 인구 현황, 지명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1910년 이후 조선 수로지는 한동안 편찬되지 않다가 1930년대가 되어서야 『조선연안 수로지』로 나온다. 여기에는 울릉도가 당시 경상남도(慶尙南道)에 속해 있으며 1910년 5월 조선인 인구는 5140명, 1909년 12월 일본인 인구는 768인임을 밝혔다. 주민, 도동, 기후, 산물 수출입품, 공급품에 관한 부분이 1907년 『조선 수로지』의 기술과 같다. 그러나 1911년 『일본 수로지』 제6권에는 이 외에 ‘조수와 조류(潮及潮流)’ 편목이 추가되어 있다. 이 일본 수로지(水路誌)에서 독도(128)에 관해서는 ‘竹島[Liancourt rocks]’라는 제목으로 기술되어 있다. 내용은 1886년의 『瀛瀛水路誌』에서 말한, 프랑스 선박 리앙코루토 호에 의한 리앙코루토 열암 명명, 러시아 함대의 ‘메네라이’와 ‘올리부차’ 열도(列島) 호칭, 그리고 1855년 영국 영국함대의 ‘호넷’ 열암 호칭에 관한 사실을 적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07년 『조선 수로지』에서 말한 ‘독도’와 ‘리앙코 島’에 관한 사실까지 언급하여 두 수로지를 모두 인용하고 있다. 『조선 수로지』(1907년)에는 ‘동도’, ‘서도’로 호칭되어 있던 것이 1911년 『일본 수로지』에는 ‘동방도’ ‘서방

127) 우리나라는 삼선암이라 부른다.

128) 6권 일본 수로지: 朝鮮全岸

도'로 되어 있다. 동도와 서도 호칭에 관해 보면, 1907년의 『조선 수로지』에는 “섬 위에는 가옥을 건축할 만한 땅이 매우 부족하며, 1904년 11월 군함 쓰시마가 이 섬을 실사할 때는 동도(東島)에 어부용 작은 집이 있었으나 풍랑으로 인해 심하게 파괴되었다고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건대, 1904년에서 1907년까지만 해도 두 섬의 호칭은 ‘동도’와 ‘서도’로 칭해졌었다. 매년 여름이면 해려(海驢)사냥을 위해 울릉도에서 도래하는 자가 수십 명에 이르며 그들은 섬 위에 작은 가옥을 짓고 매회 약 10일 간 임시로 거주한다고 되어 있어 강치에 관한 호칭이 1907년 『조선 수로지』와 같으나 『조선 수로지』에서는 ‘토도’로 되어 있었다면 여기서는 ‘해려’로 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

‘다케시마(독도 - 역자)’의 동방도 남단은 “메이지 41년(1908년 - 역자) 측정에 의하면,<sup>129)</sup>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에 있다”고 되어 있다. 1907년 『조선 수로지』가 미국 함대의 조사에 근거하여 “북위 37도 0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으로 본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동안 일본 수로지에서 울릉도·독도 관련 내용은 주로 「일본해 및 조선 동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1916년 단계에 오면 약간의 변화가 보인다. 즉 이 시기에 오면 ‘독도’ 관련 사실이 해안보다는 섬과 연관 지어져 ‘이도(離島)’ 편목에 들어가 있다. ‘竹島(Liancourt rocks)’ 부분을 보면, “東嶼(女島)는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 즉 오키 열도 북서쪽 약 80리(浬) 되는 곳에 있는 군서(群嶼)로서 둘레가 약 2리(浬), 동서 두 섬과 여러 개의 암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 보인 경위도는 1911년 일본 수로지에 보인 경위도와 동일하지만, 1916년 수로지에서는 ‘동서(東嶼)’와 ‘여도(女島)’를 병기하고 있다. 지도에서는 ‘다케시마(竹島)’를 일본 영토로 나타내고 있다.

129) 1907년 미국의 측량을 인용한 것에서 자국 측량으로 변화함

1920년의 『일본 수로지』 10권(상)은 조선 연안을 그린 해도 위에 울릉도만을 나타내고 있다. 울릉도에 대해서는 ‘鬱陵島 一名松島[Dagelet island]’라는 제목 아래 다루고 있는데, “용추곶의 69도 약 73리(浬)에 있는 둘레 22리(浬)<sup>130)</sup>의 반월형 섬으로...섬 중앙부 즉 북위 37도 30분, 동경 130도 52분되는 곳에는 높이 3230척의 한 봉우리인 성인봉[聖人峯(羅里山)]이 우뚝하다”고 하였다. 나리산으로 표기되던 봉우리 이름이 성인봉으로 표기된 것이 1911년의 수로지와 다른 점이다.

1920년 단계에 오면, ‘죽도’에 대한 표기가 이전의 ‘죽서’에서 ‘竹島(チュクト)’로 바뀌어 있다. 현지명인 ‘죽도’를 그대로 발음하고 있는 것이다. (죽도가 - 역자) 동쪽 해안에서 1리(浬) 남짓 떨어진 곳에 있으며 주위가 험하고 그 정상은 편평하며 큰 나무가 뻗뻗이 자란다고 하였다. “섬의 북동쪽 가까이 세 개의 열암이 있는데 ‘삼형제암’이라고 하며 기둥모양을 이룬다, 가장 큰 바위가 중앙에 있는데 높이는 357척(呎)이다. 내지인은 이 바위들을 ‘삼본다테[三本立]’라고 칭한다”고 하여 1911년의 『일본 수로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또한 1911년의 『일본 수로지』와 마찬가지로 삼형제암, 추산, 삼선암, 황토금말, 간령말 등의 지명이 보인다. 다만 사공남말(沙空南末)에 대해서는 ‘杏南末(沙空南末)’로 되어 있어 행남말이라는 새로운 지명이 등장하고 있다. 쌍정초(雙頂礁)에 대해서는 “竹島(竹嶼)<sup>131)</sup>의 정상에서 4도(度) 1리(浬) 반 되는 곳에 있는데 수심은 반 길[尋]과 4분의 3길로 날씨가 나쁠 때는 파도가 인다. 이 초(礁)에서 공암(孔岩)을 바라보면 바로 형제암 중 北西岩(북서암)과 울릉도 북동안(北東岸)과의 중앙에 해당한다. 방위는 257도이다”고 하여 1911년 『일본 수로지』와는 약간 다르다. 또한 1911년의 『일본 수로지』

130) 리(里)의 오류인 듯하다.

131) 원문 그대로 표기한 것임

와 다른 점은 ‘박지(泊地)’ 편목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본도중 선박이 임시로 정박할 만한 것은 겨우 동안에 사동과 저동 두 곳에 불과하다. 사동 정박지는 간령말의 4-5도 1리(浬) 반 되는 곳에 있으며 서방에서 북방으로 이르는 사이의 바람을 막아준다. 저동의 정박지는 행남말의 북북서 방향 7련 떨어진 곳에 있다. 수심이 적당하고 바닥이 고운 모래이며 서방풍과 남방풍을 막는다.

저동 정박지의 북북동 2련 반에 靑島(北岩)이라 불리는 암서가 있다. 정상이 뾰족하고 높이가 137척(呎)인데 방인(邦人)은 이를 두도(兜島)라 한다.

이 ‘두도(兜島)’는 글자대로 해석하자면 ‘투구 섬’이다. 투구바위를 이렇게 표기한 것 같은데 현재 촛대바위로 불리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여기에는 울릉도를 경상북도 부속도서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울릉도가 1914년에 경상남도에서 경상북도 소속으로 바뀐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1911년 『일본 수로지』에는 일본인 인구를 1909년 12월 기준으로 768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700여 명으로 되어 있다.

‘독도’에 관해서는 ‘竹島[Liancourt rocks]’로 되어 있는데, ‘竹’자 위에 ‘たけ’라고 써주어 ‘다케시마’로 읽는 것임을 밝혔다. 이는 한자가 같지만 죽도와 다르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일본인은 ‘량코 도’라고 부른다는 점도 밝혔다. 동도와 서도를 ‘동방도’와 ‘서방도’로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나 다른 내용은 1911년의 기술과 비슷하다. 다만 『조선 수로지』(1907년)에는 “메이지 37년 11월 군함 쓰시마가 실사할 때는 동도에 어부용 작은 집이 있었다”고 한 것이 여기서는 “메이지 37년 11월 군함 쓰시마가 이 섬을 실사할 때는 동방도에 어부용 작은 집이..”라고 되어 있어 ‘동도’가 ‘동방도’로 바뀌어 있다. 또한 1920년 단계에 오면, 강치 호칭이 ‘해려(海驢)’라고 적고 옆에 ‘トト’를 병기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동도’와 ‘서도’

호칭은 ‘동방도’, ‘서방도’로 되어 있다. 다만 경위도가 “다케시마(竹島)의 동방도 남단은 메이지 41년(1908년 - 역자)의 측정에 의하면,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33초에 있다”고 되어 있어 ‘22초’가 ‘33초’로 바뀌어 있다.

이로써 보자면 일본 수로지와 조선 수로지의 울릉도·독도 관련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표기가 점차 ‘鬱陵島 一名松島[Dagelet island]’, ‘竹島[Liancourt rocks]’로 정착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1907년 이전에는 ‘리앙코루토 열암’으로 되어 있다가 1907년부터는 ‘竹島[Liancourt rocks]’라고 하여 ‘리앙코루토 열암’의 의미를 괄호에 넣는 대신 앞에 ‘다케시마(竹島)’가 본령이 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해 독도를 편입한 이후의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일본 수로지 상의 ‘경위도’ 기술에 있어서도 수로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다만 독도의 두 섬에 관한 호칭이 ‘동도’의 경우 ‘동방도’인가, ‘東嶼(女島)’로 되어 있는가는 수로지에 따라 다르다. 독도의 두 섬에 대한 호칭이 ‘동서’ 방향에 의한 호칭에서 점차 ‘남녀’ 구분에 의한 호칭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이는 일본 수로지에만 보이는 특이한 현상이다.

1933년의 『朝鮮沿岸水路誌』는 이전 수로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1910년 이후 뜸했던 조선 수로지가 연안수로지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내용은 편목이 ‘鬱陵島及竹島’로 되어 있다. 울릉도에 대해서는 이전에 병기되던 ‘다즐레 섬(Dagelet island)’이 보이지 않는 대신 ‘鬱陵島[松島]’ 즉 ‘마쓰시마’로 대체되고 있다. 내용은 1920년의 『일본 수로지』 내용과 유사하여, 성인봉, 삼형제암, 공암, 추산 등에 관한 내용이 보인다. 단지 “섬의 북서쪽을 待風坎(タイフウカン)(黄土金末)이라 칭하는데 높이가 155미터로 뾰족한 바위가 정상에 이르고 있다.”고 하여 바위 높이가 ‘척’에서 ‘미터’로 바뀌어 있고, 대풍감이 덧붙여진 점이 약간 다르다. 죽도



와 쌍정초에 관한 내용이 보이는 것도 1920년의 일본 수로지와 다르지 않다. 울릉도의 주민 인구는 11,231명(1930년 10월 1일 국세조사)으로 나와 있고 경상북도 소속으로 되어 있다.

독도 관련 내용을 보면, 1907년 『조선 수로지』에서는 제목이 ‘竹島 [Liancourt rocks]’였던 것이 여기서는 ‘竹島(タケシマ)’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라고 후리가나를 붙여 ‘죽도’와 구분한 것이다. 동·서도 두 섬을 ‘동방도·서방도’로 표기하고 있지만 그림에는 ‘동도’ ‘서도’로 되어 있어 일치하지 않는다. 강치는 ‘해려(海驢)’로 호칭되고 있다. ‘독도’라는 호칭이 수로지에서는 1907년 『조선 수로지』에 처음 보였지만, 한인들의 호칭으로서 ‘독도’가 처음 언급된 것은 『軍艦新高行動日誌』 1904년 9월 25일 일지에서이다. 이렇듯 수로지에서 울릉도와 독도 관련 내용은 표기를 보아도 그 추이를 알 수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로지의 발간 연혁<sup>132)</sup>과 울릉도·독도 호칭 부분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표 4-4 | 수로지의 발간 연혁

수로지명	연도	서기	비고
환영수로지 제2권	메이지 16년 4월	1883	
환영수로지 제2권 2판	메이지 20년 1월	1886	
조선수로지	메이지 27년 11월	1894	환영수로지 중 조선 분리
조선수로지 제2판 <sup>133)</sup>	메이지 32년 2월	1899	
조선수로지 제2 개판	메이지 40년 3월	1907	
일본수로지 제4권 제1개판	메이지 40년 6월	1907	
일본수로지 제6권	메이지 44년 12월	1911	조선 수로지의 개정판

132) 『조선연안 수로지』 1권(1933)에 실린 것을 표로 정리하였으나 약간 다른 것도 있다. 여기에는 실려 있지 않으나 『일본 수로지』는 1897년에 4권, 1907년에 4권 제1개판, 1916년에 4권이 나온 바 있다.

133) 『조선연안수로지』에는 제1 개판으로 되어 있다.

| 표 4-4 | 수로지의 발간 연혁(계속)

수로지명	연도	서기	비고
일본수로지 제10권	다이쇼 6년 3월	1917	일본수로지 6권의 개정판
일본수로지 제10권 상	다이쇼 9년 4월	1920	일본수로지 10권 중 제1편 조선부분 개정
일본수로지 제10권 하	다이쇼 9년 7월	1920	일본수로지 10권 중 제4편과 5편 개정
조선연안수로지 제1권	쇼와 5년 12월	1930	일본수로지 10권 상을 개칭
조선연안수로지 제2권	쇼와 5년 12월	1930	일본수로지 10권 하를 개칭
조선연안수로지 제1권 개판	쇼와 8년 1월	1933	
조선연안수로지 제2권 개판	쇼와 9년 8월	1934	

수로지의 울릉도·독도 관련 호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4-5 | 수로지에 보인 울릉도·독도 호칭

수로지명	서기	울릉도 호칭	독도 호칭
수로잡지 16호	1883	松嶋	
수로잡지 41호	1883	鬱陵島(一名松嶋)	
환영수로지 제2권	1883		리양코루토 列岩
환영수로지 제2권 2판	1886	鬱陵島一名松島(洋名 ダゲレット)	리양코루토 열암
조선수로지	1894	鬱陵島(一名松島)	리양코루토 열암
조선수로지 재판	1895		
일본수로지 4권	1897	없음	없음
조선수로지 제 2판	1899	鬱陵島(一名松島)	리양코루토 열암
조선수로지 제 2개판	1907	鬱陵島一名松島 [Dagelet island]	다케시마 (Liancourt rock)
일본수로지 4권 1개판	1907		다케시마 (Liancourt rocks)

| 표 4-5 | 수로지에 보인 울릉도독도 호칭(계속)

수로지명	서기	울릉도 호칭	독도 호칭
일본수로지 제 6권	1911	鬱陵島一名松島 [Dagelet island]	다케시마 (Liancourt rocks)
일본수로지 4권	1916		
일본수로지 제 10권	1917		
일본수로지 제 10권 상	1920	鬱陵島一名松島 [Dagelet island]	竹島(Liancourt rocks)
일본수로지 10권 하	1920		
조선연안수로지 제 1권	1930		
조선연안수로지 제 2권	1930		
조선연안수로지 1권 개판	1933	鬱陵島[松島]	竹島(タケシマ)
조선연안수로지 2권 개판	1934		

일본이 지리지에서 울릉도 호칭을 ‘마쓰시마(松島)’로 쓰기 시작한 것은 1883년 기록에서부터이다. 주지하듯이 에도 시대의 문헌은 주로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호칭했었다. 한편 지리지에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 호칭이 처음에는 ‘리양코루토 열암’으로 나온다. ‘松島’의 ‘松’에 대한 대(對)로서의 죽(竹) 즉 ‘竹島’로서 독도를 표기하기 시작한 것은 1897년 수로지에서이며 그런 표기형태로서 ‘다케시마(竹島)’와 ‘(Liancourt rocks)’가 늘 병기되고 있었다. 동·서도에 대한 호칭 역시 변천을 보이고 있어, 1904년 나카이가 대하원을 낼 당시만 해도 ‘갑서’와 ‘을서’로 호칭했었다. 그러다 1905년 편입 이후 일본 시찰단이 독도에 갈 때는 ‘동서’와 ‘서서’로 호칭했다. 1906년에 오쿠하라 헤키운이 언급한 호칭도 ‘동서’와 ‘서서’였다.<sup>134)</sup> 1907년 『일본 수로지』에도 그대로 ‘동서’와 ‘서서’로 나온다. 이 ‘동서’와 ‘서서’ 표기는 그

134) 『竹島及鬱陵島』에 보인다. 출판 시기는 1907년이지만 기록은 1906년에 이루어졌다.

후 ‘동도’와 ‘서도’(『조선 수로지』, 1907)로 바뀌었다가 다시 ‘동방도’와 ‘서방도’(『일본 수로지』, 1911)로 변화했다. 그 후 ‘동서(여도)’, ‘서서(남도)’로 돌아왔다가(『일본 수로지』, 1916) ‘동방도’와 ‘서방도’(1920)로 된 뒤에는 1930년대에도 이 호칭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1961년 5월의 일본 외무성 조사월보에는 ‘동도’와 ‘서도’로 되어 있었으나, 오늘날 일본은 ‘동도(여도)’, ‘서도(남도)’를 병기하고 있다.<sup>135)</sup> 한국에서는 1947년 『대구시보』에 ‘독도’라는 호칭이 등장하고 다시 두 섬을 ‘좌도’ ‘우도’로 기록한 적이 있으나<sup>136)</sup> 이후로는 주로 ‘동도’와 ‘서도’로 표기되고 있다.

한편 지리지에서 ‘竹島(Liancourt rocks)’ 표기가 ‘竹島(タケシマ)’로 바뀐 것은 1930년대 들어와서이다. ‘리양쿠르’라는 서구식 호칭 대신에 일본식 호칭 ‘다케시마’로 불리기 시작한 것이 1930년대부터라는 사실은 일본에서 독도 호칭이 ‘다케시마’로 정착하기까지의 여정을 보여준다.

울릉도·독도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 ‘죽서’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죽서(竹嶼)는 우리가 ‘죽도’ 혹은 ‘땃섬’이라 불려왔던 호칭에 대한 일본식 호칭이다. 일본에서는 ‘죽서’라는 호칭으로 1883년 『수로잡지』에 등장한 이래 ‘竹嶼’에 ‘보추르’, ‘부술 락’ 등의 이칭을 병기하다가 1933년 『조선 수로지』에 오면 ‘죽도(竹島)’로 정착되기에 이른다.

수로지에 나온 독도 및 독도의 두 섬에 대한 호칭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표 4-6 | 수로지의 독도 및 동·서도 호칭

수로지명	서기	독도 호칭	동도와 서도 호칭
수로잡지 16호	1883		
수로잡지 41호	1883		
환영수로지 제2권	1883	리양코루토 열암	東嶼, 西嶼

135)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참조.

136) 『대구시보』 1947년 6월 29일자 기사, 정병준, 『독도 1947』(돌베개, 2010), 98쪽에서 재인용

| 표 4-6 | 수로지의 독도 및 동·서도 호칭(계속)

수로지명	서기	독도 호칭	동도와 서도 호칭
환영수로지 제2권 2판	1886	리앙코루토 열암	東嶼, 西嶼
조선수로지	1894	리앙코루토 열암	
일본수로지 4권	1897	다케시마(Liancourt rocks)	東嶼, 西嶼
조선수로지 제2판	1899	리앙코루토 열암	東嶼, 西嶼
조선수로지 제2 개판	1907	다케시마[Liancourt rocks], 獨島, 리앙코 島	東島, 西島
일본수로지 4권 제1개판	1907	다케시마 (Liancourt rocks)	
일본수로지 제 6권	1911	다케시마 [Liancourt rocks]	‘東方島’ ‘西方島’
일본수로지 제 4권	1916	다케시마 (Liancourt rocks)	‘東嶼(女島)’ ‘西嶼(男島)’
일본수로지 제 10권	1917		
일본수로지 10권 상	1920	다케시마 [Liancourt rocks](‘たけ’)	‘東方島’ ‘西方島’
일본수로지 10권 하	1920		
조선연안수로지 제 1권	1930		
조선연안수로지 제 2권	1930		
조선연안수로지 1권 개판	1933	竹島(タケシマ)	東方島, 西方島, 지도에는 東島와 西島
조선연안수로지 2권 개판	1934		

한편 수로지에 나오는 ‘죽도’와 그 주변 섬(바위)에 대한 호칭은 아래와 같다.

| 표 4-7 | 수로지의 죽도[竹嶼] 및 주변 지명

수로지명	서기	죽도 호칭	주변 지명
수로잡지 16호	1883		
수로잡지 41호	1883	竹嶼(Boussole Rx), 竹島(조선인)	北亭嶼, 호루 암

| 표 4-7 | 수로지의 죽도[竹嶼] 및 주변 지명(계속)

수로지명	서기	죽도 호칭	주변 지명
환영수로지 제2권	1883		
환영수로지 제2권 2판	1886	竹嶼 (서양명 보츠루 암)	北亭嶼
조선수로지	1894	竹嶼(보츠루)	
조선수로지 재판	1895		
일본수로지 4권	1897		
조선수로지 제2판	1899		
조선수로지 제2 개판	1907	竹嶼[Boussole rock]	
일본수로지 4권 제1개판	1907		
일본수로지 제 6권	1911	竹嶼	三本立, 공암, 추산, 황토금말, 간령말, 沙空南末, 쌍정초
일본수로지 제 4권	1916		
일본수로지 제 10권	1917		
일본수로지 10권 상	1920	죽도(竹嶼)=チュクト	삼형제암, 三本立, 추산, 삼선암, 황토금말, 간령말, 杏南末(沙空南末), 쌍정초, 甯島(北岩, 兜島)
일본수로지 10권 하	1920		
조선연안수로지 제 1권	1930		
조선연안수로지 제 2권	1930		
조선연안수로지 1권 개정판	1933	竹嶼	성인봉, 삼형제암, 공암, 추산, 待風坎(タイフウカン) (黄土金木), 쌍정초
조선연안수로지 2권 개정판	1934		

수로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관련 경위도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4-8 | 수로지의 조선 및 울릉도·독도 경위도

수로지명	연도	도명	경위도
수로잡지 16호	1883	松嶋	북위 37도 48분 동경 130도 32분
수로잡지 41호	1883	鬱陵島 (一名 松嶋)	북위 37도 22분, 동경 130도 57분
환영 수로지 2권	1883	리앙코루토 열암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5분
환영 수로지 2권 2판	1886	鬱陵島 一名 松島	북위 37도 30분, 동경 130도 53분
		리앙코루토 열암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5분
조선 수로지	1894	조선	북위 33도 15분-42도 25분 동경 124도 30분-130도 35분
		鬱陵島 (一名 松島)	북위 37도 30분, 동경 130도 53분
		리앙코루토 열암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5분
일본 수로지 4권	1897		
조선 수로지 제2판	1899	鬱陵島(一名 松島)	북위 37도 30분, 동경 130도 53분
		리앙코루토 열암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5분
조선 수로지 제2개판	1907	鬱陵島	북위 37도 30분, 동경 130도 53분
		竹島 (Liancourt rocks)	북위 37도 0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일본 수로지 4권 제1개판	1907	竹島 (Liancourt rocks)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지학잡지	1908	동도(독도)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
일본 수로지 6권	1911	鬱陵島 一名松島 [Dagelet island]	북위 37도 30분, 동경 130도 52분
		竹島 (Liancourt rocks)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
일본 수로지 4권	1916	竹島 (Liancourt rocks)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
일본 수로지 10권	1920	鬱陵島一名松島 (Dagelet island)	북위 37도 30분, 동경 130도 52분
		竹島 (Liancourt rocks)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33초
조선 연안 수로지 1권	1933	竹島(タケシマ)	

위의 표로 알 수 있듯이, 수로지는 일본 수로지와 조선 수로지를 막론하고 모두 울릉도와 독도의 경위도를 싣고 있다. 울릉도의 경위도는 대체로 동경은 130도 32분에서 동경 130도 53분 사이로 표기되거나, 북위는 37도 22분에서 37도 30분까지로 표기되어 수로지마다 약간 편차가 있다. 독도의 경위도는 북위는 37도 0분 30초에서 북위 37도 14분 18초 사이로, 동경은 131도 52분 22초에서부터 131도 55분사이에 표기되어 있다.

『조선 수로지』(1894)는 조선의 범위를 북위 33도 15분에서 42도 25분, 동경 124도 30분에서 130도 35분으로 표기하고 있으면서 울릉도의 경위도와 리양코루토 열암의 경위도를 따로 표기하고 있다. 여기서 수로지에 나타난 조선의 경위도에 한정시켜 보면 울릉도와 리양코루토 열암은 조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 수로지에 표기된 경위도만으로 조선의 영토범위를 한정한다면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두 섬을 조선 영토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위도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울릉도와 독도를 따로 편목에 넣어 기술하고 있으며, 더구나 조선 영토임이 명백한 울릉도마저 경위도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으므로 수로지에 나타난 조선의 경위도 범위가 반드시 영토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지리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리지에 표기된 조선의 범위가 극동으로는 동경 130도 54분이 제일 뚝긴 하지만, 지리지에 따라서는 130도 35분에서 56분에까지 나타나 기록에 따라 약간 편차가 있다. 이때의 경도만으로 본다면 이 범위 안에는 울릉도와 죽도가 포함된다. 죽도의 경도는 130도 56분 16초 7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통어사정』의 경우는 조선의 범위를 동경 124도에서 132도에 걸쳐 보고 있으므로 독도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영토 범위와 경위도간에는 불일치가 존재한다.

위에서 나온 지리지와 수로지에 나타난 ‘강치’ 호칭을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표 4-9 | 지리지와 수로지에서의 강치 호칭

수로지명	서기	호칭	비고
한해통어지침	1903	海馬	
한국지리	1904	海馬	
최근 한국실업지침	1904	海馬	
	1906	嘉支, 可之	대한자강월보(1906. 10.25)
조선수로지 제2 개관	1907	토도	
일본수로지 4권 제1개관	1907	海豹	
일본수로지 제 6권	1911	海驢	
일본수로지 10권 상	1920	海驢-토도	
島根縣誌	1923	海豹와 海驢	
조선연안수로지 1권 개정판	1933	海驢	

※ 대구시보 1947년 6월 20일자 기사에는 海狗로 되어 있다.  
海驢는 일본어로는 아시카 즉 강치(바다사자)를 말한다.

참고로 지금까지의 지리지 및 기타 문헌에 나온 거리관계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표 4-10 | 문헌상의 각 지역간 거리관계

서명(자료명)	연도	조선→ 울릉도 (면적, 둘레)	울릉도→ 독도	오키 → 조선	오키→ 울릉도 (괄호는 둘레)	오키→독도
기죽도사략	1618	40리(8-9리)			서북 120리 (10리)	80湞(30정)
죽도도설	1751-63		40리		요나고에서 160리	요나고에서 60리
장생죽도기	1801					36정 1리, 170리
은기고기집	1823				70여리	북서 40여리(1리)

| 표 4-10 | 문헌상의 각 지역간 거리관계(계속)

서명(자료명)	연도	조선→ 울릉도 (면적, 둘레)	울릉도→ 독도	오키 → 조선	오키→ 울릉도 (괄호는 둘레)	오키→독도
죽도고	1828				150여리	
일본지리지요	1874-9			136리 30정	100리 4정	69리 35정
수로잡지	1883	80리			140리	
환영수로지	1886	80리			140리	
조선통어사경	1893	울진에서 350리(韓里)				
일본지리지료	1902-3			136리 30정	100리 4정	69리 35정
한해통어지침	1903	평해에서 40여리	동남방 30리			30리
최신 한국실업지침	1904	월송포에서 40리				울릉도와 오키 중간 30리
한국지리	1904	강원도 연안에서 80浬(18里)			140里	
한국신지리	1905	평해에서 40여리 (50방리)	동남방 30리 (10여정)			
대일본지지	1907				서북 85浬	
일본 수로지	1907					북서 80浬
조선 수로지	1907		50浬			80浬
한국수산지	1908	40여리 (5리 사방)				80浬
조선 신지지	1910	80리			서쪽 140리 (18리)	

| 표 4-10 | 문헌상의 각 지역간 거리관계(계속)

서명(자료명)	연도	조선→ 울릉도 (면적, 둘레)	울릉도→ 독도	오키 → 조선	오키→ 울릉도 (괄호는 둘레)	오키→독도
일본 수로지	1911	용추곶에서 71浬(22리)				
조선지	1911	울진에서 80浬 (9평방리)				
최신 일본지리지자료	1911					85浬
최신 조선지	1912	평해에서 40여리 (9평방리)				
일본 수로지	1916					북서 80浬(2浬)
최신 조선지리	1918	포항에서 150리, 울진에서 80浬			호키에서 186浬	
최신 조선지	1918	울진에서 90浬, 부산에서 180浬			마쓰에 180리 (10浬)	
일본 수로지	1920	용추곶 73浬(22리)				
島根縣誌	1923		동남으로 50浬			85浬
신편 조선지	1924	울진에서 35里(4방리)				
조선 13도지	미상	강원도 동북 76해리 (4.73방리)				

※ 괄호 안의 숫자는 둘레 혹은 면적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임  
 里로 되어 있으나 海里(浬)로 계산해야 거리에 맞는 경우가 있음  
 참고로 보면, 시마네현 고시(1905)에는 오키에서 독도사이의 거리가 85해리로 되어 있음

#### 4. 호칭으로 본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 종합

근대 초기 지리지에 나온 ‘울릉도’ 호칭으로는 자산도, 궁승, 다케시마, 죽산도, 무릉, 우릉, 우산국 등이 있었다. 1883년의 수로잡지에 울릉도 호칭으로 마쓰시마가 등장하고 『조선통어사정(朝鮮通漁事情)』(1893)에 마쓰시마가 등장한 이래 울릉도 호칭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다줄레 섬 등이 혼재되어 있었다. 1910년 이후에는 ‘울릉도(일명 마쓰시마)’, 혹은 ‘울릉도 일명 마쓰시마(Dagelet island)’로 바뀌어가다 ‘鬱陵島[松島]’로의 변모를 보인다. 한자로는 ‘鬱陵島’와 ‘蔚陵島’가 함께 쓰였다.

‘독도’ 호칭은 18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울릉도 호칭을 ‘다케시마’로 했기 때문에 독도는 ‘마쓰시마’로 호칭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1894년의 『新撰 朝鮮地理誌』에 독도의 호칭으로 우산도(汚山島)와 마쓰시마가 함께 등장한다. 1901년까지도 일본인이 펴낸 지리지에 독도 호칭으로 ‘우산도’가 나온 것은 우산도가 독도라는 사실을 일본이 인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독도 호칭으로 ‘양코 島’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03년의 『한해통어지침』에서인데 이 호칭은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기 전까지도 사용되었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면서부터는 대부분의 지리지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호칭하였으나 편입 후인 1912년 시점에도 독도를 ‘로크(rock) 리양코루도’라고 칭한 지리지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이후에도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 다시말해 조선영토로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다.

이렇듯 지리지에서의 호칭 변천과는 달리 수로지에는 독도가 한결같이 ‘다케시마(Liancourt rocks)’로 표기되어 있으며, 1910년 이후에도 독도는 ‘다케시마(Liancourt rocks)’로 되어 있어 여전히 ‘리양쿠르 락스’ 즉 ‘양코 도’가 병기되어 있는 것이다. 그 후 울릉도 호칭은 ‘마쓰시마’로, 독도 호칭은 ‘다케시마’로 정착되어 가는데, 이 과정에 ‘죽서(竹嶼)’에 관한 정보도 지속적

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죽도와 죽서(竹嶼)가 ‘다케시마(竹島:독도)’와 혼동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은 특히 지도에서 심하다. 지리지에서 언급된 내용이나 거리관계로 보면 다케시마(竹島)가 독도를 가리킬 때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상으로 보면 ‘다케시마’가 현재의 죽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다케시마’ 호칭 자체에 대한 혼란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현재의 ‘죽도’에 대한 호칭으로는 竹嶼(Boussole Rx), 竹嶼(보츠루), 竹嶼[Boussole rock], 죽도(竹嶼, チュクト) 등으로 다양하게 나오지만 점차 ‘죽서’에서 ‘죽도’로 발음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일본 지리지에서 표기된 지명을 보면, 현지에서 불리던 우리말 지명을 발음과 유사한 한자로 표기하거나 뜻에 의거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북정서’는 울릉도 주변의 북저바위를 일러 한자화한 것이고, 투구바위에 해당되는 것을 ‘주도(胄島)’로 쓰되 이를 일본 호칭 두도(兜島)로 병기한 것, 송곳산을 추산, 삼형제바위를 일러 ‘삼분립’으로, 모시개를 저동, 현포(玄圃)를 ‘검은사키’로 병기한 사례 등은 호칭의 음차내지 혼차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표기 양식은 ‘돌섬’ → ‘석도’ 표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독도에 대한 호칭이 조선 지리지에는 마쓰시마, 우산도, 양코 도가 혼재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일본 지리지에는 마쓰시마와 다케시마가 주로 나오다가 1900년 이후에는 대부분 ‘다케시마’로 단일화되어 갔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조선 지리지에서는 독도의 호칭으로 ‘양코 도’를 언급한 것은 있어도 ‘다케시마’를 언급한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조선 신지』(1910)에, 울릉도 동쪽에 작은 ‘죽서(다케시마)’가 있다고 하여 ‘죽서’에 ‘다케시마’를 병기했지만, 이 경우의 다케시마는 현재의 죽도를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조선 지리지에서 독도의 호칭으로 많이 등장한 것은 다케시마가 아니라 ‘마쓰시마’ 혹은 ‘양코 도’였다. 그러나 양코 도라는 호칭 역시 20세기에 들어와 보이기 시작하여 1903년의 『한해통어지침』과 1904년의 『최

신 한국실업지침』, 1905년 『한국 신지리』 단계에서만 보인다. 1905년 영토 편입 조치 이후에는 『최신 조선지지』(1912)를 제외하면 수로지에서와는 달리 조선 지리지에서 ‘양코 도’라는 호칭은 거의 사라진다. 그 이유는 영토 편입을 하면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명명한다고 공포했기 때문이며, 그 결과로서 독도가 이른바 일본 영토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선 지리지에 수록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아서일 것이다. 따라서 초기 지리지에서 간헐적으로 보이던 ‘우산도’ 호칭도 사라졌다.

그러나 일본 지리지에서 1905년 이전 독도의 호칭은 주로 ‘마쓰시마’였고 그 후부터는 ‘다케시마’로 주로 표기되었다. 여기에 ‘리양코루도 암’을 병기한 경우가 많았다. 1905년 편입 이전에는 ‘오키국’ 안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같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들 두 섬은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조선의 속도(屬島)로 취급되어 셋트로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 지리지에서도 1905년 이후에 와서야 독도가 일본의 판도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에 1905년 이후에는 조선 지리지에서 울릉도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되는데 특히 지명 부분이 자세해지고 행정구역에 대한 기술이 늘어나고 있다.

이상의 검토로 알 수 있는 것은 수로지를 포함한 지리지에서 ‘다케시마’ ‘마쓰시마’ 두 호칭이 나온다고 해서 이들이 반드시 지도상에 표기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리지에서 울릉도를 일러 다케시마 혹은 마쓰시마로 호칭하고 있을 경우에도 지도상에는 이들 외에 리양쿠르 락, 호넷 락, 부술 락, 아르고노트 섬, 다줄레 섬 등의 지명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호칭상의 혼란으로 인해 일본이 1905년의 독도 편입 때 독도 호칭을 ‘다케시마’로 정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편입 이후에도 여전히 조선 수로지에서는 독도 관련 내용이 울릉도 설명에 이어 나오는가 하면 일본 수로지에도 나오기도 한다. 더구나 서구식 호칭인 ‘양코 도’가 수로지에서 사라지고 ‘다케시마’라는 호칭이 온전히 정착하게 된 시기는 1930년대에 와서이다.

## 제 5 장 결론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 요약

근대 일본이 영토확장 또는 식민지 개척을 위해 조선의 지리지 편찬에 착수했을 때 제공받은 정보는 기본적으로는 근대 이전의 한국문헌 및 에도 시대 일본인이 저술한 지리지에 근거한 것이었다. 물론 근대기에 접촉했던 조선인, 일본인, 그리고 일본의 팽창과정에서의 여러 조직도 조선 지리지 편찬에 주요한 정보원 역할을 했다. 지리적 정보란 시기를 내려오면서 자세해지게 마련이며 이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정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하여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호칭과 기타 정보가 후대로 내려올수록 상세해지고 있으며 울릉도 또는 독도가 별도의 편목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물론 이들 두 섬에 대한 정보는 조선 전체의 지리적 정보라는 차원에서 보면 부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기도 한다. 이는 저자의 목적의식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저자가 지리지를 쓴 목적이 일본 정부의 식민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을 경우 식산과 척식 등에 중점이 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내용 역시 식산의 관점에서 기술상의 비중이나 역점에 차이가 보이게 된다.

그러나 근대기 지리지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팽창주의적 국가정책과의 연관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웠다. 또한 저자의 정보 수집과정이 문헌에 의존하는가, 현지 조사에 의존하는가에 따라 정확성에 차이가 있게 되고, 일본 정부와의 관련성 여하에 따라 조선 현지의 정보 수집능력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그리하여 초기에는 풍속 위주로 기술되던 지리지가 점차 수산지, 여행기, 산업지 형태의 지리지로 세분화되고, 식민화정책이 본격화되면서는 수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내용이 자세해지기 시작하

였다. 특히 울릉도는 에도시대에 양국간 ‘울릉도 쟁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리지에는 당연히 그 연혁이 실려 있다. 그리고 독도 관련 내용은 울릉도를 다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함께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청일전쟁 이후 지리지 편찬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졌고 따라서 지도에도 두 섬이 표기되기에 이르렀다. 1901년 『朝鮮開化史』가 출간됨에 이르러서는 일본 식민사업의 실행을 위해 조선이 반드시 개척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韓海通漁指針』(1903)의 단계에 오면 자연히 통어구역으로서 울릉도와 독도가 중시되어 두 항목이 따로 등장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때 ‘양코 도’ 즉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다루어지며 어업적 견지에서 그 특성이 기술되었다. 이어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조선의 실업 개척에 장애가 없어졌다고 판단, 일본 국내외 자국민에게 본격적인 실업지침을 내려주기에 이른다.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는 조선이 일본의 판도에 들어왔다고 공공연히 개진하게 된다. 강치자원이 풍부한 섬으로서의 독도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데도 조선인이 어업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게 울릉도는 무진장의 어장으로서의 인식을 지니게 된 것이다. 『韓國水産誌』의 발간은 이런 배경하에 나온 것으로서 울릉도에 관한 한 가장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수산지이기도 하다.

일본에 의한 조선 강점 이후에는 조선의 행정구역 및 지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울릉도 지명도 세분화되었다. 그리고 독도 호칭에서 마쓰시마와 다케시마, 리양코루도 락스가 혼용되어 있던 것이 점차 리양코루도 락스 즉 양코 도로 정착되어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독도의 이칭으로 ‘난도(다마고시마)’가 등장하고 이에 대한 고증을 하는 학자까지 나타나 ‘독도’ 호칭은 한층 혼란된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혼란은 조선 지리지는 물론 일본 지리지 및 수로지에 기술된 호칭에서 일관성이 없음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이다.



『일본 지리지』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다룬 경우, 초기에는 ‘오키’ 항목에 들어가 있으나 오키에 속하지 않은 별도의 섬으로 다루다가 강점 이후에는 ‘울릉도’는 조선 영토 부분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 부분에서 다루게 된다. 한편 1930년대 이후의 일본 지리지에서 독도 관련 내용은 전국 지리지에서보다는 지방 차원의 지리지 혹은 지방사에서 다루고 있다.

호칭의 혼란은 수로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울릉도는 ‘일명 마쓰시마’가 늘 병기되는 형태였고, ‘독도’의 경우에는 리앙코루도 열암, ‘竹島 [Liancourt rocks]’ ‘다케시마(竹島)’로의 변천을 보인다. 또한 독도를 두 개의 섬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호칭을 동도·서도 혹은 동서·서서, 동방도·서방도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 것 역시 수로지에만 보이는 현상이었다. 수로지는 특히 지명 부분이 자세하여 울릉도와 독도 이외에도 죽도 즉 부솔락스, 쌍정초, 공암, 삼분다테, 북정서, 추산, 삼형제바위, 황토금말, 간령말, 사공남말 등 주변도서 및 울릉도 지명이 기술되어 있다.

조선을 다룬 지리지에는 늘 경위도가 표기되어 있었지만, 경위도 역시 지리지와 수로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지리지라 하더라도 본문에 나타난 영토 범위와 지도에 나타난 영토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경위도로만 본다면 조선의 동단이 울릉도 내지 죽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에는 독도까지를 나타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울릉도·독도와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호칭상의 혼란이 지리지 편찬 초기단계에서부터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일본 지리지나 조선 지리지, 수로지의 구분 없이 동일하다. 근대기에 일어난 이런 혼란은 한국과 일본에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던 지식에 서양의 지식이 유입되면서 가중된 것이다. 이런 양상은 결국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하여 고유영토로서의 인식이 빈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울릉도에 대한 호칭은 차치하더라도, 1905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기 전

까지는 자신들이 펴낸 지리지에서 ‘다케시마’보다는 마쓰시마와 ‘양코도’라는 호칭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줄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지리지가 적어도 1905년 편입 이전까지는 독도를 언제나 울릉도와 함께 묶어 그 속도(屬島)로서 기술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05년 편입 이후에는 ‘독도’ 호칭이 기존의 마쓰시마 혹은 리양코루 도(양코 도)에서 ‘다케시마’로 바뀌어갔고 또한 ‘다케시마’를 울릉도와 분리시켜 울릉도는 조선 지리지에서, 독도는 다케시마로서 일본 오키 부분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런 호칭상의 추이를 볼 때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이후에는 조선 지리지에서 ‘독도’ 내용을 다루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독도에 대한 호칭도 1905년 이후에는 ‘양코 도’나 ‘마쓰시마’가 아닌 ‘다케시마’로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2년의 『최신 조선지지』에서는 독도를 일러 여전히 ‘리양코루도 열암’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울릉도의 속도로 다루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울릉도 호칭의 변화와 더불어 독도 호칭에 있어서의 비일관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나아가 고유영토로서의 인식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 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근대기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정보입수 과정과 그 인식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 호칭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변화와 추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지리지뿐만 아니라 일본 지리지와 수로지 등을 교차 분석함으로써 일본의 대(對) 조선 영토인식의 정합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했다.

그 연구 성과에서 국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근대 이래의 연속적인 독도 지배를 주장해 온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동일 생활권역으로서 성격을 부각시킴으로써 한국의 독도 지배에 대한 방증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위 양자를 2011년부터의 한국 독도교육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부연해보자.

먼저 일본 측의 독도 고유 영토론에 대한 반박으로서, 본 연구에서 드러난 독도 인식의 혼란상을 예거할 수 있다. 조선 지리지와 일본 지리지, 수로지를 교차 분석해보면,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실린 정보들이 작성기관이나 주체에 따라 내용상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수로지는 대체로 실측 정보에 기초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리지에 비해 좀 더 정확성을 띤다. 또한 수로지는 지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도의 두 섬 즉 동도와 서도에 관한 호칭이 등장한다. 수로지가 동서, 여도, 동방도, 동도 등 명칭의 변화는 있을지라도 독도의 두 섬을 구분하여 호칭을 싣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리지와는 다른 것이다.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 호칭으로 표기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에 대해 살펴보면, 지리지에서는 이들 두 명칭사이의 혼란이 늘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에도시대에 줄곧 울릉도 호칭이던 다케시마가 메이지 초기 마쓰시마와 혼동되어 두 호칭이 모두 울릉도의 호칭이 되기도 하고, 영토 편입 후에는 ‘다케시마’가 독도의 호칭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코도’가 병기되는 양상이 보인다.

이런 혼란은 우리나라에서 독도의 호칭이던 ‘우산도’ 호칭이 점차 시대를 달리하면서 다른 호칭으로 전화된 양상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독도 명칭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오래도록 불린 호칭은 ‘우산도’였다. 이 호칭은 삼국시대 ‘우산국’에서부터 시작하여 1900년대에 이르기까지 등장해왔고, 일본이 펴낸 지리지에서도 우산도 호칭이 간헐적이지만 등장해왔다. 한 때 독도의 호칭으로 삼봉도나 가지도 등이 등장

했었다. 그러나 이들 호칭은 독도의 형상이나 특징으로 인해 등장한 호칭으로서 일시적으로만 사용되었다. 1900년 대한제국 당시에는 ‘우산도’ 대신에 ‘석도’가 등장했다가 석도는 이내 ‘독도’로 바뀌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산도’에서 ‘독도’로 바뀐 변화가 일본의 경우처럼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라는 두 섬의 명칭이 서로 맞바뀌는 식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의 섬에 대한 명칭이 형상에 따라 다르게 호칭되어 전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호칭 변화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일본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라는 두 호칭이 울릉도와 독도의 호칭으로 쓰였고, 이들 호칭은 근대 이전에는 나름 일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울릉도 호칭으로 일관되게 쓰인 것은 근대 이전에는 다케시마였고 독도 호칭은 마쓰시마였다. 그러다가 서구의 호칭이 유입되면서 지도와 수로지에 울릉도가 마쓰시마로, 독도가 다케시마로 기재되기 시작하는 한편으로 서구의 호칭이 병기되는 양태로 변했다. 그러다가 일본은 영토 편입 이후에는 독도의 호칭을 다케시마로 정했고 조선 강점 이후 특히 1930년대의 일본 지리지에서는 독도 즉 다케시마에 대해서만 기술하되 전국 지리지가 아닌 지방 지리지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호칭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혼란된 양상을 보인다. 이런 혼란은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에 관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지니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본 연구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문헌 사료가 부족한 이 영역에서, 한국 측은 일관되게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간주하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한국의 울릉도 지배 검증을 통해 독도의 한국 영토 귀속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일본 지리지의 서술 내용은 이러한 한국 측의 태도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리지 교차검토를 통해 알 수 있게 된 사실은 일본인들은 적어도 1905년 이전의 지리지(조선 지리지든 일본 지리지든)에서는

‘울릉도’에 대해서만 기술하거나 ‘독도’에 대해서만 기술한 예가 없다는 점이다. 울릉도를 다룰 때는 언제나 독도에 관한 내용도 함께 언급되었다. 이는 일본이 언제나 울릉도와 독도를 한 셋트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반면에 일본에 의한 독도 영토 편입 후 나온 일본 지리지라고 해서 반드시 독도인 ‘다케시마’를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일본에 의한 영토 편입 후 펴낸 일본 지리지에서 조선 영토인 울릉도를 다루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 의식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위의 두 가지 논점은 모두 현재의 독도 관련 각종 홍보물에 투영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독도 교육 속에서도 이를 부각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에 대해 역사적으로 혼란스러운 인식 양상을 보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정작 그 구체적인 경과와 각종 변종들은 정확히 파악되어 오지 않았다. 일본인들조차 채 정리하지 못한, 본 연구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알기 쉬운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교육 현장 및 한일 교류의 현장에서 일본 측의 논리를 반박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또한, 그간 한국 측만의 논리로 인식되던 울릉도 - 독도의 공동 생활 구역적 성격을 일본인들조차 지리지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부각함으로써 한국 측의 독도 영유 사실을 허구라 하여 일소에 부치는 일본 측의 태도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고려사

동국문헌비고

박세당, 「鬱陵島」

삼국사기

세종실록

신증 동국여지승람

### <일본 문헌>

奥原碧雲, 『竹島及鬱陵島』, 1907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1966.

荒井由美, “日本近代地誌學の發展からみた地誌學の特性に關關る一考察,” 『お茶の水地理』 27, 1986년 5월.

石田龍次郎, “皇國地誌の編纂—その経緯と思想,” 『一橋大學研究年報 社會學研究』 8, 1966.

柴田陽一, “『滿州國』における地理學者とその活動の特徴,” 石川禎浩編, 『中國社會主義文化の研究』,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2010. 所收

坪井九馬三, “竹島に就いて,” 『歴史地理』 56卷 1號, 1930.

林子平, 『三國通覽図說』, 1785

三輪徳三講述, 『近世植民史』, 早稻田大學出版部, 1907.

山田俊弘, “地質學者, 地誌を書く—日本地理學の近代化, 1888年-1925年,” 『科學史研究』 45, 2006.

山本修身, 「復命書」 『明治十七年蔚陵島一件録』

和田久徳, “『中山傳信録』の清刊本と和刻本,” 『放送大學研究年報』 第5號, 1987.

<단행본>

김수희, 『근대 일본어민의 한국진출과 어업경영』, 경인문화사, 2010.

『독도관계자료집』 (1) - 왕복외교문서 1954년 9월 25일부.

박인호, 『조선 후기 역사지리학 연구』, 이회문화사, 1996.

스테판 다나카 지음, 박영재, 함동주 옮김,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2004.

오다 이쿠고로 지음, 구리타 에이치 옮김, 『象胥紀聞』, 이회문화사, 2005.

<논 문>

강순돌, “일제강점기 조선지리지의 성격에 관한 고찰,” 『문화역사지리』 20권 3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8.

김기혁·윤용출, “일제 강점기 울릉도 지명의 생성과 변화,” 『문화역사지리』 18권 1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6.

박장배, “만철 조사부의 확장과 조사 내용의 변화,” 『중국근현대사 연구』, 2009.

양보경, “한국 중국 일본의 지리지 편찬과 발달,” 『응용지리』 19, 성신여대 한국지리연구소, 1996.

유미림, “우산도=독도’설 입증을 위한 논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 - 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8.

정애영, “러일전쟁 직후 일본의 간도조사와 지역구상,” 『일본역사연구』 제 28집, 일본사학회, 2008.12.

최영준, “조선 후기 지리학 발달의 배경과 연구전통,” 『문화역사지리』 4,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1992.





근대 일본의 지리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

2010年 12月 日 印刷  
2010年 12月 日 發行

編輯兼 金 學 韶  
發行人  
發行處 韓國海洋水產開發院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2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

組版 · 印刷 / (주)정인I&D 34486-6791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관매센터 Tel : 394 - 0337





